



#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2025-2029 발전방안 연구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2025~2029)  
발전방안 연구**

2024. 11. 30.



# 제출문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 귀하

본 연구물을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2025~2029)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1월 30일

한국장애학회

Korea Society for Disability Studies

#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2025~2029) 발전방안 연구

---

연구수행기관	한국장애인학회
연구지원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충남문화관광재단
책임연구원	홍혜전 한국장애인학회 문화예술분과 위원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
공동연구	이미경 장애인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소장 권지현 보편적극단 연출 김나영 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총괄기획본부장 최지혜 대구대학교 장애학연구소 연구원

## CONTENTS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2025~2029)  
발전방안 연구

25

29

---

<b>제1장 머리말</b>	<b>09</b>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02. 연구 범위 및 방법	13
<b>제2장 장애인 문화예술 선행연구 분석</b>	<b>19</b>
01. 국내 선행연구에 관한 내용 분석	20
02. 국외 선행연구에 관한 내용 분석	47
<b>제3장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b>	<b>59</b>
01.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실태 분석	60
02.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실태 분석	96
<b>제4장 FGI 분석</b>	<b>119</b>
01.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분석 내용	120
02.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분석 내용	134
<b>제5장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b>	<b>145</b>
01.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의 비전과 핵심가치	146
02.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의 추진전략과 전략과제	152
<b>제6장 맺음말</b>	<b>185</b>
01. 결론	186
02. 시사점 및 제언	188
<b>부록</b>	<b>193</b>
부록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조례 목록	194
부록 2. 2023년 충청남도 장애인 등록 현황	197
부록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조사지	198
부록 4.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조사지	204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2025~2029)  
발전방안 연구

PART 1.

---

# 제1장 머리말

---



## 1. 연구의 필요성

### ●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확대 필요

- 2000년대 이후 문화·복지정책 영역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2020년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발전·확대되었으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정책만족도는 여전히 낮으며,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3년간 주 활동 분야의 문화예술 작품 발표 및 참여 횟수는 평균 12편으로 나타나며, 비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횟수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창작, 연습, 발표, 자료,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은 평균 25.92점으로 전반적으로 공간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장애예술인 중 42.5%가 문화예술활동 전용공간이 없음).
- 장애예술인의 70.5%는 문화예술 활동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자폐성 장애는 87.4%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으며, 대부분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족(44.2%)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가족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장애예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예술 활동 보조 필요 시 도움을 주는 사람의 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음.

<표 1>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보조인 현황

(단위: %)

구분	문화예술 활동 보조인							
	가족	활동보조인 또는 간병인	협업관계 비장애예술인	근로지원인	협업관계 장애예술인	지인 (친구 등)	없음	
지체장애	26.7	25.1	24.6	1.7	5.5	13.0	3.4	
시각장애	37.6	32.5	6.2	18.3	1.0	3.7	0.9	
청각/언어장애	25.2	1.8	55.5	6.8	1.0	6.0	3.7	
장애 유형	지적장애	39.4	19.6	7.6	15.0	17.1	0.8	0.5
자폐성장애	82.8	4.6	11.0	1.5	0.0	0.1	0.0	
뇌병변장애	31.8	31.1	8.7	12.0	12.7	2.7	1.0	
기타	50.2	5.1	25.9	0.0	0.0	3.1	15.7	

- 또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에 의하면, 도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충남도민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5개년 계획’ 수립 필요**

- 2021. 4. 30.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필요

- 「2024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시행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기반조성 및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고도화 방안 필요

- 충남도 여건에 맞는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 정립 필요

〈표 2〉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비교

조례명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대상	장애(인)문화예술인 * 장애인등록 지역거주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장애예술인 * 장애인등록 지역거주 문화예술활동이 업(業)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예술단체
우선 구매	장애인 창작물 우선구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근거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15조의2항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1호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3항	문화예술진흥법 15조의2항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1호 장애예술인지원법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	동아리, 예비예술인	예술인(전문예술인)
활동	향유/창작	창작/유통
비교	장애인 생활체육(유사)	장애인 엘리트체육(유사)
정책	복지정책	예술정책
개념	장애인이 하는 예술	장애가 있는 예술인
예술 영역	향수자 예술영역	전문가 예술영역

---

##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시행령,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기본계획(2022-2026)」, 「2024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해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임.

- 첫째, 충청남도 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비전, 핵심가치, 추진전략, 전략과제 및 로드맵 도출
- 둘째, 충청남도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도출
- 셋째, 이에 따른 세부 실행과제, 실천방안 및 단계별 세부과제 제시

## 1. 연구 범위

### ● 시간적 범위

- 추진과제 사업기간: 2025년~2029년(5년)
- 활동현황 분석은 가장 최근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지만, 시계열 비교의 가능여부를 확인 후, 가능 시점부터 비교 실시

###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 ● 내용적 범위

- 기존연구 및 문헌 조사를 통한 국내·외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 파악
- 국·도정 장애예술인 문화정책 과제와 지원사업 현황 분석
- 충남도 장애예술인(단체) 예술활동 현황 분석
- 충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현황 분석
-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
-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 고도화를 위한 제언

## 2. 연구 방법

### ● 문헌연구

- 국내·외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지원 정책, 제도, 의미, 과정, 인식 등 모든 영역에서 분석
- 관련 기존 통계는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

## ● 설문조사(survey)

- 충남도의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충남도민, 장애예술인(단체), 장애예술 기획자를 대상으로 실시.
- 조사내용은 충남도의 장애예술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인식, 장애인과 장애예술인(단체)의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 교육 활동 실태, 충남문화관광재단 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후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등임.

## ●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개별면담 및 자문회의

- 충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예술분야별, 그리고 장애유형별 장애예술인(단체)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자, 장애예술기획자, 장애예술지원사업 기관담당자, 장애인 정책과 장애예술 및 문화예술정책 연구자로 구성하여 진행함.
- 각각의 초점집단면담과 개별면담 및 자문회의를 통해 충남도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정책 방향성과 로드맵 및 문화예술(문화예술교육) 실행과제 및 실천방안을 도출함.

〈표 3〉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내용

조사방법	내용	대상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정책, 제도, 의미</li> <li>•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발전과정(태동~현재)</li> <li>•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와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전 영역</li> </ul>
기존 통계 및 기관 담당자 면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도정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과제 현황</li> <li>• 국·도정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실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전 영역</li> <li>• 장애예술지원사업 기관담당자</li> </ul>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민의 장애예술인(단체) 및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인식</li> <li>• 충남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활동 현황</li> <li>• 향후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단체)</li> <li>• 장애인</li> </ul>
초점집단면담 및 개별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인식 및 방향성</li> <li>• 충남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문화예술교육) 실행과제 및 실천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단체)(예술분야별, 장애유형별)</li> <li>•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자</li> <li>• 장애예술기획자</li> <li>• 장애예술지원사업 기관담당자</li> <li>• 장애인 정책, 장애예술 및 문화예술정책 연구자</li> </ul>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 문화예술(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 사전 자문을 통해 연구 고도화</li> <li>• 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 결과로 발굴된 추진전략, 이행과제 등에 대한 타당성 의견수렴</li> <li>•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전략 도입 필요과제 발굴 관련 전문가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단체)(예술분야별, 장애유형별)</li> <li>•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자</li> <li>• 장애예술기획자</li> <li>• 장애예술지원사업 기관담당자</li> <li>• 장애인 정책, 장애예술 및 문화예술정책 연구자</li> </ul>

## ● 연구참여자

- 장애예술가 및 예술단체 대표와 연구원, 기획·행정가 및 문화예술교육가로 각각 두 영역으로 구성, 총 25명을 진행함.
- (장애예술 및 교육 분야의 전문성) 장애예술 또는 관련 교육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 (관련 분야에 대한 학문적 배경) 장애예술, 교육,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문 분야에 대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자
- (현장 경험과 정책 연계성) 장애예술인 교육 및 강사 활동을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자
- 장애예술인 권리 증진 및 정책 개선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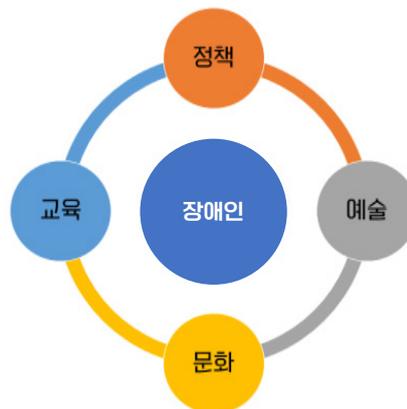
〈표 4〉 FGI 전문가 구성

순번	구분	분야	전문가명	장애유형 및 소속
1	장애예술가 및 예술단체 대표	무대감독	김00	지체장애/교수
2		연극	김00	지체장애/장애인극단 대표
3		미술	고00	시각장애/프리랜서
4		기획	신00	지체장애/사무국장
5		연극	고00	비장애/장애인극단 대표
6		미술	김00	비장애/장애예술교육강사
7		국악	이00	비장애/부모회회장
8		음악	김00	지체장애/교수
9		연극	김00	지체장애/장애인극단 대표
10		연극	손00	비장애/장애학자
11		무용	김00	지체장애/협회장
12		미술	장00	비장애/장애예술교육강사
13		미술	김00	비장애/장애인단체 대표
14	연구원, 기획·행정가 및 문화예술교육가	장애학자	전00	지체장애/교수
15		문화학자	최00	비장애/문화기획대표
16		문화예술경영학자	박00	비장애/교수
17		문화학자	조00	비장애/연구자
18		언론인	김00	비장애/장애학자
19		문학학자	차00	비장애/장애학자
20		문화예술교육	최00	비장애/기획자
21		예술행정	이00	비장애/행정가
22		예술행정	박00	비장애/행정가
23		극장기획	이00	비장애/접근성매니저
24		언론인	이00	정신장애/장애학자
25		문화예술교육	문00	비장애/장애예술교육 강사

### 3. 연구 추진전략

#### ● 장애인을 ‘대상’이 아닌 ‘존재’로서 바라보는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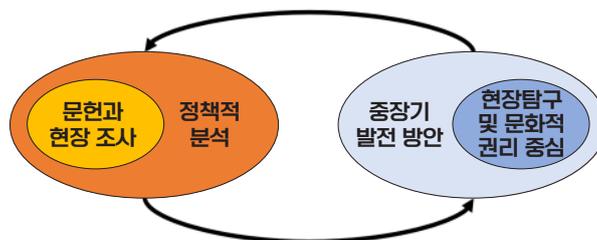
- 기존의 장애 관련 연구들은 장애인을 고유성과 다양성을 지닌 주체로 보기 보다는 분류되는 객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 이제는 장애인을 고유성과 다양성을 가진 당사자로 인정하며, 장애인의 경험과 관점이 사회와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해야 함.
- 이를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와 관점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자기결정권과 주체적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모든 정책은 장애인을 단순한 정책의 대상이 아닌 고유성과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 존중하며, 이를 반영한 정책 모델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1] 연구 추진전략1

#### ● 정책과 현장을 연결한 실질적 전략

- 문헌과 현장 조사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장애유형별 및 예술분야별 특성과 정책적 요구를 분석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



[그림 2] 연구 추진전략2

## ●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으로 관점 통일 해석

- 현재 혼용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장애인 문화예술, 장애인 예술활동 등의 용어를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함.
- 본 연구에서는 장애예술인을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지적 차이를 가진 예술가로 정의하며, 이러한 차이를 창작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창작, 공연, 전시, 발표 등을 통해 독창적 작품을 만들어내는 주체적 활동을 수행함.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은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장애를 독창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활용하거나, 장애와 관련된 주제를 예술적 소재로 삼아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창작활동을 포함함.
- 더 나아가,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은 예술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활동도 포함하며, 이는 장애예술인이 창작과 교육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확장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활동으로 정의함.

## ● 장애인의 문화예술(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관점 통일 해석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은 문화적 권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하고 체험하며,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는 활동을 의미함.
- 이는 단순히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일상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을 포함함.
-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며, 각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경험을 즐기는 활동임.
- 특히,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예술적 사고와 감각을 개발하며, 사회적 통합과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실현과 긍정적 자아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의함.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2025~2029)  
발전방안 연구

PART 2.

---

# 제2장

## 장애인 문화예술 선행연구 분석

---

01. 국내 선행연구에 관한 내용 분석
02. 국외 선행연구에 관한 내용 분석



## 1. 장애인 문화예술의 개념

### ● 장애인 문화예술의 정의

- 장애인 문화예술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권리를 기반으로 창작, 감상, 체험 등 예술적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사회와 상호 소통하는 모든 예술적 활동을 포함함.
- 이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예술활동을 통해 개인적 성장을 이루고,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이해됨.

### ● 장애인 문화예술의 특징

- 주체성 강화: 장애인이 단순히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창작과 향유의 주체로서 예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
- 창의성과 독창성: 장애를 고유성과 다양성의 원천으로 보아 독창적 예술적 표현과 새로운 담론을 형성함.
- 사회적 관계 확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문화적 권리 실현: 장애인의 예술 향유와 창작 참여를 통해 문화적 평등과 자기표현을 보장함.
- 접근성 중심: 물리적·심리적·정보적 장벽을 제거하고, 다양한 장애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예술 활동에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 장애인 문화예술의 범위

- 창작활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작품을 창출함.
- 향유활동: 공연, 전시, 영화 등 예술 콘텐츠를 감상하고 체험하며 예술을 경험함.
- 교육활동: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적 사고를 확장하고, 창의적 표현을 발전시키며, 개인의 성장과 자기실현을 지원함.
- 사회적 참여활동: 예술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협력하며,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적 관계를 형성함.

## ● 장애인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 사회적 통합 실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예술을 통해 상호 이해와 연대를 형성하며, 포용적 사회를 넘어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로 전환
- 자립과 자아실현 지원: 장애인이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며,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구축할 기회를 확대
- 문화적 다양성 확장: 장애인의 예술적 참여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풍부히 하며, 기존 예술 담론에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추가
- 모두를 위한 사회 구축: 문화예술을 매개로 장애인의 경험과 창작이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되며,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 조성

## ● 장애인 문화예술의 실현을 위한 필요 요소

- 접근성 강화: 물리적·심리적·정보적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모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의 창작 능력과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전문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정책적 지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및 재정 지원 마련
- 사회적 인식변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를 고유성과 다양성으로 존중하는 인식 확산
-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문화예술 활동 기반 확대

## 2. 장애인 문화예술의 유형

### ● 창작 중심 문화예술

- 창작 중심 문화예술은 개인의 장애 경험과 고유한 감각을 예술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포함함.
- 이러한 활동은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이루어지며, 장애인의 자기표현과 자율적 창작 과정을 존중함.

---

## ● 향유 중심 문화예술

- 향유 중심 문화예술은 단순히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체험하며 사회적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활동을 의미함.
- 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며,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

## ● 교육 중심 문화예술

-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장애인의 예술적 사고와 감각을 개발하고 창작 능력을 확장하는 활동임.
- 이러한 교육은 장애인의 개별적 필요와 특성에 맞춘 맞춤형 방식으로 제공되며, 개인적 성장과 예술적 자립을 지원함.

## ● 사회 참여형 문화예술

- 사회 참여형 문화예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협력하며 예술을 매개로 사회와 소통하는 활동을 포함함.
- 이는 공동체와의 협력,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며, 상호 이해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함.

## ● 치유와 재활 중심 문화예술

- 치유와 재활 중심의 문화예술은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목적으로 예술을 활용하는 활동임.
- 예술치료나 신체 움직임을 활용한 동작치료와 같은 활동은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자아 존중감과 삶의 의미를 강화함.

## ●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문화예술

-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임.
-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며, 이는 장애인의 예술 참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역할을 함.

### 3.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 변화

#### 1) 장애(인) 관점

##### ● 의료적 관점

- 문화예술 활동 주체로서 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이나 인간승리 모습을 표현
-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을 다른 차원의 능력자로 이미지화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 일반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외 다수 장애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됨.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전환하여 환경에 관한 관심을 배제 시킴.

##### ● 사회적 관점

- 문화예술정책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 입안·형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서 접근성 향상(편의시설 설치, 화면 자막 제공 등)이나 인식개선사업 등이 중심이 되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대한 개별 지원이 줄어들 수 있으며, 신체적 장애 중심의 논의로 이해될 우려가 있음.

##### ● 사회통합(포괄)적 관점

- 포용적 관점은 '문화예술 활동'을 강조하며, 주체가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음. 이같은 시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사회통합(integration)을 지향
- 2006년 채택된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은 2020년 5월 10일 기준으로 181개국에 비준(한국 2008년, 일본 2014년, 북한 2016년)
- 제 30조 '문화예술,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등에 대한 참여'는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해야 함을 규정하고, 문화예술 향유를 기본권 성격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 사회적·통합(포괄)을 실현하려면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령이 반드시 유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장애 특징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함.

## 2) 문화예술(정책) 관점

### ● 예술치료

- 예술치료는 현재의 제한된 기능을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둬.
- 보건복지부가 제도화시킨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목적으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음악치료와 미술치료가 포함
- 기능 중심의 예술치료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차별구조를 생산함. 문화예술이 장애인의 사회성 기능 향상,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적응을 도와주는 수단이 되지만, 문화예술의 고유한 창의성은 주변화될 수 있음.

### ● 평생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 평생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문화예술 기술과 행위를 숙련하는 과정
-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전문예술가의 양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창의성과 문화적 해독력(cultural literacy)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도 포함
- 예술강사와 장애인 창작자로서 수평적 관계 맺기가 어려우며, 파견된 예술강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한계 발생

### ● 정체성 및 다양성 표현

- 장애를 사회적·문화적 모델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장애가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으로까지 고양되며,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존재 양식'으로 정의
- 장애예술은 예술을 통해서 비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왜곡, 곧 정상, 다수자, 표준이라는 기준점에 저항하고 흔들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짐.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부족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험을 하는데, 장애예술은 이러한 '다른' 경험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표현임.

## 4. 장애인 문화예술지원과 정책

### 1) 중앙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 문화예술전담 부서가 설치되면서 활성화 시작
-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장애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인 ‘함께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 ‘문화 향유 지원’과 ‘장애 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장애인의 물리적·공간적 접근성이 높아졌고,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기회 확대를 통하여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2020.12.10. 시행)에서는 5년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1)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장애예술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비전과 방향 제시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정부 예산안에도 ‘함께누리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총 261억 원, 25억 증) 하였으며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 원, 신규),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 원, 신규),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 원, 신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 원, 신규) 등을 새롭게 편성하고 반영함.

####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창작 지원 강화) 공모사업·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표준공연장 등 무장애 창작공간 확충, 예술시장 진출 등 예술활동 전(全) 주기 지원
- (자립 지원 강화) 지자체·공공기관 등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 민간영역에서 장애예술인 취업 기회 확대·창업 확대 지원
- (정책기반 강화) 장애인 예술교육 확대, 교육·기획·창제작·유통 분야에서 활동할 매개인력 양성 등

비전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목표	<p style="text-align: center;"><b>장애예술인 지원체계 구축</b>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p>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p><b>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b></p> <p>1-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다각화 1-2.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출 및 창작물 유통 활성화</p>
	<p><b>2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b></p> <p>2-1. 공공영역의 일자리 확대 2-2. 민간영역의 일자리 확대</p>
	<p><b>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b></p> <p>3-1. 문화시설 및 공간 접근성 강화 3-2. 장애예술인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대국민 인식 개선</p>
	<p><b>4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기반 조성</b></p> <p>4-1.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정비 4-2. 정책연구 및 신기술 컨버전스 촉진</p>
	<p><b>5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b></p> <p>5-1. 장애예술인 양성교육 체계화 5-2.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p>

[그림 3]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표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추진전략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전략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확대</li> <li>•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확충</li> <li>• 지역 및 청년 장애예술인 활동 활성화</li> </ul>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출 및 창작물 유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출 지원</li> <li>•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유통 지원</li> <li>•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li> <li>• 장애예술인 국제교류 활성화</li> </ul>
전략2.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공공영역의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인식 개선 및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li> <li>• 지자체·공공기관 연계 일자리 창출</li> </ul>
	민간영역의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민간 등 다자간 협력 및 고용기준 개발로 고용 확산</li> <li>• 창업 지원 등 장애예술인 고용기반 확대</li> <li>• 장애예술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li> </ul>
전략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문화시설 및 공간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 맞춤형 시설·공간 조성</li> <li>• 문화시설 접근성 매뉴얼 제작·보급 및 자유지구 운영</li> <li>• 국공립 문화시설 개선 사업 추진</li> </ul>
	장애예술인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대국민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 서비스 및 문화시설 정보접근성 환경 구축</li> <li>• 예술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및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li> </ul>
전략4.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기반 조성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 정책 거버넌스 형성</li> <li>• 장애예술인 정책의 전문성 제고</li> <li>•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활성화</li> </ul>
	정책연구 및 신기술 컨버전스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 관련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li> <li>• 신기술 활동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교육 지원</li> <li>• 인공지능 기반 장애예술인 지원 도구 개발</li> </ul>
전략5.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	장애예술인 양성 교육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예술교육 및 문화 향유 지원 확대</li> <li>• 장애예술인 단계별 예술교육 체계구축</li> </ul>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확대</li> </ul>

출처: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 (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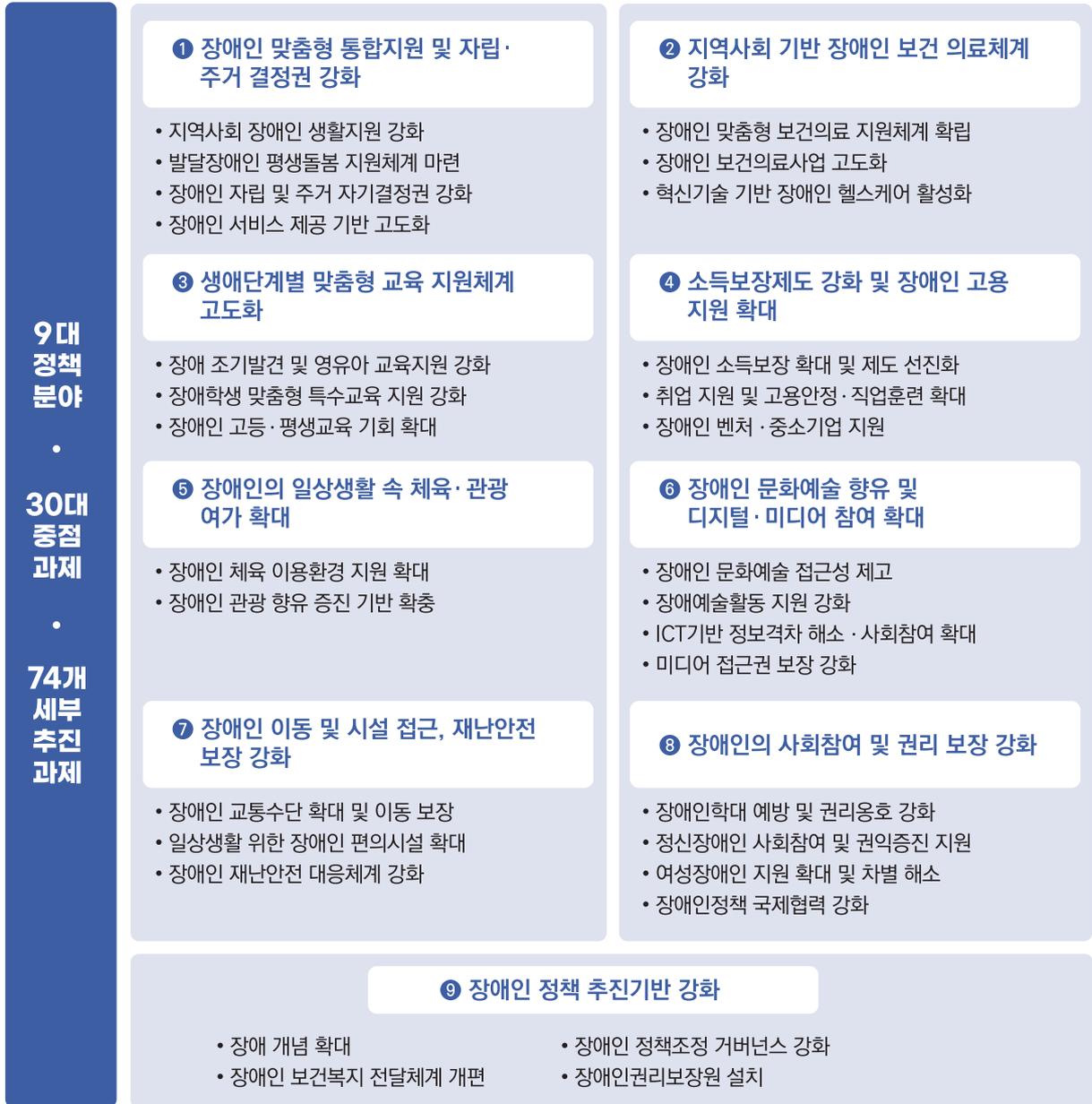
### ● 정책 기본방향

- (약자복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두텁게 지원 필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교육 지원, 장애인 연금 확대 등 맞춤형 돌봄·소득 지원 강화
- (사회서비스 고도화) 개인예산제 도입, 활동지원 확대 및 고도화 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차별없는 사회 구현 추진
- 기존 돌봄 제도를 정교화하고 주택·주거지원 확대, 건강권 보장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기반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글로벌 스탠다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따라 평등, 차별금지, 사회참여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 확대 필요
- \* 장애인 주요 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조약으로 '06년 UN 채택 후 182개국 비준(주요 주제) 자립생활, 건강·재활, 교육, 소득, 근로, 정보접근성, 문화·체육, 이동·접근, 안전, 인식개선 등

### ● 정책 비전 및 목표, 세부과제 마련

- 비전: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 목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
-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9개)를 세분화하였으며, 특히 건강, 이동편의, 디지털·미디어 등 새롭게 부각
- 각 분야별 정책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30개 중점과제 및 74개 세부 추진과제, 분야별 성과지표 등 제시

<b>비전</b>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b>목표</b>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
<b>정책 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자복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li> <li>•(사회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li> <li>•(글로벌 스탠다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li> </ul>



[그림 4]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표 6〉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방안

## 정책분야 6.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 6-1.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 접근성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교육 추진
  - 무장애 문화 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제도 마련 연구를 통한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안) 수립 추진
  -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우선지역 시범운영
  - 장애인 시설 향유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농민, 시각장애인의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 강화
  - 정부·공공기관·문화예술기관 주요 발표 시 수어통역, 점자번역 지원 확대
  - 문화정보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추진

### 6-2. 장애예술 예술활동 지원 강화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정책 제도화
  - 장애예술 공모사업 개선안 도출 및 사업개편
  -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개관 및 표준전시장 조성, 지역 장애예술 지원사업 등 추진
  - 장애예술 공모사업 예산 확대 및 지속 개편, 특성화 지원사업 확대 및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운영 활성화
  - 장애예술인 표준공간 조성 및 레지던시 사업 추진, 장애예술 단체 운영지원 확대
- 장애예술인·단체 창작물 유통지원 확대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 도입, 장애예술인 창작물 공공기관 구매 유도 촉진
  -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 연구 및 유통 플랫폼 구축·운영 추진
-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 매개자 양성 교육 체계 구축
  - 장애문화예술원 아카데미를 활용한 장애예술 심화교육 체계 마련 및 입문형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 단계별 장애예술인 교육체계 구축 계획 수립 및 심화교육 실시
  - 장애예술인 매개인력 양성교육 체계 마련

출처: 보건복지부(202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2)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현황

### (1) 충청남도 장애인 현황

- 충청남도의 등록장애인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134,004명으로 전체 등록장애 인구 수 2,641,896명 대비 5.07% 수준임.
- 충청남도의 등록장애인 수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60,854명으로 가장 많으며, 청각장애(22,892명), 지적장애(12,924명), 시각장애(12,051명), 뇌병변장애(10,438명), 정신장애(5,328명), 신장장애(4,313명), 자폐성장애(1,586명), 언어장애(1,053명), 장루·요루장애(851명), 간장애(599명), 호흡기장애(515명), 뇌전증(278명), 심장장애(197명), 안면장애(125명) 순임.

〈표 7〉 2023년 충청남도 장애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심한장애			심하지않은 장애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지체	60,854	11,775	7,854	3,921	49,079	27,531	21,548
시각	12,051	2,046	1,027	1,019	10,005	6,165	3,840
청각	22,892	4,779	2,476	2,303	18,113	9,246	8,867
언어	1,053	515	344	171	538	384	154
지적	12,924	12,924	7,673	5,251	0	0	0
뇌병변	10,438	5,899	3,178	2,721	4,539	2,694	1,845
자폐성	1,586	1,586	1,295	291	0	0	0
정신	5,328	5,279	2,687	2,592	49	33	16
신장	4,313	3,292	1,975	1,317	1,021	620	401
심장	197	143	77	66	54	38	16
호흡기	515	502	399	103	13	10	3
간	599	32	22	10	567	397	170
안면	125	63	36	27	62	40	22
장루·요루	851	87	57	30	764	469	295
뇌전증	278	80	47	33	198	104	94

출처: 국가통계포털 2023.12.31. 기준

- 충청남도 기초지자체별 등록장애인 현황은 <표 7>과 같이 천안시가 가장 많으며,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 순임. 계룡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의 수가 가장 적음.

<표 8> 충청남도 기초지자체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심한장애		심하지않은 장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134,004	29,147	19,855	85,002	47,731
천안시	27,277	6,313	4,388	10,015	6,561
공주시	8,587	2,070	1,374	2,831	2,312
보령시	8,636	2,048	1,266	2,926	2,396
아산시	16,443	3,777	2,465	5,971	4,230
서산시	10,447	2,121	1,453	3,828	3,045
논산시	10,117	2,334	1,690	3,306	2,787
계룡시	1,751	354	253	637	507
당진시	10,665	2,114	1,477	4,198	2,876
금산군	4,615	966	609	1,589	1,451
부여군	6,806	1,467	980	2,285	2,074
서천군	5,441	1,076	760	1,862	1,743
청양군	3,157	573	425	1,119	1,040
홍성군	7,318	1,535	1,040	2,556	2,187
예산군	7,471	1,374	1,002	2,669	2,426
태안군	5,273	1,025	673	1,939	1,636

출처: 국가통계포털 2023.12.31. 기준

## (2) 2022년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 목적: 충남지역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및 현장의 여건 요구 등을 파악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 결론 및 제언

- 장애예술인이 자유롭게 창작 및 발표(전시)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공간 마련 필요
  -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청 대행 서비스 필요
  - 전업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여, 소득 보장 및 고용 생활안정이 필요
  - 장애예술인은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 필요
- 창작에 소요되는 기간이 인정된 창작비, 창작을 위한 재료비, 전시비 등의 지원
  - 장애예술인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
- 충남지역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보 공유와 작가 간의 교류 협업을 위한 충남지역 장애예술인 네트워크 마련
  - 충남지역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와 선정 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과 다양한 지원,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충남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3) 충청남도 장애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정책 방향

- 충청남도는 2019년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전국 지자체 중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재정,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두 대상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중
- 충남문화관광재단 중장기 발전방안(2021)을 수립하여 충남의 문화예술지원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여
- 충남관광문화재단 장애예술 공감 주간 캠페인으로 장애인식개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장애예술인 활동 강화, 장애인 문화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선포식 진행
- 충남 장애예술 지원사업으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장애예술인 임차료 지원,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

- 전국 17개 광역 시도재단 중 유일하게 ‘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 충남 거주 예술인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2020)을 배경으로 장애예술인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중

〈표 9〉 충남문화재단 중장기(2021-2025) 발전 전략

<b>미션</b>	문화로 빛나는 충남, 예술로 행복한 도민				
<b>비전</b>	충남 문화예술복지 공동체를 구현하는 핵심기관				
<b>핵심가치</b>	창의	포용	협동	혁신	
<b>전략목표</b>	특색 있는 향유도시 조성	예술인 중심의 문화복지 구현	지역인재 양성으로 창의공동체 구현	도민 협치 거버넌스 구축	신뢰 기반의 기관 경영
<b>경영목표</b>	도민 향유자 수	예술인 만족도	교육 만족도	도민주도 정책 현장반영 건 수	기관평가 도민 만족도
<b>전략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유문화 콘텐츠 브랜드 추진</li> <li>고객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확대</li> <li>포용적 문화복지 확대</li> <li>충남 문화정보 접근성 강화</li> <li>미래 문화성장 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순환 창작환경 조성</li> <li>예술인 권리 증진</li> <li>공간기반 지원모델 구축</li> <li>지역문화 재정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강화</li> <li>지역밀착형 전문 인력 양성</li> <li>일상 속 생활문화향유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 교류협력 강화</li> <li>재단 연구역량 강화</li> <li>현장·위기 대응하는 정책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 경영체계 강화</li> <li>사회적 가치 실현 모델 구축</li> </ul>

출처: 충남문화관광재단(2021), 2021-2025 충남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보고서

### 3) 국내 지역별 장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동향

####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 장애문화예술 활동 관련 광역 지자체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조례 제정한 지자체 총 72곳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장애예술 향유 관련 정책은 지자체별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
- 주요 지자체별로 문화재단 등을 설립하여 장애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표 10〉 전국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관련 조례 재정 지방자치단체 목록

연번	지역	재정(일부개정일)	연번	지역	재정(일부개정일)
1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0. 11. 04.	37	경기도 양주시	2019. 11. 04.
2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7. 10. 17.	38	경기도 용인시	2019. 07. 01.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7. 12. 14.	39	경기도 의정부시	2023. 05. 17.
4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 07. 09.	40	경기도 평택시	2024. 02. 20.
5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8. 04. 17.	41	경기도 포천시	2023. 02. 22.
6	대구광역시	2019. 05. 21.	42	경기도 하남시	2023. 05. 01.
7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3. 11. 10.	43	강원특별자치도	2023. 06. 09.
8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4. 05. 17.	4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0. 04. 17.
9	인천광역시	2021. 12. 30.	4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 05. 16.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1. 03. 12.	46	충청북도	2024. 02. 16.
11	인천광역시 동구	2022. 01. 03.	47	충청북도 청주시	2024. 11. 15.
12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4. 07. 15.	48	충청남도	2023. 04. 24.
13	인천광역시 서구	2018. 12. 24.	49	충청남도 공주시	2024. 03. 15.
14	인천광역시 중구	2020. 07. 03.	50	충청남도 서산시	2021. 08. 01.
15	광주광역시	2013. 07. 01.	51	충청남도 아산시	2019. 09. 16.
16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7. 11. 15.	52	충청남도 태안군	2023. 07. 05.
17	광주광역시 남구	2021. 02. 23.	53	전북특별자치도	2023. 12. 08.
18	광주광역시 동구	2014. 10. 02.	5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 09. 19.
19	광주광역시 북구	2022. 01. 05.	5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3. 12. 21.
20	대전광역시	2017. 4. 28.	5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3. 12. 29.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8. 11. 14.	5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3. 12. 26.
22	대전광역시 동구	2021. 07. 01.	5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1. 06. 11.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1. 05. 14.	59	전라남도	2024. 07. 04.
24	울산광역시	2022. 12. 01.	60	전라남도 광양시	2020. 11. 11.
25	울산광역시 중구	2020. 08. 03.	61	전라남도 나주시	2013. 12. 20.
26	세종특별자치시	2016. 12. 20.	62	전라남도 목포시	2019. 10. 21.
27	경기도	2014. 10. 21.	63	전라남도 무안군	2021. 09. 27.
28	경기도 가평군	2020. 05. 06.	64	전라남도 순천시	2017. 04. 21.
29	경기도 광명시	2022. 08. 02.	65	전라남도 장성군	2023. 08. 07.
30	경기도 광주시	2024. 03. 25.	66	경상북도	2023. 05. 25.
31	경기도 김포시	2015. 09. 30.	67	경상북도 상주시	2020. 12. 30.
32	경기도 남양주시	2022. 05. 12.	68	경상남도	2019. 01. 03.
33	경기도 동두천시	2019. 07. 01.	69	경상남도 거제시	2019. 06. 05.
34	경기도 성남시	2023. 12. 11.	70	경상남도 거창군	2020. 07. 01.
35	경기도 수원시	2023. 07. 12.	71	경상남도 진주시	2023. 09. 21.
36	경기도 안산시	2019. 07. 19.	72	제주특별자치도	2021. 05. 2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 2020년 6월 9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조례 제정한 지자체 총 22곳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장애예술인 관련 정책은 지자체별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
- 서울, 경기, 광주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산의 경우 실태조사 내에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을 제안하며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시

〈표 11〉 전국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조례 재정 지방자치단체 목록

연번	지역	개정(일부개정)일	연번	지역	개정(일부개정)일
1	서울특별시	2023. 10. 04.	12	경기도 부천시	2023. 06. 30.
2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2. 01. 13.	13	경기도 파주시	2023. 04. 10.
3	부산광역시	2023. 10. 11	1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3. 03. 03.
4	대구광역시 북구	2024. 03. 20.	15	충청북도	2024. 02. 16.
5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4. 05. 20.	16	충청남도	2021. 04. 30.
6	광주광역시	2023. 08. 07.	1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3. 12. 26.
7	광주광역시 서구	2024. 02. 20.	18	전라남도 여수시	2021. 12. 03.
8	대전광역시 서구	2023. 12. 28.	19	경상북도	2023. 05. 25.
9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3. 12. 28.	20	경상남도 양산시	2023. 12. 19.
10	경기도	2024. 01. 10	21	경상남도 창원시	2021. 12. 31.
11	경기도 군포시	2022. 12. 14.	22	제주특별자치도	2023. 12. 26.

## (3) 서울특별시

- 2017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조례 재정 (2021년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 서울시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조례를 근거로 매년 장애예술인 지원 운영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음.
- 국내 최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공간인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 문화예술 지원

- **입주예술가 창작지원 및 역량강화** : 입주작가 작업실 지원, 기획전시 지원 (효성 후원사업 연계), 교육지원
-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 창작지원금, 창작활동비 지원
- **공동창작워크숍** : 협력을 위한 소통지원, 작품개발 워크숍 운영, 전시지원
- **외부 제휴사업** : 신규 제휴기업·기관 발굴(예술의전당, 한국국제교류재단, 광주문화재단 등 7곳) 및 광역 문화재단 연계전시신규추진(부산 벅스코, 관람객 3,200여 명)

〈표 12〉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향유 및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세부 내용
문화예술향유	서울스테이지2024	• 서울 곳곳에 무료 예술공감 콘서트 개최
	지역·생활문화	• N개의 서울: 지역문화·생활예술활성화, 자치구 인디음악 생태계, 지역협력형 문화예술 교육 • 생활예술활성화: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개최 • 서울 생활예술 플랫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생활문화 관련 유용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피아노 서울	•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예술 거점 지역들에 피아노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여 자발적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사업
	서울청년문화패스	•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등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 20만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
	예술섬노들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장애예술인 지원	장애예술창작지원	• 창작지원금: 사례비, 홍보비, 제작비, 대관료, 재료비, 임차료 등의 발표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될 예산 • 창작활동비: 창작자의 창작과정 전반의 활동을 인정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선정자(단체)별 정액 300만 원 지원
	예술창작활동지원	• 창작지원금: 사례비, 홍보비, 제작비, 재료비, 발간비, 대관료,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용역비, 회계검증수수료 • 창작활동비: 창작자의 창작과정 전반의 활동을 인정하여 지원하는 금액 • 발간지원금: 문학장르의 창작활동에 대한 시상금
	청년/원로예술지원	• 청년예술인: 창작지원금, 작품개발, 교육·네트워킹, 발표 공간 등 지원 • 원로예술인: 창작지원금
	예술공간 레지던스	• 시각예술, 공예·디자인, 문학, 무용, 장애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대상 창작공간 제공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운영	• 예술인 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생활기반지원, 역량강화사업 • 공연물품 공유플랫폼: re-stage seoul, 공연물품의 대여·위탁·거래

출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 **재원마련 방안**

구분	내용	세부 내용
재단사업수익	영업수익	사용료: 공간사용료
		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익, 티켓·간행물·MD상품 판매 수익 등
		출연료: 출연금 수익
		후원금(지정/비지정 후원금): 기업후원금
보조금	국비, 광역 자치단체 및 기타 보조금	
수탁사업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의 보조금	

**(4) 경기도**

-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한 조례 (2020년 12월 31일 개정, 2024년 일부 개정)**
-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복지연구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 제언’(제9권1호)에서 경기도 조례에 대한 분석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계획이 없음을 제언**
- **〈표 12〉와 같이 경기도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 방안 6가지 제언**
- **경기문화재단을 통한 창작지원, 복지, 교육, 공공예술 지원사업 수행**

〈표 13〉 경기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연번	방안	세부 내용
1	경기도 장애예술인 현황 파악을 통한 기초자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 정의와 범주에 따른 실태조사</li> <li>•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연계 기초연구/실태조사</li> </ul>
2	경기도 포용적 예술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비장애인 간 교류·협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문화예술교육 지원</li> <li>• 협력사업 기획·운영</li> </ul>
3	경기도 장애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한 전문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예술교육 기회 확대</li> <li>• 경기도내 장애인 사회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고</li> <li>• 매개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li> </ul>
4	경기도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과 함께하는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조성</li> <li>•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li> </ul>
5	경기도 장애예술인 사회진입 및 지속가능 예술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의 사회진입 및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li> <li>• 장애예술인의 일반 지원사업 참여율 제고</li> </ul>
6	경기도 장애예술인 자립 기반 확대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장애예술인 작품 판매 및 고용을 위한 전용 플랫폼 구축·운영</li> <li>• 도내 예술단체, 기업 등 인프라를 활용한 장애예술인 고용 확대 지원</li> <li>• 장애예술인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li> <li>• 문화콘텐츠 분야 장애인 창작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지원</li> </ul>

출처: 경기연구원(2021). 경기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표 14〉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향유 및 장애예술인 지원

구분	사업명	세부 내용
문화예술 향유	통합문화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문화누리카드 사업</li> <li>문화누리카드 전용 프로그램 기획</li> </ul>
	경기문화나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환경적 여건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지원</li> </ul>
	아트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민 대상 미술장터, 팝업갤러리 등의 전시판매 사업 개최</li> </ul>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교육으로 함께 고민하고, 상상하며 성장하는 '사람과 지역, 예술과 생활을 잇는' 플랫폼</li> </ul>
	민간기업 협력 장애예술 프로젝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예술인과 민간기업의 협력</li> <li>민간기업의 기술 지원 또는 자원 후원, 장애인예술인의 예술적 역량을 결합하여 예술적 성장과 확장 도모 / 예술인(단체) 당 최대 1,000만원 지원</li> </ul>
장애예술인 지원	기초예술 창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li> </ul>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기초예술분야의 출간·전시·공연 등 각종 발표행사, 다원예술 프로젝트, 지역특화 예술 프로그램 등 모든 예술활동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li> </ul>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주 단체에게 안정적인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우수 작품 제작을 촉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우수한 공연 서비스 제공</li> <li>경기 예술인의 해외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의 해외 진출</li> <li>글로벌 문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li> </ul>
	예술인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li> <li>창작공간 임차료 지원</li> <li>자치적 예술 활동과 창작 모색을 위한 예술협동조합 지원</li> </ul>
	예술인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들의 자립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인 네트워크 조성</li> </ul>
	경기창작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최대의 예술레지던시</li> <li>창작공간, 전시·교육·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예술 활동 지원</li> <li>입주작가와 지역 주민의 협력하는 프로젝트 수행</li> </ul>
	경기예술인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예술인 상담 사업 운영</li> <li>불공정행위 상담, 예술활동증명 지원, 심리상담, 예술인고용보험 상담 등</li> </ul>

출처: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재원마련 방안**

구분	내용	세부 내용
재단사업수익	영업수익	사용료: 공간사용료
		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익, 티켓·간행물·MD상품 판매 수익 등
		출연료: 출연금 수익
		후원금(지정/비지정 후원금): 기업후원금
보조금	국비, 광역 자치단체 및 기타 보조금	
수탁사업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의 보조금	

(5) 광주광역시

- 2021년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를 제정(2023년 일부 개정, 2023년 시행)
- 2022년 ‘지역장애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창작공간, 페스티벌 등 운영
- 2022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예술인 대상으로 파악한 현황·욕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과 예술계 내부와 현장 예술인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및 실행
- 이후 광주광역시는 2023 장애예술인 지원 중장기(24~33/10년) 발전계획 수립

■ 비전

‘우리’의 예술로 모두의 예술을 완성하는 광주

■ 미션

장애예술의 도전과 상상력이 실현되는 광주 장애예술 생태계 구축

■ 철학

장애예술인의 예술 참여 보장과 장벽 없는 광주 예술

■ 가치

이해 - 지속 - 존중 - 기회 - 신뢰

■ 5대 추진전략

- ① 장벽 없는 예술창작환경 조성
- ② 미래를 위한 예술교육 활성화
- ③ 지속적 예술창작환경 조성
- ④ 장애예술 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 ⑤ 장애예술 지원 활성화 기반 구축



【그림 IV-1】 장애예술인 지원 중장기발전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림 5】 장애예술인 지원 중장기발전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출처: 광주문화재단(2023). 장애예술인 지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보고서

## ● 광주문화재단을 통한 창작지원, 복지, 교육, 공공예술 지원사업 수행

〈표 15〉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향유 및 장애예술인 지원

구분	사업명	세부 내용
문화예술 향유	광주프린지페스티벌	• 연극, 무용, 음악,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과 국내·외 유명 스트리트 아티스트 초청 • 지역 거리예술 단체 육성을 위한 〈프린지 아카데미〉 운영
	통합문화체육관광광이용권사업	•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청춘문화누리터	• 청년 예술가와 기획자로 구성된 '청년문화기획단'이 직접 기획한 문화행사
	전통문화	• 토요상설공연, 무등울림, 무등풍류단 • 전통문화예술강좌, 전통문화예술체험 '풍류노리' •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광주형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간운영	• 레지던스 운영 • 거점공간 운영
	창작지원	• 장애예술단체 지원
	예술교육	• 음악교육: 장애인 오케스트라 • 장애예술강사: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예술날개 페스티벌	• 전시회, 공연, 발표회(문학)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 초연창작공연, 레퍼토리공연, 선택프로그램 지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 제작지원사업 •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사업 • 문화예술 교류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예술인 지원사업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 지원	• 시민이 직접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의 공연, 전시, 제작, 발간 등 프로그램 지원
	청년문화일자리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지원사업: 지역청년 대상 지역문화예술분야 직접일자리 제공 • 지역혁신형 청년문화일자리지원사업: 지역특화분야 문화예술 일자리 발굴 및 제공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 여건 조성 및 마련
	예술인복지지원	• 광주예술인복지센터 운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 대행 및 사업 관련 상담 • 예술상담실: 예술활동 및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광주예술인아카데미: 예술인 창작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확장으로 예술 생태계기반 강화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광주예술로	• 예술인과 사회(기업, 기관, 마을)와의 매칭 후 협업프로젝트 실행
	광주다움문화메세나운동	• 기업의 사회공헌 및 시민과 예술가들의 동반 성장을 위한 문화 메세나 활동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및 다양한 예술직무영역 개발

출처: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 **재원마련 방안**

구분	내용	세부 내용
재단사업수익	영업수익	사용료: 공간사용료
		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익, 티켓·간행물·MD상품 판매 수익 등
		출연료: 출연금 수익
		후원금(지정/비지정 후원금): 기업후원금
보조금	국비, 광역 자치단체 및 기타 보조금	
수탁사업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의 보조금	

(6)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2017년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2021년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장애예술 관련 지원 사업 시작
- 조례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1항에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
- 장애예술인 육성 프로그램, 장애예술인 창작 공간 온그루 운영, 기회전시 개최, 지역교류 프로젝트, 부산 청년아트페어, NFT 비엔날레 추진, 창작활동 보조금 지원 등 장애예술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 2022년 부산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실시하여 부산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에 근거해 새로운 정책 비전 제시
- 2019년부터 부산문화재단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에는 장애예술인 창작공간의 확대, 장애예술 페스티벌 및 배리어프리 문화예술콘텐츠 등 운영
- 202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장애예술인에게 기업 연계를 통해 안정된 경제 여건 속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

〈표 16〉 부산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정책 제안

<b>비전</b>	장애예술로 열리는 포용도시 부산의 미래				
<b>목표</b>	장애예술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부산형 지원 체계 기반 마련				
<b>추진방향</b>	장애유형을 고려한 다각도의 정책 개발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기반 구축 / 과정 중심의 지원 기초 수립 / 정책당사자 장애예술의 주체적 참여 보장				
<b>영역</b>	장애예술인 창작생태계 조성	장애예술인 및 관련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장애예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정책기반 조성	
<b>세부 실천 과제</b>	사람	• 장애예술인 발굴 지원	장애예술교육 및 전문 강사 및 매개자 양성	장애예술인 참여 부산형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장소	• 장애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장애예술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 장애인 관련시설 예술교육 컨설팅	• 공공문화기관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콘텐츠	• 장애예술 창작지원 확대 및 배리어프리 강화 • 부산 장애예술 페스티벌 운영		장애예술기반 창업 프로그램 운영	• 장애예술 포럼 운영 • 장애예술 기술 융합 프로젝트 개발
	연결	• 장애예술 지원 플랫폼 및 아카이브 운영	장애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장애예술 아트마켓 운영	• 부산 장애예술 네트워크 구축
	제도	• 장애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복지영역 접근성 제고	예술교육환경 배리어프리 강화		• 부산 장애예술인 활동지원위원회 운영 •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예술환경 조사 실시

출처: 부산문화재단(2022) 부산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표 17〉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향유 및 장애예술인 지원

구분	사업명	세부 내용
문화예술 향유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 가치확산 캠페인</li> <li>• 생활문화 커뮤니티 문화 지원 &lt;사우나&gt; 프로그램 운영</li> <li>• 생활문화 네트워크 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li> <li>• 생활문화 페어 개최</li> </ul>
	통합문화이용권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li> </ul>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지원</li> <li>• 생활문화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생활문화 네트워크 주간 운영</li> <li>• 부산생활문화센터 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운영</li> <li>• 시설관리 및 공간대관, 한성라운지 전시 개최 등</li> </ul>
	문화다양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협의체 운영</li> <li>• 부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li> <li>•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개최</li> <li>• 아시아 문화다양성 국제포럼 개최</li> <li>•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 및 운영</li> </ul>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지던스 운영</li> <li>• 거점공간 운영</li> </ul>
	장애예술 온라인 가상공간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단체 지원</li> </ul>
	장애예술 커뮤니티 및 워크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교육: 장애인 오케스트라</li> <li>• 장애예술강사: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li> </ul>
예술인 지원사업	씨어터링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업</li> <li>• 공연장과 예술단체 협약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li> <li>• 비평 및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환류 및 역량 강화</li> <li>• 국내외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공연예술시장 진출 지원</li> </ul>
	메세나활성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형: [메세나 프로젝트] 예술단체와 기업체 결연을 바탕으로 한 예술 프로젝트 지원 / [시민 크라우드 펀딩] 시민들의 소액 참여형 기부를 통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li> <li>• 기획형 &lt;예술같이&gt;: 기업의 ESG경영 실천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기획사업</li> </ul>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거리예술축제 개최</li> </ul>
	문화예술분야 연구 창작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창작활동비, 문화예술활동 지원</li> </ul>
	문화포럼 개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포럼 개최에 대한 경비 지원으로 문예창작 분위기 조성</li> </ul>
	청년문화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활동지원, 작품제작 지원, 아트페어 'UNDER 39'</li> <li>•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 '청년예술가 3인전' 운영</li> <li>• 청년문화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li> <li>•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부산 지역 청년인디문화 교류의 거점 공간 역할</li> </ul>
예술인 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파견지원: 기업·기관 발굴 및 예술인 매칭 통한 협업활동 지원</li> <li>• 빈집활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li> <li>•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li> <li>• 예술인 컨설팅 매칭 &lt;아이컨택&gt;</li> <li>•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li> </ul>	

출처: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재원마련 방안**

구분	내용	세부 내용
재단사업수익	영업수익	사용료: 공간사용료
		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익, 티켓·간행물·MD상품 판매 수익 등
		출연료: 출연금 수익
		후원금(지정/비지정 후원금): 기업후원금
보조금	국비, 광역 자치단체 및 기타 보조금	
수탁사업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의 보조금	

#### 4) 국내 동향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장애예술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던 연구는 주로 장애인의 예술창작활동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제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예술창작 활동에 접근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손상으로 인한 제한적인 활동, 예술인으로서의 자신감 부족과 같은 원인 제시
- 사회제도의 요인으로는 공연횟수, 출간, 전시기회 등이 적음,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창작지원금제도 등 경제적 지원제도의 부재,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지원제도의 부재 등 문제 제기
- 특정 양식으로서 장애예술을 규정하는 연구, 장애예술이 장애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성찰적 시선을 담은 예술로서의 장르적 특징을 갖는다고 제시하며, 단순히 장애인의 활동을 강조하는 장애인예술은 장애예술과는 다르다고 주장

〈표 18〉 국내 장애예술 활동 동향

구분	내용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조례로 전문개정</li> <li>• 매년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를 통해 시행계획 수립</li> <li>•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및 공간지원 등 예술생태계 구성</li> </ul>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두 대상 지원</li> <li>• 경기연구원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수립</li> <li>• 실태조사 및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연계 사업 예정</li> </ul>
광주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두 대상 지원</li> <li>• 2022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실시</li> <li>• 2023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중장기(2024~2033년/10년) 기본계획 수립</li> </ul>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두 대상 지원</li> <li>• 2022년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실시 및 부산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정책 제언</li> </ul>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두 대상 지원</li> <li>• 2022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실시</li> <li>• 충남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임차료 지원, 예술교육지원</li> <li>• 전국 17개 광역시·도 재단 중 유일하게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예정</li> <li>• 장애예술인 성장, 예비예술가 양성과정 로드맵 발간 사업 착수</li> <li>•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중장기발전방안(2025-2029) 연구 예정</li> </ul>

- 독일, 영국, 일본 등 5개국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다양한 지원 체계가 있음.
  - 충남도 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2025-2029)’ 마련을 위해 국외(독일,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의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5개국의 사례를 통해 충남의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각 국의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지원정책에 대한 비교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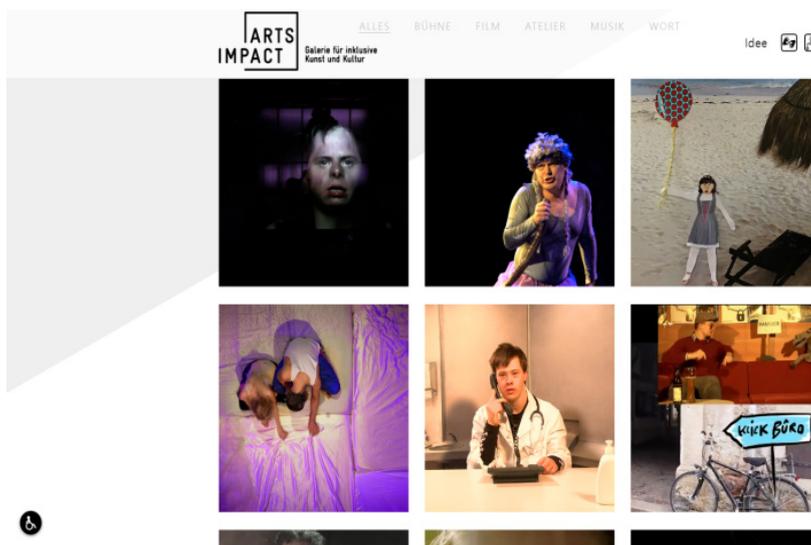
## 1. 독일

- UN CRPD에 근거하여 ‘다양성(Diversität)’이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각 주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방안과 문화와 통합 네트워크, 문화영역 통합 서비스 기관, 예술보조인 양성 등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김용진, 2022).
-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다양성’에는 ‘포함(inklusion)’과 ‘참여’라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음.
  - ‘포함’이란 장애예술과 비장애예술 또는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문화예술 시스템 내에서 장애예술인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 ‘참여’는 문화와 예술영역 안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주체적인 존재로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즉, 장애인이 문화와 예술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의미함.
- 독일의 대표적인 장애예술단체에는 EUCREA, BehindART, Insider Art, Arts Impact가 있음.
- 오이크레아(EUCREA)는 독일의 포용적 미술관 사례 및 창의적 장애인을 위한 ARTplus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전문성과 교육 활동을 독일의 6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음.
  - ARTplus는 2015년 문화관련 기관과 장애예술인이 협력할 수 있도록 ARTplus 사업을 시범 운영함. 예술과 문화산업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에 있어 다양성을 확장시키고 장애인을 위한 예술,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

하여 장애인이 작업장 외에서도 직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확장시키고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구체적으로는 연방문화미디어청에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아서 문화미디어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음악, 연극, 시각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EUCREA는 관련 공공기관, 장애인 창업장, 예술단체, 문화기관 및 예술교육 기관 등이 프로그램을 홍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개발할 수 있었음.
- 또한, 독일 공연예술극장(Deutsches Schauspielhaus), 젊은 공연예술극장(Junge Schauspielhaus), 예술가 공동체 동네(Künstlergemeinschaft Gängeviertel), 힙합 아카데미(HipHop Academy), 함부르크 시립음악원(Hamburger Konservatorium), 함부르크 국립음악연극대학(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및 오티스베르크 사회예술대학(Hochschule für Kunst im Sozialen in Ottersberg) 8개의 문화 및 교육기관이 참여하여 장애인예술인과 지역문화현장 간의 협업을 이루어 냄.

- **BehindART는 1998년에 설립된 장애예술인 조직으로, 21여 개 단체의 다양한 지적·신체적·심리적 장애와 연령으로 구성된 180명 이상의 장애예술인들이 소속되어 있음. 또한 장애인의 예술적이고 창조적 가능성을 촉진하고, 예술작품을 사회에 통용하게 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동등한 권리 요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Insider Art 및 Arts Impact는 통합적 문화예술을 위한 온라인 갤러리임. 통합 문화예술현장의 모든 예술가들이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연극과 영화, 미술, 음악으로 구분하여 독일 전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비디오 클립으로 소개하고 있음. 특히 Insider Art는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관심 있는 구매자(소비자)에게 소개·판매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6] Art Impact

출처: <https://www.artsimpact.de/>, 2024년 6월 14일 인출.

● 독일의 장애예술인의 지원 정책으로는 ‘문화와 통합 네트워크’, ‘문화영역의 통합 서비스 기관’, ‘창작소’, ‘다양성 펀드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 ‘장애예술인 역량 강화 교육’, ‘예술보조인 양성’ 등이 있음.

- 문화와 통합 네트워크(Netzwerk kultur und Inklusion)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참여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논의 및 실재를 위해 교수, 작가, 연출가 등 다양한 전문가와 장애당사자들이 모여 문화예술영역에서 CRPD 내용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 등을 다루고 있음.
- 문화영역의 통합 서비스 기관은 CRPD의 제30조 이행을 위한 문화현장 및 정책의 주체자들을 지원하고자 2017년에 설립된 작센주의 통합지향 문화활동 서비스 기관임. 주로 문화서비스와 배리어프리, 장애예술인의 참여와 옹호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림 7] Servicestelle Inklusion im Kulturbereich

출처: <https://www.inklusion-kultur.de/angebote/>, 2024년 6월 14일 인출.

## 2. 영국

● 영국은 장애예술인을 직접 지원하는 별도의 법은 부재하지만, 특정 영역에 종사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문화예술영역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접근의 차원으로 보면, 평등법(Equality Act, 2010)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이한나, 2022).

● **영국 잉글랜드의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ACE)는 문화예술정책을 관장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영역에서의 평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음.**

- ACE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단위로 ‘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 종합계획을 이행하였으며, 2020년 장애예술인과 장애인 예술지원을 포함하는 평등과 다양성 관련 내용이 담긴 ‘Let’s create’이라는 새로운 10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음.
- 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2010-2020)에서는 탁월성, 모두를 위한, 탄력성과 지속가능성, 다양성과 기술,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다섯 가지 목표를 추진하였음. 특히 ‘다양성과 기술’의 목표는 다양한 소수자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공정한 진입 경로와 다양한 리더십, 거버넌스 창출을 목표로 ACE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나 공모사업 등 ACE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서 종사자의 다양성 촉진뿐만 아니라 모니터링까지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이한나, 2022).
- Let’s create(2020-2030)은 일반 대중의 문화예술 참여, 향유, 문화예술 종사자의 전문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 10년 종합계획임.

● **영국의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으로는 재정지원, 접근성 지원이 있음.**

- 재정지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문화예술단체, 미술관, 도서관 등의 ‘National Portfolio’가 있으며, 예산지원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재정지원은 아래의 <표 18>과 같음.
- 각 밴드에 따라 조직의 활동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ACE의 성과 목표에는 차이가 있음.

<표 19> ACE의 National Portfolio 조직 구분

구분	연간 지원액
band 1	• £40,000 이상 £250,000 미만 (한화 4억 290만원 미만)
band 2	• £250,000 이상 £1,000,000 미만 (한화 약 16억 1,160만)
band 3	• £1,000,000 이상
지원 조직	• 규정 없음

자료: Art Council England(2017). Relationship Freamwork, 이한나(2022). 영국의 장애예술인 10년 계획

- 또한, ACE는 National Portfolio 이외 ‘복권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으로 창의적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조직 또는 미술관, 도서관 등에 £1,000에서 £100,000까지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 단, 복권기금은 일회적 지원으로서 문화예술의 참여 기회가 적은 지역에 기회를 제공하며, 대중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형성하도록 지원하여, 공공 자금으로 지원받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참여를 확장함.
- 접근성 지원을 위해 2019년 ACE는 ‘Building Access’라는 문화예술 조직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를 발간하였음. 문화예술과 관련된 물리적 공간 내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고려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관객 등 향유자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문화예술 종사자를 위한 접근성 지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음.
- 이외에도 음성해설, 캡션 등의 지원, 직원 공간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에서의 접근성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고, 다양성을 위한 편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음.

- 영국의 장애예술 현장에서는 최근 ‘장애예술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음. Shape Arts는 Unlimited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이자 ‘국립장애예술컬렉션과 아카이브(NDACA)’를 운영하고 있음. £1,000,000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서 다양한 이미지와 인터뷰 영상,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 영국의 장애예술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음. 또한,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은 ‘Disability Arts International’을 통해 정기적으로 장애예술과 관련된 국내외 뉴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3. 일본

- 일본은 2018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문화예술활동추진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음악, 영화, 그림 등 문화예술을 참가, 감상,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정희경, 2022).
- 장애인문화예술활동추진법 제7조 등을 근거로 하여 문화 향유와 창작활동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 3개의 기본방침과 11개의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 ‘장애인문화예술활동기본계획’이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하고 창조하기 위하여 물리적·심리적 장벽 제거
- 둘째,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구축
- 셋째, 문화예술활동 추진향상 및 공헌, 새로운 가치제안과 공동사회를 실현

〈표 20〉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방침 및 추진 방향

기본방침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폭넓기 위한 촉진
	2. 장애인 중 예술성 높은 작품 지원 강화
	3. 각 지역에 장애인의 작품발표 및 교류 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실현
추진 방향	• 감상 기회의 확대
	• 창조 기회의 확대
	• 작품 발표 기회 확보
	• 예술성이 높은 작품평가
	• 권리보호 추진
	• 예술성 높은 작품판매지원
	• 문화예술활동 교류촉진
	• 상담체계 정비
	• 인재 육성
	• 정보수집
• 관계자의 연대와 협력	

출처: 한국장애학회 월례세미나 자료집(2022). 일본의 장애예술인 추진계획: 문화향유와 창작활동

- 또한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장애인기초연금을 통한 문화예술 종사자(작가)의 생활안전수단을 확보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작가의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전시공간 대여와 작품의 판로확보 등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매년 전국문화제에 장애인문화예술제를 결합한 축제도 함께 진행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4. 호주

- 호주 정부를 위한 예술 기금 및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는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가 있음.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종사를 함께 촉진하고 있으며, ‘경로 만들기(Creating Pathways: Insights on support for artists with disability)’ 보고서에 이러한 추진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음.
- 주요 정책은 크게 리더십 고양(Sync Leadership program)과 보조금 지원(Arts and Disability Initiative)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리더십 고양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애인 리더의 수를 증가시키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리더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임.
  - 보조금 지원은 2014년부터 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음. 프로젝트 수행과 기술향상, 문화 예술 실천과 네트워크 목적으로 지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3만(약 3천만원)달러를 지원함.
- 2018년에는 호주예술위원회는 ‘예술·장애인 멘토링 계획안’과 ‘국립예술 및 장애인 시상’을 통해 장애예술가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75만 달러를 투자함.
-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Arts Access Victoria(1974)’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애예술단체임. 또한 국가 중심급(Capital-level)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하고 있음.
  - 아츠액트의 기금인 ACT Arts Fund는 직접적으로 예술을 후원하는 기금 중 하나임.
  - Accessible Arts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 전반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음. 또한, 장애예술인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단체에게 전문적인 지원과 각자의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의 분야를 개발하고, 잠재적인 예술적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함.

-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있음에도 장애문화예술 분야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비장애인 중에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및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되어 있음. 이에 정부는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예술 향유자 계몽(audience development)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예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와 새로운 문화예술 향유자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또한 정부는 대리인에 의해 통제되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장장애인의 문화예술 작품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요구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인 프레임워크(ethical framework)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새로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National Arts and Disability Strategy)’을 수립함.

## 5. 프랑스

- 프랑스는 2005년 2월 「장애인의 기회와 권리 균등 보장, 참여와 시민권을 위한 법률(loi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제정으로, 장애의 정의와 문화 접근성 강화, 관련 정보 전달체계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또한, 2006년 UN CRPD 체결을 통해 국가가 장애인의 창의·예술·지적 능력 발전을 위한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명시함.
  - 문화적 권리에는 개개인의 자유와 존엄, 정체성을 자각하는 수단인 동시에 사회 다양성과 사회 내 다양한 욕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임을 명시함.
- 2017년 7월, 장애인 관련 법령 제정 10주년으로 상원 문화교육통신위원회가 2016-2017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인 ‘문화와 장애: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요건 보고서(Culture et handicap : une exigence démocratique)’를 발표함.
  -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현황 및 정책 조사, 장애인의 문화예술 분야의 참여 현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고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예술 분야에서 온전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자 20개의 항목의 방안을 제안하였음.
- 관련 법령 중에는 2005년 2월에 제정된 「장애인의 기회와 권리 균등 보장, 참여와 시민권을 위한 법률」임.
-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교육권, 직업적 보장, 문화접근성 강화, 관련 정보전달체계 개편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또한, 2006년 UN CRPD 체결을 통해 장애인의 예술·창의·지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에 있어 의무적인 것으로 명시함.
- 이후 2015년 「르노트르법」, 2016년에는 「창작의 자유법」 등의 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문화접근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그림 9] 상원 문화교육통신위원회의 ‘문화와 장애: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요건 보고서’

출처: <http://www.senat.fr/rap/r16-648/r16-648.html>, 2024년 6월 15일 인출

- 2017년 프랑스 상원 ‘문화교육통신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는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향상하고 관련 법의 취약점과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7개의 주제를 기반으로 총 20개 제안을 작성함.

가. 사회 내 장애인의 가시성 증가 및 사회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장려

1.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관심 및 배려 증대
2.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가시성 증대 및 긍정적 이미지 확대

나. 공공정책 수립 시 장애인 관련 문제 고려

3. 정부조직 재구성과 각 부처간 협조를 통해 장애인 관련 문제를 다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법령 제정 시, 구상단계에서부터 장애인 관련 문제를 고려하여 기술적 실행안 마련에 어려움이 없게 할 것.
5. 보다 많은 장애인과 관련 단체가 공공정책을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할 것.
6. 장애인의 의견을 한층 더 수렴하기 위해 관련 협회나 연맹의 설립을 장려할 것.

다. 장애인의 예술창작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7.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공공지원을 보장할 것.
8.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공정책의 가독성과 일관성을 강화할 것.
9. 공공문화기관의 예산 배정과 성과목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보다 많은 장애인의 수용을 명시할 것.
10.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할 것.

라. 장애인 수용 정책 수립

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우선시 할 것.
12. 의료기관 입원자의 문화 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실행안을 마련할 것.

마. 장애인 관련 정책 정보접근성과 가독성 증대

13.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 접근경로를 구현할 것.
14. '문화와 장애' 주제로 한 국가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정책 관련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홍보할 것.
15. 문화기관 및 공공조직의 인터넷 사이트 접근성 향상할 것.

바. 관련 교육의 중요성

16.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문화접근성의 중요성을 교육할 것.
17. 문화, 건축, 디자인 등 관련 종사자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고취 및 교육기관에 감독관을 파견할 것.
18. 초·중등교육 및 언론,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와 관련된 교육을 확대할 것.

사. 장애인 문화접근성 문제의 확장

19. 보다 유리한 요금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기관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
20. 직업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

## 6. 국외 동향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독일과 영국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에 관한 구분 없이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독일과 영국에서는 펀딩사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작품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이외의 국가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에 있어 통합, 접근성에 관한 중점으로 주요 사업들을 실시하거나 관련 문화 및 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음.

〈표 21〉 국외 장애예술 활동 동향

구분	내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CRPD에 근거하여 ‘다양성(Diversität)’이라는 핵심가치 공유를 통해 각 주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방안과 문화와 통합 네트워크, 문화영역 통합 서비스 기관, 예술보조인 양성 등의 정책이 있음.</li> <li>• 독일의 대표 장애예술단체인 EUCREA는 독일의 포용적 미술관의 사례 및 창의적 장애인을 위한 ARTplus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행, BehindART는 장애인의 예술적이고 창조적 가능성 창조 및 예술작품을 사회에 통용하는 등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동등한 권리요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li> <li>• 독일의 장애예술인의 지원 정책으로는 ‘문화와 통합 네트워크’, ‘문화영역의 통합 서비스 기관’, ‘창작소’, ‘다양성 펀드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 ‘장애예술인 역량강화교육’, ‘예술보조인 양성’ 등이 있음.</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잉글랜드의 예술위원회(ACE)에서 다섯 가지 목표(탁월성, 모두를 위한, 탄력성과 지속가능성, 다양성과 기술, 아동과 청소년)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정책을 관장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음.</li> <li>• 또한, Let’s create(2020-2030) 종합계획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재정과 접근성에 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접근성에 관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물리적 공간 내에서 장애인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관객 등 향유자,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를 위한 접근성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li> <li>• 이외에도 음성해설, 직원 공간, 화장실과 휴게공간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에서의 접근성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고, 성 다양성을 위한 편의 제공까지 강조하고 있음.</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음악, 영화, 그림 등 문화예술을 참가, 감상,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호주예술위원회는 ‘예술-장애인 멘토링 계획안’과 ‘국립예술 및 장애인 시상’을 통해 장애예술가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75만 달러를 투자함.</li> <li>• 호주 멜버른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예술단체인 ‘Arts Access Victoria(1974)’에서는 주의 예술정책과 문화예술사업을 담당하며,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기회와 권리 균등 보장, 참여와 시민권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의 정의와 문화 접근성 강화, 관련 정보 전달체계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li> <li>• UN CRPD 체결을 통해 국가가 장애인의 창의·예술·지적 능력 발전을 위한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명시함.</li> <li>• 상원 문화교육통신위원회(2017)의 ‘문화와 장애: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조건((Culture et handicap : une exigence démocratique)’의 보고서 중 장애인 문화접근성에 관한 유관</li> <li>• 기관별 성과와 한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문화기관과 문화부 간의 협업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음. 문화예술기구(예술가협회 등)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선택의 폭 확정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고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음.</li> </ul>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2025~2029)  
발전방안 연구

PART 3.

---

# 제3장

##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

---

01.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실태 분석
02.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실태 분석



## 1. 조사의 개요

### 1) 조사의 필요성

#### ● 장애예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 및 욕구 파악 필요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현재 상황과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가 필요함.
- 장애예술인의 실태 및 욕구는 장애유형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 영역별, 예술활동 장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제작함.
- 충청남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계획은 예술활동 현황과 여건, 공간과 네트워크, 예술교육, 고용 및 소득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 충청남도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실태 및 요구 조사의 목적

- 충청남도의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실태 및 요구 조사는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2025-2029)」을 위한 충청남도 거주 장애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한 실증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함.

### 2) 조사의 진행

#### ● 충청남도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함.

- 조사기간: 2024. 8. 24. ~ 2024. 11. 11.
- 조사대상: 충청남도 내 거주 장애예술인
- 조사방법: 충청남도 내 장애예술인 관련 협회와 단체를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지 150부 배포(조사 참여자에게 답례품 제공)
- 최종분석: 총 109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음.
- 조사항목: 일반적 사항, 예술활동의 현황과 여건, 공간과 네트워크, 전문예술 교육, 경제활동,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지원(서비스)

## 2. 조사의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 성별

- 충남의 장애예술인 성별은 여성 39명(35.8%), 남성 70명(64.2%)으로 남성 장애예술인이 여성보다 31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72명(66.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뇌병변장애인과 호흡기장애인 각각 10명(9.2%)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 7명(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 성별

(단위: 명, %)

장애유형	성별		계
	여성	남성	
지체장애	17(43.6)	55(78.6)	72(66.1)
뇌병변장애	6(15.4)	4(5.7)	10(9.2)
시각장애	0(0.0)	1(1.4)	1(0.9)
청각장애	5(12.8)	2(2.9)	7(6.4)
언어장애	2(5.1)	1(1.4)	3(2.8)
호흡기장애	1(2.6)	1(1.4)	2(1.8)
지적장애	6(15.4)	4(5.7)	10(9.2)
자폐성장애	1(2.6)	2(2.9)	3(2.8)
정신장애	1(2.6)	0(0.0)	1(0.9)
계	39(100.0)	70(100.0)	109(100.0)

#### ● 연령대

- 충남의 장애예술인의 연령 분포는 30대 69명(65%), 40대 21명(20%), 50대 8명(8%)와 10대~20대는 8명(8%)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뇌병변장애인과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경우 30대가 70.0%와 46.2%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장애유형별 연령 분포에서는 별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23〉 연령대

(단위: 명, %)

전체			장애유형별				
연령대	빈도	비율	지체· 뇌병변장애	시각·청각· 언어장애	호흡기장애	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10~20대	8	7.3	3(3.7)	3(27.3)	0(0.0)	2(15.4)	0(0.0)
30대	69	63.3	58(70.7)	4(36.4)	1(50.0)	6(46.2)	0(0.0)
40대	21	19.3	16(19.5)	2(18.2)	1(50.0)	1(7.7)	1(100.0)
50대	8	7.3	3(3.7)	2(18.2)	0(0.0)	3(23.1)	0(0.0)
60대 이상	3	2.8	2(2.4)	0(0.0)	0(0.0)	1(7.7)	0(0.0)
계	109	100.0	82(100.0)	11(100.0)	2(100.0)	13(100.0)	1(100.0)

● 현 거주지역

- 현재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서산시 50명(46%), 아산시 15명(14%), 천안시 11명(10%), 보령시 9명(8%), 당진시 7명(6%), 공주시와 서천군은 각 6명(6%), 홍성군은 2명(2%), 논산시와 부여군 및 예산군은 각 1명(1%)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산시와 아산시에는 지체·뇌병변장애예술인이 각각 48명(58.5%)과 11명(13.4%)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음

〈표 24〉 현 거주지역

(단위: 명, %)

전체			장애유형별				
거주지역	빈도	비율	지체· 뇌병변장애	시각·청각· 언어장애	호흡기장애	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천안시	11	10.1	7(8.5)	2(18.2)	1(50.0)	1(7.7)	0(0.0)
공주시	6	5.5	1(1.2)	2(18.2)	1(50.0)	2(15.4)	0(0.0)
보령시	9	8.3	8(9.8)	0(0.0)	0(0.0)	1(7.7)	0(0.0)
아산시	15	13.8	11(13.4)	4(36.4)	0(0.0)	0(0.0)	0(0.0)
서산시	50	45.9	48(58.5)	0(0.0)	0(0.0)	2(15.4)	0(0.0)
논산시	1	0.9	0(0.0)	0(0.0)	0(0.0)	0(0.0)	1(100.0)
당진시	7	6.4	4(4.9)	2(18.2)	0(0.0)	1(7.7)	0(0.0)
부여군	1	0.9	0(0.0)	0(0.0)	0(0.0)	1(7.7)	0(0.0)
서천군	6	5.5	1(1.2)	1(9.1)	0(0.0)	4(30.8)	0(0.0)
홍성군	2	1.8	2(2.4)	0(0.0)	0(0.0)	0(0.0)	0(0.0)
예산군	1	0.9	0(0.0)	0(0.0)	0(0.0)	1(7.7)	0(0.0)
계	109	100.0	82(100.0)	11(100.0)	2(100.0)	13(100.0)	1(100.0)

## ● 최종 학력 및 전공/학과

- 장애예술인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졸업 66.1%, 대학교 중퇴/졸업 17.4%, 전문대학(교) 중퇴/졸업 11.9%, 대학원 석·박사 중퇴/수료/졸업 2.8% 순인 것으로 나타남.

〈표 25〉 최종 학력 및 전공/학과

(단위: 명, %)

최종학력	빈도	비율
무학	2	1.8
고등학교 중퇴/졸업	72	66.1
전문대학(교) 중퇴/졸업	13	11.9
대학교 중퇴/졸업	19	17.4
대학원 석·박사 중퇴/수료/졸업	3	2.8
계	109	100.0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졸업’ 이상의 학력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전공별 최종 학력을 살펴보면, 심리치료학을 전공한 응답자가 41.1%, 전공이 없는 경우가 22.4%, 미술 전공 9.3%, 음악 전공 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1〉 최종 학력 및 전공/학과

(단위: 명, %)

전공/학과	빈도	비율
전공 없음	24	22.4
경영학	2	1.9
공연 및 조형예술	3	2.8
교육학	3	2.8
국악	2	1.9
무용	1	0.9
문화예술	1	0.9
미술	10	9.3
반려동물	2	1.9
사회복지학	1	0.9
심리치료	44	41.1
애니메이션	1	0.9
연극	1	0.9
연기예술	1	0.9
음악	9	8.4
기타	2	1.9
계	107	100.0

주: 무응답(2) 제외함.

##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장애예술인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6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가 각 9.2%, 청각장애 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인 경우가 27.5%,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가 72.5%로 심하지 않은 장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 장애유형

(단위: 명, %)

장애유형	빈도	비율
지체장애	72	66.1
뇌병변장애	10	9.2
시각장애	1	0.9
청각장애	7	6.4
언어장애	3	2.8
호흡기장애	2	1.8
지적장애	10	9.2
자폐성장애	3	2.8
정신장애	1	0.9
계	109	100.0

〈표 27〉 장애정도

(단위: 명, %)

장애정도	빈도	비율
심한 장애(중증)	30	27.5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79	72.5
계	109	100.0

##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에 등록되어 있음이 8.3%이며, 예술활동증명에 등록하지 않음이 91.7%로 나타남.
- 현재 충남의 장애예술인은 90% 이상이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 영역별로 확인한 결과, 등록된 예술인은 창작 영역 14.3%, 실연 영역에서 12.0%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표 28〉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단위: 명, %)

전체			예술영역별				
등록여부	빈도	비율	창작	실연	기획/제작/홍보	기술지원	행정
등록되어 있음	9	8.3	5(14.3)	3(12.0)	0(0.0)	0(0.0)	1(100.0)
등록되어 있지 않음	100	91.7	30(85.7)	22(88.0)	47(100.0)	1(100.0)	0(0.0)
계	109	100.0	35(100.0)	25(100.0)	47(100.0)	1(100.0)	1(100.0)

##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가입 예술인이 93.6%로 나타났으며, 반면 가입한 예술인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 영역별로 확인한 결과, 실연의 경우 16.0%, 창작 5.7%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명, %)

전체			예술활동 영역별				
가입여부	빈도	비율	창작	실연	기획/제작/홍보	기술지원	행정
가입	7	6.4	2(5.7)	4(16.0)	0(0.0)	0(0.0)	1(100.0)
미가입	102	93.6	33(94.3)	21(84.0)	47(100.0)	1(100.0)	0(0.0)
계	109	100.0	35(100.0)	25(100.0)	47(100.0)	1(100.0)	1(100.0)

## 2) 예술활동의 현황 및 여건

###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영역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의 영역으로는 기획/제작/홍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창작 32.1%, 실연 22.9%, 기술지원과 행정 0.9%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예술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지체·뇌병변장애인은 기획/제작/홍보영역의 종사가 56.1%로 가장 높고, 시각·청각·언어장애인과 호흡기장애, 지적·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창작 영역의 종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0〉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 영역

(단위: 명, %)

활동영역	전체		장애유형별				
	빈도	비율	지체· 뇌병변장애	시각·청각· 언어장애	호흡기장애	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창작	35	32.1	17(20.7)	6(54.5)	2(100.0)	9(69.2)	1(100.0)
실연	25	22.9	18(22.0)	3(27.3)	0(0.0)	4(30.8)	0(0.0)
기획/제작/홍보	47	43.1	46(56.1)	1(9.1)	0(0.0)	0(0.0)	0(0.0)
기술지원	1	0.9	1(1.2)	0(0.0)	0(0.0)	0(0.0)	0(0.0)
행정	1	0.9	0(0.0)	1(9.1)	0(0.0)	0(0.0)	0(0.0)
계	109	100.0	82(100.0)	11(100.0)	2(100.0)	13(100.0)	1(100.0)

### ● 주 예술활동 분야

- 활동하고 있는 주 예술활동 분야(장르)는 음악(클래식)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술(디자인, 공예 포함) 21.1%, 연극 9.2%, 문학(출판) 4.6%, 국악과 사진이 각각 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 주 예술활동 분야

(단위: 명, %)

전체		
활동분야	빈도	비율
문학(출판)	5	4.6
미술(디자인, 공예 포함)	23	21.1
음악(클래식)	59	54.1
국악	4	3.7
대중음악	1	0.9
무용	1	0.9
연극	10	9.2
뮤지컬	1	0.9
만화(웹툰)	1	0.9
사진	4	3.7
계	109	100.0

● **지난 3년(2021년 8월 ~ 2024년 7월)간 예술작품 발표 여부**

- 지난 3년간 예술작품을 발표한 예술인은 40.4%, 발표하지 않은 예술인은 59.6%로 나타남.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예술영역별로 작품발표 여부를 살펴보면, 실연 72.0%로 작품발표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창작 68.6%이며, 기술/제작/홍보와 기술지원은 각 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 지난 3년간 예술작품 발표 여부

(단위: 명, %)

전체			현 종사 예술영역별				
발표여부	빈도	비율	창작	실연	기획/제작/홍보	기술지원	행정
있다	44	40.4	24(68.6)	18(72.0)	1(2.1)	1(100.0)	0(0.0)
없다	65	59.6	11(31.4)	7(28.0)	46(97.9)	0(0.0)	1(100.0)
계	109	100.0	35(100.0)	25(100.0)	47(100.0)	1(100.0)	1(100.0)

### ● 지난 3년(2021년 8월 ~ 2024년 7월)간 예술작품의 발표 횟수

- 지난 3년간 예술작품을 발표한 경험이 있는 예술인의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약 8.5회인 것으로 나타남.
- 예술작품의 발표횟수별로 살펴보면, 0회 65명(59.6%), 1회~5회 29명(26.6%), 6~10회 7명(6.4%), 11회~15회 2명(1.8%), 16회 이상 6명(5.5%)으로 나타남.

〈표 33〉 지난 3년간 예술작품의 발표 횟수

(단위: 명, %)

전체		
발표횟수	빈도	비율
0회	65	59.6
1회 ~ 5회	29	26.6
6회 ~ 10회	7	6.4
11회 ~ 15회	2	1.8
16회 이상	6	5.5
계	109	100.0

### ● 문화예술교육 강사활동 경험

- 장애예술인의 3.7%는 문화예술교육 강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문화예술교육 강사활동 경험

(단위: 명, %)

활동 경험	빈도	비율
예	4	3.7
아니오	105	96.3
계	109	100.0

### ● 문화예술교육의 강사활동 경력

- 문화예술교육의 강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경력은 약 24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표 35〉 문화예술교육 강사활동 경력

(단위: 명, %, 개월)

활동 경력	빈도	비율
10개월 이하	1	25.0
15개월 이하	1	25.0
1년 이상	1	25.0
4년 이하	1	25.0
계	4	100.0
평균값(개월)	23.75	

### ● 예술활동 시, 보조인 필요 여부

- 현재 예술활동을 지원해 주는 보조인이 있는 경우는 5.5%인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94.5%가 예술활동 시 보조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호흡기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유형의 예술인 21.7%는 예술활동 시 보조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36〉 예술활동 시 보조인 필요 여부

(단위: 명, %)

필요여부	전체		장애유형별				
	빈도	비율	지체· 뇌병변장애	시각·청각· 언어장애	호흡기장애	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예	6	5.5	4(4.9)	1(9.1)	0(0.0)	1(7.7)	0(0.0)
아니오	103	94.5	78(95.1)	10(90.9)	2(100.0)	12(92.3)	1(100.0)
계	109	100.0	82(100.0)	11(100.0)	2(100.0)	13(100.0)	1(100.0)

### ● 예술활동 시, 주로 지원받는 사람

- 예술활동 시 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가족 6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와 협업 관계의 비장애예술인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각 16.7% 순으로 나타남.

〈표 37〉 주로 지원받는 사람

(단위: 명, %)

지원받는 사람	빈도	비율
가족	4	66.7
협업 관계의 장애예술인	1	16.7
기타	1	16.7
계	6	100.0

### ● 예술활동 시, 보조기구 필요 여부 및 보조기구 유형

- 예술활동 시 2.8%만이 보조기구(도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지체·뇌병변장애인의 2.4%,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의 9.1%가 예술 활동 시에 보조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호흡기장애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전혀(0.0%) 보조기구가 필요없다고 응답함.
- 예술활동 중에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예술인의 보조기구 유형을 확인한 결과, 보청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38〉 예술활동 시 보조인 필요 여부

(단위: 명, %)

필요여부	전체		장애유형별				
	빈도	비율	지체· 뇌병변장애	시각·청각· 언어장애	호흡기장애	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예	3	2.8	2(2.4)	1(9.1)	0(0.0)	0(0.0)	0(0.0)
아니오	106	97.2	80(97.6)	10(90.9)	2(100.0)	13(100.0)	1(100.0)
계	109	100.0	82(100.0)	11(100.0)	2(100.0)	13(100.0)	1(100.0)

## 3) 예술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네트워크

### ● 예술활동 전용공간의 보유 여부 및 전용공간의 형태와 소유 형태

- 장애예술인 0.9%는 현재 예술활동 전용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99.1%는 전용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용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중 전용공간 형태를 조사한 결과, 1명(0.9%)만이 자신이 소유한 전용 창작공간(창작/제작, 연구, 개인공간 등)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하고 있는 전용공간에 대한 공공지원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9〉 예술활동 전용공간 보유 여부

(단위: 명, %)

보유 여부	빈도	비율
예	1	0.9
아니오	108	99.1
계	109	100.0

### ●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의 충분 정도

- 현재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에 대해 97.2%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총남에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에 대해 90% 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40〉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의 충분 정도

(단위: 명, %)

충분 정도	빈도	비율
예	3	2.8
아니오	106	97.2
계	109	100.0

### ● 예술활동에서 가장 필요한 공간

- 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에 관해 순위별로 조사한 결과,
- ‘발표공간(공연장, 전시장, 발표장, 교육장 등)’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습공간(창작/제작을 위한 연습공간 등)’ 49.5%, ‘자료 및 정보공간(아카이브 등)’ 48.6% 순으로 나타남.

〈표 41〉 예술활동에서 가장 필요한 공간

(단위: 명, %)

필요공간	빈도	비율
창작 공간(창작/제작, 연구, 개인공간 등)	36	11.0
연습 공간(창작/제작을 위한 연습공간 등)	78	23.9
발표 공간(공연장, 전시장, 발표장, 교육장 등)	85	26.0
자료 및 정보공간(아카이브 등)	77	23.5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친목, 교류목적의 공간)	31	9.5
임차료 등의 공간 간접 지원	20	6.1
계	327	100.0

주: 중복 응답임

### ● 예술활동 관련 공공문화시설 이용 경험 및 어려웠던 점

- 예술활동 관련한 공공문화시설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은 21.1%로 나타남. 반면, 장애예술인은 78.9%는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문화시설 이용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을 확인한 결과, '대관의 경쟁률·비용·절차 등의 어려움' 5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접근성의 어려움' 26.1%, '편의시설의 부족' 21.7% 순으로 나타남.

〈표 42〉 예술활동 관련 공공문화시설 이용 경험

(단위: 명, %)

이용 경험	빈도	비율
예	23	21.1
아니오	86	78.9
계	109	100.0

〈표 43〉 공공문화시설 이용 시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명, %)

어려운 점	빈도	비율
대관의 경쟁률·비용·절차 등의 어려움	12	52.2
접근성(대중교통/주차시설 등)의 어려움	6	26.1
편의시설(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등)의 부족	5	21.7
계	23	100.0

## ●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기관 가입 여부, 소속 유형, 가입 이유

- 가입되어 있는 장애예술인 16.5%,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장애예술인 83.5%로 나타남.
- 가입한 장애예술인 중 '장애인 예술분야 협회' 소속이 6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술전문단체' 22.2%, '예총 및 민예총' 11.1%, '기타' 5.6% 순으로 나타남.
- 가입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단체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협업, 공동작업 등 활동 교류의 기회를 위해', '단체 내 지원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각 22.2%,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5.6% 순으로 나타남.

〈표 44〉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기관 가입 여부

(단위: 명, %)

가입여부	빈도	비율
예	18	16.5
아니오	91	83.5
계	109	100.0

〈표 45〉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기관 소속 유형

(단위: 명, %)

소속유형	빈도	비율
예총 및 민예총	2	11.1
예술전문단체	4	22.2
장애인 예술분야협회	11	61.1
기타	1	5.6
계	18	100.0

〈표 46〉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기관 가입 이유

(단위: 명, %)

가입 이유	빈도	비율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1	5.6
협업, 공동작업 등 활동 교류의 기회를 위해	4	22.2
단체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9	50
단체 내 지원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4	22.2
계	18	100.0

## ● 예술활동에 다른 예술가와의 협업 경험 및 장르

- 예술활동을 하면서 다른 예술가와의 협업 경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2.8%만 경험한 적이 있으며, 87.2%는 다른 예술가와의 협업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협업을 한 장애인예술인 중 38.5%는 ‘예술 장르 간 협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 비장애인예술인과의 협업’ 30.8%, ‘장애예술단체와의 협업’ 15.4%, ‘개인 장애인예술인과의 협업’ 11.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7〉 다른 예술가와의 협업 경험

(단위: 명, %)

협업 경험 유무	빈도	비율
예	14	12.8
아니오	95	87.2
계	109	100.0

〈표 48〉 협업한 장르(영역)

(단위: 명, %)

협업 영역	빈도	비율
예술 장르 간 협업	10	38.5
개인 장애인예술인과의 협업	3	11.5
개인 비장애인예술인과의 협업	8	30.8
장애예술단체와의 협업	4	15.4
기타	1	3.8
계	26	100.0

주: 중복 응답임.

## ● 장르별 협업의 만족도

- 장르별 협업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예술 장르 간 협업’이 3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 장애인예술인과의 협업’ 30.8%, ‘장애예술단체와의 협업’ 15.4%, ‘개인 장애인예술인과의 협업’ 11.5% 등의 순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장르별 협업의 만족도

(단위: 명, %)

협업 영역 만족	빈도	비율
예술 장르 간 협업	10	38.5
개인 장애인예술인과의 협업	3	11.5
개인 비장애인예술인과의 협업	8	30.8
장애인예술단체와의 협업	4	15.4
기타	1	3.8
계	26	100.0

### ● 예술 활동 시 협업을 하지 않은 이유

- 예술활동 시에 협력작업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협업에 관심이 없어서’가 4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협력 주체의 협업이 본인의 활동에 필요하지 않아서’ 14.7%, ‘비장애인예술인과의 협력이 두려워서’ 13.8%, ‘협력 주체를 찾기 어려워서’ 9.2%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남.

〈표 50〉 예술활동 시 협업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협업 하지 않는 이유	빈도	비율
협력 주체를 찾기 어려워서	10	9.2
비장애인예술인과의 협력이 두려워서	15	13.8
협력 주체의 협업이 본인의 활동에 필요하지 않아서	16	14.7
협업에 관심이 없어서	53	48.6
타 예술가와의 협업 속도가 맞지 않아서	6	5.5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8	7.3
기타	1	0.9
계	109	100.0

## 4) 전문 예술교육

### ● 전문예술가로 활동 시작 연도

- 전문 예술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연도를 조사한 결과, ‘2011년~2020년’ 8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21년~2024년’ 10.2%, ‘2001년~2010년’ 2.8%, ‘2000년 이전’은 0.9% 순으로 나타남.

〈표 51〉 전문예술가로 활동 시작 연도

(단위: 명, %)

활동 시작 연도	빈도	비율
~ 2000년	1	0.9
2001년 ~ 2010년	3	2.8
2011년 ~ 2020년	93	86.1
2021년 ~ 2024년	11	10.2
계	108	100.0

주: 무응답(1) 제외함.

### ● 처음 교육받은 예술교육기관(경로)

- 처음 교육을 받은 예술교육의 경로(기관)를 확인한 결과, ‘병원 등 재활시설을 통해’ 4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 등 공교육기관을 통해’ 32.1%, ‘장애인복지시설 교육과정(프로그램)을 통해’ 11.9%,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6.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52〉 처음 교육받은 예술교육기관(경로)

(단위: 명, %)

교육받은 예술교육기관	빈도	비율
장애인복지시설 교육과정(프로그램)을 통해	13	11.9
학교 등 공교육기관을 통해	35	32.1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7	6.4
병원 등 재활시설을 통해	47	43.1
예술단체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6	5.5
기타	1	0.9
계	109	100.0

### ● 전문예술교육을 받은 경험

- 조사 참여자의 36.7%는 전문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63.3%는 전문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활동 영역별로 확인한 결과, 실연 영역의 72.0%, 창작 영역의 57.1%가 전문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기획/제작/홍보의 경우 2.1% 정도만 전문예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임.

〈표 53〉 전문예술교육을 받은 경험

(단위: 명, %)

전체			현 종사 예술영역별				
경험 유무	빈도	비율	창작	실연	기획/제작/홍보	기술지원	행정
예	40	36.7	20(57.1)	18(72.0)	1(2.1)	0(0.0)	1(100.0)
아니오	69	63.3	15(42.9)	7(28.0)	46(97.9)	1(100.0)	0(0.0)
계	109	100.0	35(100.0)	25(100.0)	47(100.0)	1(100.0)	1(100.0)

● 전문예술교육기관 유형

- 전문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예술교육기관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장애예술인 단체/협회’ 4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 내 예술 관련 학과(예술대학)’이 27.5%, ‘개인 레슨’ 17.5%, ‘비장애예술인 단체/협회’와 ‘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이 각 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 영역별로 확인한 결과, 실연 50.5%, 창작 40.0%가 장애예술인 단체/협회에서 전문예술교육을 받았으며, 기획/제작/홍보 영역은 대학 내 예술 관련 학과(예술대학)에서 전문예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54〉 전문예술교육기관 유형

(단위: 명, %)

전체			현 종사 예술영역별			
전문예술교육기관 유형	빈도	비율	창작	실연	기획/제작/홍보	행정
장애예술인 단체/협회	17	42.5	8(40.0)	9(50.0)	-	-
대학 내 예술 관련 학과(예술대학)	11	27.5	6(30.0)	3(16.7)	1(100.0)	1
비장애예술인 단체/협회	2	5	1(5.0)	1(5.6)	-	-
개인 레슨	7	17.5	2(10.0)	5(27.8)	-	-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	2	5	2(10.0)	-	-	-
기타	1	2.5	1(5.0)	-	-	-
계	109	100.0	20(100.0)	18(100.0)	1(100.0)	1(100.0)

## ● 전문예술교육을 받으면서 어려웠던 점

- 전문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문예술교육을 받으면서 어려웠던 점을 확인한 결과, 1순위로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과 '교육에 관한 정보 부족'이 각 23.3%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장애예술인 전문교육기관/시설 부족'으로 19.2%, 3순위는 '장애이해가 부족한 교육자(전문강사)' 17.5%인 것으로 나타남.

〈표 55〉 전문예술교육을 받으면서 어려웠던 점

(단위: 명, %)

	빈도	비율
장애예술인 전문 교육기관/시설 부족	23	19.2
장애예술인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	28	23.3
교육에 관한 정보 부족	28	23.3
교육기관 내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	9	7.5
장애이해가 부족한 교육자(전문강사)	21	17.5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교육교재 등 부족	7	5.8
부담되는 교육비	4	3.3
계	120	100.0

주: 중복 응답임.

## ●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예술교육 참여 의향 및 희망 교육

- 조사대상자의 33.3%는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예술교육이 개설된다면,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나, 67.0% 과 반수 이상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표 56〉 전문예술교육 참여 의향

(단위: 명, %)

전문예술교육 참여 여부	빈도	비율
예	36	33.0
아니오	73	67.0
계	109	100.0

- 전문예술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조사대상자에게 희망하는 전문예술교육에 관해 확인한 결과, 협업교육 19.4%, 미술교육과 기타가 각 13.9%, 미술교육 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이 예술활동의 협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7〉 전문예술교육 참여 시, 희망 교육

(단위: 명, %)

희망교육	빈도	비율
강사교육	3	8.3
모든분야	3	8.3
문학교육	1	2.8
미술	5	13.9
배우	4	11.1
사진	2	5.6
연극	2	5.6
예술교육	2	5.6
즉흥	1	2.8
창작교육	1	2.8
협업	7	19.4
기타	5	13.9
계	36	100.0

## 5) 경제활동(고용 및 소득)

### ● 근로 유형

- 근로 유형은 '프리랜서' 79.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술단체 소속의 비정규직' 19.3%, '예술단체 소속의 정규직' 0.9% 순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현재 장애예술인의 근로형태가 안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 영역별로 확인한 결과, 정규직의 경우, '실연' 4.0%만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프리랜서 중 '기획/제작/홍보'의 영역이 97.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표 58〉 근로 유형

(단위: 명, %)

근로유형	전체		현 종사 예술영역별				
	빈도	비율	창작	실연	기획/제작/홍보	기술지원	행정
정규직	1	0.9	0(0.0)	1(4.0)	0(0.0)	0(0.0)	0(0.0)
비정규직	21	19.3	7(20.0)	11(44.0)	1(2.1)	1(100.0)	1(100.0)
프리랜서	87	79.8	28(80.0)	13(52.0)	46(97.9)	0(0.0)	0(0.0)
계	109	100.0	35(100.0)	25(100.0)	47(100.0)	1(100.0)	1(100.0)

## ● 예술활동 외 다른 직종의 근로 여부

- 조사대상자의 20.2%만 예술활동 외에 다른 직종의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9.8%는 예술활동 외 다른 직종에 근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 영역별로 확인한 결과, 실연 36.0%와 창작 31.4%가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9〉 예술활동 외 다른 직종 근로 여부

(단위: 명, %)

타 직종 근로 유무	전체		현 종사 예술영역별				
	빈도	비율	창작	실연	기획/제작/홍보	기술지원	행정
예	22	20.2	11(31.4)	9(36.0)	1(2.1)	0(0.0)	1(100.0)
아니오	87	79.8	24(68.6)	16(64.0)	46(97.9)	1(100.0)	0(0.0)
계	109	100.0	35(100.0)	25(100.0)	47(100.0)	1(100.0)	1(100.0)

## ● 예술활동 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유

- 예술활동 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50.5%가 '불규칙한 소득'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45.4%는 '낮은 소득' 때문이라고 응답함.

〈표 60〉 예술활동 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유

(단위: 명, %)

타 직업 선택 이유	빈도	비율
낮은 소득	10	45.4
불규칙한 소득	11	50.5
기타	1	4.5
계	22	100.0

## ● 예술활동 외 다른 직업의 예술활동 관련 여부

- 예술활동 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 대상으로 예술활동과 관련된 직종인지를 확인한 결과, 86.4%가 예술활동과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6%만이 예술활동과 관련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함.

〈표 61〉 다른 직업의 예술활동 관련 여부

(단위: 명, %)

타직업의 예술 관련 여부	빈도	비율
예	3	13.6
아니오	19	86.4
계	22	100.0

## ● 예술활동과 관련된 타 직종

- 예술활동 외의 직업이 예술활동과 관련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 대상으로 직종 유형을 확인한 결과, '사무직'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직' 33.3%인 것으로 나타남.

〈표 62〉 예술활동 관련 타 직종

(단위: 명, %)

예술활동 관련 직종	빈도	비율
사무직	2	66.7
서비스직	1	33.3
계	3	100.0

## ● 문화예술계 입문 후, 1년 이상 예술활동 중단 경험 및 중단 이유

- 문화예술계에 입문한 후, 1년 이상 예술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이 2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은 장애예술인은 77.1%로 나타남.
- 1년 이상 예술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예술활동 수입 부족'과 '기타'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활동 협회/단체 등의 해체' 20.0%, '건강 악화' 12.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타'에 응답한 32.0%의 응답 내용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예술활동을 중단한 것임을 확인함.
- 문화예술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예술영역을 조사한 결과, 실연' 48.0%, '창작' 31.4%, '기획/제작/홍보'가 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63〉 1년 이상의 예술활동 중단 경험

(단위: 명, %)

전체			현 종사 예술영역별				
중단경험	빈도	비율	창작	실연	기획/제작/홍보	기술지원	행정
예	25	22.9	11(31.4)	12(48.0)	1(2.1)	0(0.0)	1(100.0)
아니오	84	77.1	24(68.6)	13(52.0)	46(97.9)	1(100.0)	0(0.0)
계	109	100.0	35(100.0)	25(100.0)	47(100.0)	1(100.0)	1(100.0)

〈표 64〉 1년 이상의 예술활동 중단 이유

(단위: 명, %)

중단이유	빈도	비율
학업	1	4.0
건강 악화	3	12.0
예술활동 수입 부족	8	32.0
활동 협회/단체 등의 해체	5	20.0
기타	8	32.0
계	25	100.0

## ● 월평균 개인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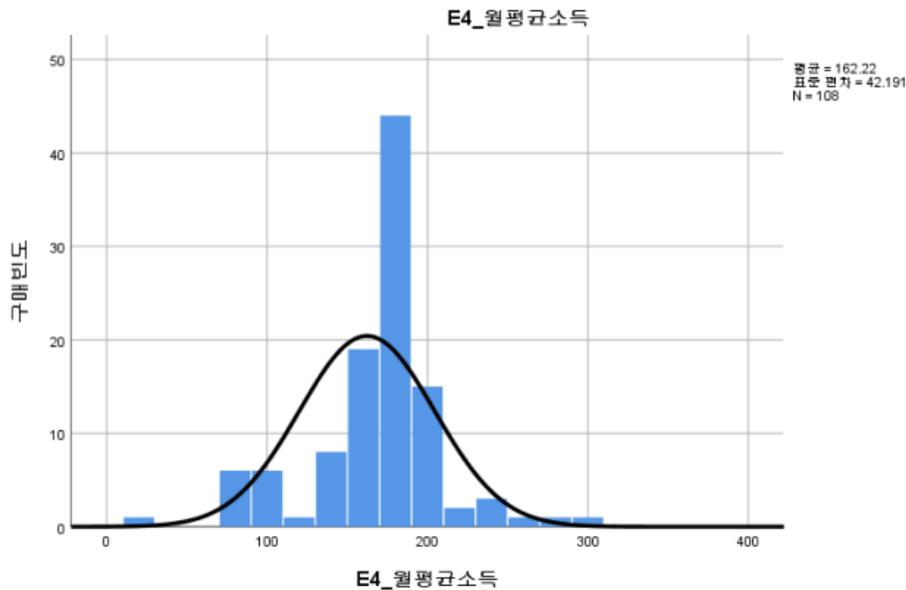
-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나타나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평균적으로 162만 원(SSD=42.101)으로 확인되었고, 표준편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
- 월 평균 개인 소득은 '150~200만 원 미만'이 6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250만 원' 16.7%, '100~150만 원 미만'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65〉 월평균 개인 소득

(단위: 명, %, 만원)

월평균소득	빈도	비율
100만 원 미만	9	8.3
100~150만 원 미만	13	12.0
150~200만 원 미만	65	60.2
200~250만 원 미만	18	16.7
250만 원 이상	3	2.8
계	108	100.0
평균(만원)	162.22	

주: 무응답(1) 제외함.



[그림 9] 월평균 개인 소득

### ● 개인 소득 중 예술활동을 통한 월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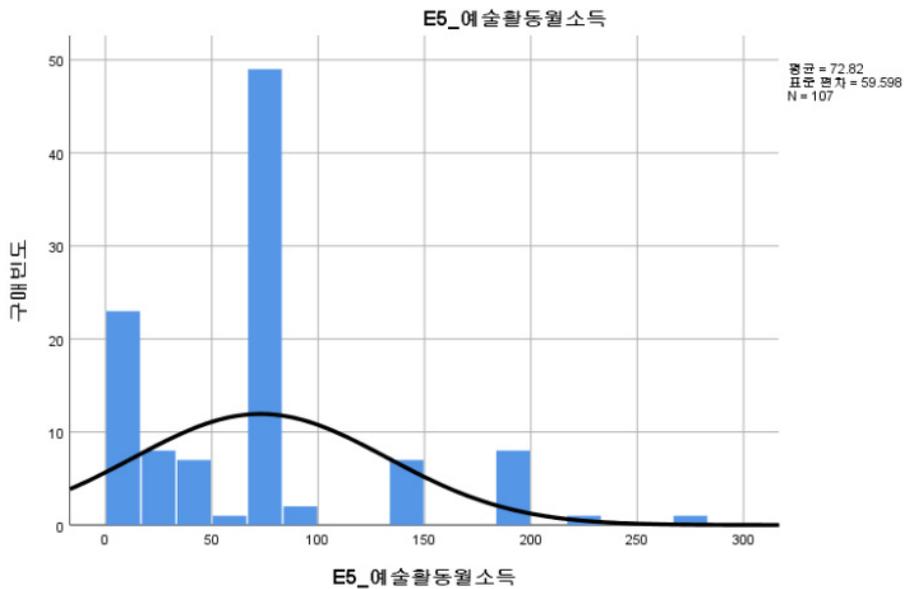
- 예술활동을 통한 월수입의 평균은 78만 원(SD=59.598)으로 나타남.
- 개인 소득 중 예술활동을 통한 월수입은 '100만 원 미만'이 8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250만 원 미만' 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예술활동을 통한 월수입은 현저히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66〉 예술활동을 통한 월수입

(단위: 명, %, 만원)

월수입	빈도	비율
100만 원 미만	88	82.2
100~150만 원 미만	2	1.9
150~200만 원 미만	7	6.5
200~250만 원 미만	9	8.4
250만 원 이상	1	0.9
계	107	100.0
평균값(만원)	77.82	



[그림 10] 예술활동을 통한 월수입

### ● 예술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

- 개인 소득 중 예술활동을 통해 월수입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된 수입원을 확인한 결과, '급여' 6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창작 활동료'와 '보조금 및 지원금'이 각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작품 판매료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료로 인한 수입은 8.0% 미만으로 나타남.

〈표 67〉 예술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

(단위: 명, %)

예술활동 주 수입원	빈도	비율
창작 활동료	13	13.4
급여	64	66.0
작품 판매료	6	6.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료(인세, 로열티 포함)	1	1.0
보조금 및 지원금	13	13.4
계	97	100.0

## 6) 문화예술향유

### ● 지난 3년간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관람) 참여 경험

- 지난 3년(2021년 8월 ~ 2024년 7월)간 문화예술 활동 분야의 행사(관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8%이며,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4.2%인 것으로 나타남.

〈표 68〉 지난 3년간 문화예술분야 행사 참여 경험

(단위: 명, %)

3년간 문화예술 행사 참여 여부	빈도	비율
예	39	35.8
아니오	70	64.2
계	109	100.0

### ● 지난 3년간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관람) 참여 횟수

- 지난 3년(2021년 8월~2024년 7월)간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횟수를 확인한 결과, '5회 미만'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10회 미만' 25.6%, '10~15회 미만'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5~20회 미만'과 '20회 이상' 참여한 비율은 각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표 69〉 지난 3년간 문화예술분야 행사 참여 횟수

(단위: 명, %)

3년간 문화예술 행사 참여 횟수	빈도	비율
5회 미만	14	35.9
5~10회 미만	10	25.6
10~15회 미만	10	15.6
15~20회 미만	2	5.1
20회 이상	3	7.7
계	39	100.0

### ● 참여한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 유형

- 지난 3년간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로 어떤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에 참여했는지 확인한 결과, '전시(미술, 사진, 서예, 건축 등)' 2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연극' 17.8%, '서양음악' 15.1%, '영화(애니메이션 등)'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70〉 참여한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 유형

(단위: 명, %)

문화예술 행사 참여 분야	빈도	비율
문학	4	5.5
서양음악	11	15.1
전통예술(국악, 풍물 등)	6	8.2
연극	13	17.8
뮤지컬	6	8.2
전시(미술, 사진, 서예, 건축 등)	17	23.3
무용	5	6.8
영화(애니메이션 등)	8	11.0
대중음악	1	1.4
방송 등 연예	2	2.7
계	73	100.0

## ● 문화예술 행사(관람) 시 어려웠던 점

- 문화예술 행사(관람)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대중교통 이용 등 이동의 어려움'이 28.4%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는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부족' 21.1%, 3순위는 '서비스(수어·문자통역/점자자료/보조기구 등) 지원의 부족' 15.6% 등 순으로 나타남.

〈표 71〉 문화예술 행사 시 어려웠던 점

(단위: 명, %)

어려운 점	빈도	비율
행사(관람) 신청 절차의 어려움	15	4.6
행사(관람) 비용의 부담	35	10.7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부족	69	21.1
대중교통 이용 등 이동의 어려움	93	28.4
서비스(수어·문자통역/점자자료/보조기구 등) 지원의 부족	51	15.6
공연 정보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39	11.9
행사(관람)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부재	23	7.0
기타	2	0.6
계	109	100.0

주: 중복 응답임.

## 7) 충남 문화예술지원의 이용 현황 및 중요도와 만족도 (IPA)

### ● 충남 문화예술지원의 이용 현황

- 충남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 현재 충남에서의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서비스의 내용은 창작발표지원, 창작과정지원, 특화지원, 거점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충남의 문화예술사업에 포함되는 생애최초 창작지원, 신진예술 창작지원, 충남예술지원 총 11가지 서비스로 범주화하여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이용 여부를 확인함.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71〉과 같음.
- 전체 장애예술인이 이용한 서비스는 생애최초 창작지원이 54.1% 과반수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술교류 45.9%, 사회적 가치 특화지원 44.0%,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4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72〉 문화예술 지원 경험

(단위: 명, %)

서비스 내용	이용여부	전체	
		빈도	비율
창작발표지원	있음	59	54.1
	없음	50	45.9
	있음	2	1.8
	없음	107	98.2
	있음	6	5.5
	없음	103	94.5
창작과정지원	있음	10	9.2
	없음	99	90.8
	있음	6	5.5
	없음	103	94.5
특화지원	있음	2	1.8
	없음	107	98.2
	있음	48	44.0
	없음	61	56.0
거점지원	있음	47	43.1
	없음	62	56.9
	있음	50	45.9
	없음	59	54.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있음	2	1.8
	없음	107	98.2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	있음	6	5.5
	없음	103	94.5
계		109	100.0

주: 충남문화예술지원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생애최초 창작지원: (개인)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 없는 만 29세 이하 청년예술인 역량강화·창작활동 지원  
(팀) 생애최초 창작지원 대상으로 구성된 팀(10인 이내) 지원
- 2) 신진예술 창작지원: (개인) 도 내 1회 이상 활동 경험 있는 만 39세 이하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단체) 설립 3년 미만 문화예술단체 대상 창작활동 지원
- 3) 충남 (문학, 시각, 음악, 연극, 무용, 전통, 보전)예술지원: (개인/단체) 문학작가 및 단체의 창작 작품발간과 문학행사활동지원, 시각예술 장르별 발전·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전시 및 창작활동 지원, 음악·연극·무용·전통 예술 활성화를 위한 창작 발표 등 창작활동지원, 예술분야 또는 비활성 예술 분야의 보전 예술활동 지원
- 4) 충남다원 예술지원: (개인) 기존 장르 중심의 예술에서 벗어나 형식이나 조건의 제약 없이 실험적 시도가 살아 있는 예술활동지원(예술과 기술 융복합, 장르 간 융복합, 기존 장르 중심의 예술에서 벗어나 형식이나 조건의 제약 없이 실험적 시도가 살아있는 예술활동지원(예술과 기술 융복합, 장르 간 융복합
- 5) 예술연구 과정지원: (개인/팀/단체) 예술의 역사와 흐름, 동시대 예술 현안 등에 대한 연구·조사 등을 포함한 예술활동 관정에 대한 지원(전 분야)
- 6) 지역특화 문화브랜드 기획지원: (단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브랜드 발굴 및 개발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전 분야)
- 7) 사회적가치 특화지원: (개인/팀) 충남의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통해 공익의 가치를 높이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전 분야)
- 8)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단체) 현 내 유휴공간 도 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예술인 창작지원, 교류 프로그램, 지역작가 공간공유 유도 등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 연계 퍼블릭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허브이자 창작 산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공간지원(문학·시각 분야)
- 9) 예술교류지원: (협력교류) 예술창작교류, 예술인 관계망 확대, 예술인 활동 강화를 위한 무형의 예술 교류(거점 교류) 도내 문화예술 활용 가능 공간 개발 및 거점 간 교류를 통한 공간 활성화 등 유형의 거점 교류
- 10)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 속에서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발표를 촉진, 공연장의 운영활성화 도모,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11)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 문화예술교육비 지원

## ● 충남 문화예술지원의 중요도와 만족도

-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는 경영 분야에서 마케팅 전략을 위한 소비자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고안된 분석기법이며, IPA의 매트릭스는 [그림 11]과 같음.
- 제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만족도를 같이 비교·분석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음.

- 이러한 방법은 경영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사회복지 등의 학계에 소개되지 않다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과 지양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 데 효율적인 정보 제공해 주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 IPA 분석은 평균값, 중앙값, 피어슨상관계수, 스페어만순위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평균값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음.
- 이에 따른 분석을 통해 서비스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한 후, 이차원적 도표에 표시하여 분포된 위치에 따라 그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임.

	I . Concetrate here	II . Keep up the good work
Importance	III . Low priority	IV . Possible overkill
	Satisf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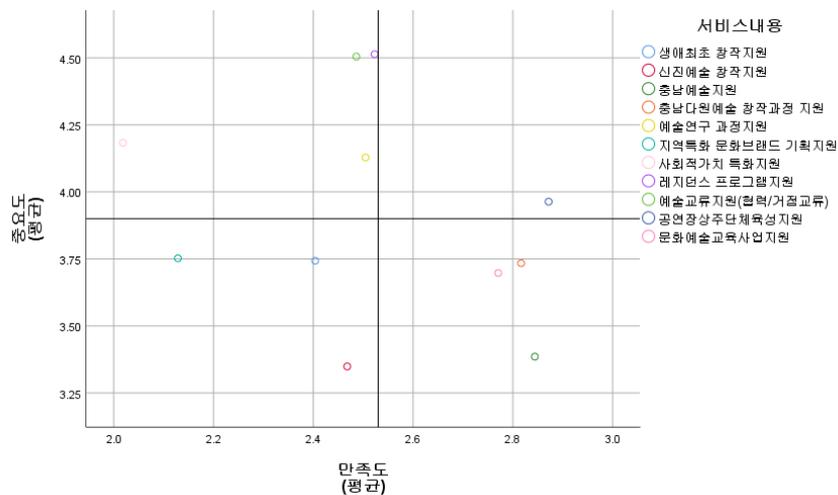
[그림 11] 수정 IPA의 매트릭스(Deng, 2007)

- 따라서 총남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별로 현재 장애예술인이 인식하는 지원 서비스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그림 12]와 같으며, 각 사분면에 분포되어 있는 11가지의 문화예술지원의 시급성 정도에 따른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은 <표 72>와 같음.
- 특히 사분면 중 제 1사분면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 서비스가 분포되어 있음. 또한 사분면 중에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제 1사분면이며, 다음으로는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 순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 1사분면은 중요도가 높지만, 만족도는 현저히 낮아서 향후 집중적인 노력과 관리가 필요한 영역임. 제 1사분면의 영역에 포함되는 문화예술지원 서비스는 4가지이며, 서비스의 시급성(우선순위) 정도에 따른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예술연구 과정지원, 사회적가치 특화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예술교류지원(협력/거점교류) 서비스임.
- 제 2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난 영역으로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앞으로 기대되는 영역으로 해석 가능함. 제 2사분면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서비스임.
- 제 3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게 나타난 영역으로, 중요성과 실행 노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영역임. 제 3사분면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3가지로, 생애최초 창작지원, 신진예술 창작지원, 지역특화 문화브랜드 기획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

- 제 4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영역으로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노력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제 4사분면에 나타난 서비스는 총 3가지로, 충남다원예술 창작과정 지원,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 충남예술지원 서비스임.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향후 충남의 문화예술 지원의 실천 정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처럼 충남 문화예술에 관한 11가지 지원의 중요도와 만족도(IPA) 분석에서 가장 의미있는 사분면으로는 중요도가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서 가장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력집중화 지향'의 요인인 제 1사분면임.

〈표 73〉 중요도와 만족도에 따른 지원서비스

사분면	특징	시급성 (우선순위)	지원 서비스
제 1사분면	• 중요도 ↑, 만족도 ↓ • 집중관리가 필요	1	• 예술연구 과정지원 • 사회적가치 특화지원 •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 예술교류지원(협력/거점교류)
제 2사분면	• 중요도 ↑, 만족도 ↑ •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	2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제 3사분면	• 중요도 ↓, 만족도 ↓ • 관리의 우선순위를 낮추어도 무방(점진개선 항목)	3	• 생애최초 창작지원 • 신진예술 창작지원 • 지역특화 문화브랜드 기획지원
제 4사분면	• 중요도 ↓, 만족도 ↑ • 과잉관리를 제거하거나 개선	4	• 충남다원예술 창작과정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 • 충남예술지원



[그림 12] 충남의 문화예술 지원 서비스의 중요도-만족도

### 3. 합의

#### 1) 충남 장애예술인의 현황

#####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충남의 등록장애인의 45.4%는 지체장애인이며, 장애예술인의 66.1% 또한 지체장애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특정 장애유형 중심의 지원 정책이 아닌,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접근법이 필요함을 시사함.
- 장애예술인의 연령대는 30대가 65%로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예술활동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10대~20대는 8%에 불과하며, 이는 청년층과 미래 세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지원이 부족함을 보여줌.
- 장애유형별 분포는 지체장애인 외에도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지역적으로는 서산시(46%)와 아산시(14%)에 편중된 반면, 군 지역은 예술활동 기반이 부족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장애예술인의 66.1%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예술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며, 예술교육 기회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요구됨. 심리치료학 전공 비율이 41.1%로 높게 나타난 점은 예술활동이 심리적 치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함.

##### ● 경제적 불안정과 낮은 사회적 안전망

- 장애예술인의 79.8%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월평균 개인 소득은 162만 원, 이중 예술활동 수입은 평균 78만 원에 불과함. 예술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예술 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20.2%). 이는 장애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바로,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해 경제적 지원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을 보여줌.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등록률은 8.3%,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6.4%로 매우 낮음. 이는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안정성이 매우 취약함을 나타내며, 이는 예술활동의 안정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또한, 기획/제작/홍보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43.1%)이 높은 반면, 창작과 실연 비율은 각각 32.1%, 22.9%로 상대적으로 낮아 창작 중심 활동의 비중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적·사회적 제약

- 장애예술인의 99.1%가 창작공간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97.2%가 예술활동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발표공간과 연습공간의 부족은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문화예술시설의 확충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 공공문화시설 이용 경험은 21.1%에 불과하며, 대관 경쟁률과 절차의 어려움(52.2%), 접근성 부족(26.1%) 등이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 전문예술교육

- 전문예술교육을 경험 비율은 36.7%에 불과하며, 교육 부족의 주요 원인은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교육기관과 관련 정보 부족으로 확인됨. 이는 장애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예술교육 기회의 확대와 전문교육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함.

### ● 문화예술 향유 제약

- 문화예술 향유 참여율이 35.8%로 낮으며, 주요 장애 요인으로 이동의 어려움(28.4%)과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21.1%)이 지적됨. 이는 물리적 접근성과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함. 문화예술 향유는 단순히 여가를 넘어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임을 고려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2) 충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과 한계

### ● 충남의 선도적 역할

- 충남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202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장애예술인의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중장기 발전 전략은 네트워크와 창작지원 중심으로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장 반영과 실질적 성과 면에서 보완이 요구됨.

### ● 정책의 구조적 한계

- 창작지원은 창작비와 전시비, 재료비 등 직접 비용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장기적 창작환경 조성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음.
-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실행 수준에서 구체적 협력 체계와 예산 부족이 문제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전문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이 더딤.

## 3)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

### ● 제도적 기반 강화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등록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등록 절차의 간소화와 대행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교육 및 역량 강화

-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예술교육의 경험 부족은 역량 강화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충남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줄이기 위해 강사 훈련을 강화해야 함.
- 청년층 발굴과 육성을 위한 장애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함.

### ● 경제적 안정성 보장

- 충남은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과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등록률을 개선하기 위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술활동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함.
- 프리랜서 중심의 고용 구조를 개선하고, 장애예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창작활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애 예술인 창작펀드'를 도입하여 예술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창작,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활동에서 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하여 예술활동 수입원을 다각화해야 함.

## ● 문화예술 향유 지원

- 물리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동 지원 서비스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함.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향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장벽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함.

## ● 공간 및 네트워크 확충

- 충남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 접근성과 공간 활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발표공간과 연습공간의 공공 대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애예술인을 위한 공간 우선 배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함.
-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이 상호작용하고 창작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며, 정기적 교류와 공동작업을 장려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 ●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선도적 모델

- 충남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고용 안정,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선도적 정책 모델을 구축할 잠재력이 있음. 이를 위해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중장기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용 예산을 증대시켜야 함.
- 충남의 정책은 타 지역 및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음.

• 충남의 장애예술인은 창작과 향유를 통해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불안정, 창작공간 부족, 낮은 교육 경험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됨.

- 첫째, 제도적 기반 강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등록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 둘째, 교육 및 역량 강화: 장애유형별 맞춤형 전문예술교육 확대 및 교육 접근성 강화
- 셋째, 경제적 안정성 보장: 창작펀드 도입 및 소득 창출 구조 다각화
- 넷째, 문화예술 향유 지원: 물리적 접근성 개선 및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
- 다섯째, 공간 및 네트워크 확충: 창작 및 발표 공간 확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여섯째,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선도적 모델: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용 예산 확대와 선도적 정책 모델 구축

• 충남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하고, 모두의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며,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장애예술 정책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임.

## 1. 조사의 개요

### 1) 조사의 필요성

####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 및 요구 파악 필요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관련 현재 상황과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가 필요함.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 및 요구는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문지를 제작함.
- 충청남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활성화 계획은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여건, 공간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 충청남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 및 요구 조사의 목적

- 충청남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 및 요구 조사는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2025-2029)」을 위한 충청남도 거주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한 실증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함.

### 2) 조사의 진행

#### ● 충청남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함

- 조사기간: 2024. 8. 24. ~ 2024. 11. 30.
- 조사대상: 충청남도 내 거주 등록장애인
- 조사방법: 충청남도 내 장애인 관련 협회와 단체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지 500부 배포
- 최종분석: 총 421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무응답과 고정반응을 보이는 응답 3부를 제외하고 418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함.
- 조사항목: 일반적 사항, 문화예술 향유 내용, 문화예술 향유 공간

## 2. 조사의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 성별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의 성별은 여성 51.7%, 남성 47.8%로 여성이 남성보다 3.9%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이 0.5%로 응답하였음.

〈표 74〉 성별

	변수	빈도(N)	비율(%)
성별	여성	216	51.7
	남성	200	47.8
	기타(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	2	0.5
	계	418	100.00

#### ● 연령대

-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10대' 3.1%, '20대' 16.3%, '30대' 27.5%, '40대' 21.5%, '50대' 18.4%, '60대' 12.25%, '70대' 1.0%, '80대 이상'은 없었음.

〈표 75〉 연령

	변수	빈도(N)	비율(%)
연령	10대	13	3.1
	20대	68	16.3
	30대	115	27.5
	40대	90	21.5
	50대	77	18.4
	60대	51	12.2
	70대	4	1.0
	80대 이상	0	0.0
	계	418	100

## ● 거주지

-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는 '천안시' 9.8%, '공주시' 10.5%, '보령시' 3.3%, '아산시' 7.4%, '서산시' 6.7%, '논산시' 2.6%, '계룡시' 1.9%, '금산군' 2.9%, '부여군' 5.0%, '서천군' 3.3%, '청양군' 10.3%, '홍성군' 18.2%, '예산군' 12.4%, '태안군' 4.3%로 응답하였음.

〈표 76〉 거주지

변수	빈도(N)	비율(%)	
천안시	41	9.8	
공주시	44	10.5	
보령시	14	3.3	
아산시	31	7.4	
서산시	28	6.7	
논산시	11	2.6	
계룡시	8	1.9	
거주지	당진시	5	1.2
금산군	12	2.9	
부여군	21	5.0	
서천군	14	3.3	
청양군	43	10.3	
홍성군	76	18.2	
예산군	52	12.4	
태안군	18	4.3	
계	418	100.0	

## ● 등록장애유형

-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 19.6%, 청각장애 14.8%, 언어장애 5%, '자폐성 장애' 4.1%, '뇌병변장애' 3.1%, '호흡기장애' 2.2%, '신장장애' 1.9%, '시각장애' 1.7%, '장루요루장애' 1%, '뇌전증장애' 0.5%, '심장장애'와 '정신장애' 각각 0.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간장장애'는 없었음.

〈표 77〉 등록장애유형

변수		빈도(N)	비율(%)
등록 장애 유형	간장장애	0	0.0
	뇌병변장애	13	3.1
	뇌전증장애	2	0.5
	시각장애	7	1.7
	신장장애	8	1.9
	심장장애	1	0.2
	안면장애	12	2.9
	언어장애	21	5.0
	자폐성장애	17	4.1
	장루요루장애	4	1.0
	정신장애	1	0.2
	지적장애	82	19.6
	지체장애	179	42.8
	청각장애	62	14.8
	호흡기장애	9	2.2
	계	418	100.0

● 장애정도

- 장애정도는 '심한장애'가 44.3%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55%로 나타남.

〈표 78〉 장애정도

변수		빈도(N)	비율(%)
장애 정도	심한 장애	185	44.3
	심하지 않은 장애	230	55.0
계		418	100.0

## ● 결혼 여부

- 조사대상자 중 39%는 '기혼'이었으며, 60.5%는 '미혼'이라고 응답함.

〈표 79〉 결혼 여부

변수		빈도(N)	비율(%)
결혼 여부	예	163	39.0
	아니오	253	60.5
계		418	100.0

## ● 가구원 수

- 가구원 수는 '2인 가구'가 37.6%로 가장 많았고, '3인 가구' 24.2%, '1인 가구' 18.9%, '4인 가구' 13.9%, '5인 가구 이상'이 5.5% 응답함.

〈표 80〉 가구원 수

변수		빈도(N)	비율(%)
가구 원수	1인 가구	79	18.9
	2인 가구	157	37.6
	3인 가구	101	24.2
	4인 가구	58	13.9
	5인 가구 이상	23	5.5
계		418	100.0

## ● 최종학력

-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27%, '초등학교 졸업' 12.7%, '대학 졸업' 9.1%,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수료 이상' 5%, '전공과 졸업' 1.7%, 순으로 나타남.

〈표 81〉 최종학력

변수		빈도(N)	비율(%)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무학, 중퇴 포함)	53	12.7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113	27.0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180	43.1
	전공과 졸업(재학, 중퇴 포함)	7	1.7
	대학(전문대) 졸업(재학, 중퇴 포함)	38	9.1
	대학교 졸업(재학, 중퇴 포함)	25	6.0
	대학원 수료 / 졸업(재학, 중퇴 포함)	2	.5
계		418	100.0

● 직업

-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무직'이 21.1%로 가장 많았음. '단순 노무 종사자' 15.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5%, '서비스 종사자' 11%, '사무종사자' 10.8%, '가사노동자(주부)' 8.9%, '판매 종사자' 5%, '학생' 4.3%,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9%, '관리자' 1.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가 각각 0.7%, '문화예술관련 종사자'가 0.5% 순으로 나타남. 기타응답으로 자영업, 운동선수 등이 있었음.

〈표 82〉 직업

변수		빈도(N)	비율(%)
직업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예술가, 기획자, 홍보담당자, 정책가, 행정가, 연구자 등)	2	0.5
	관리자	5	1.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0.7
	사무종사자	45	10.8
	서비스 종사자	46	11.0
	판매 종사자	21	5.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8	11.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	0.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	2.9
	단순 노무 종사자	66	15.8
	학생	18	4.3
	가사노동자(주부)	37	8.9
	무직	88	21.1
	기타	24	5.7
계		418	100.0

## ● 가구 월소득

- 가구 월소득의 경우, 월평균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25.7%로 가장 많이 응답함. '월평균 200만원~300만원 미만' 22.8%, '소득없음' 20.1%, '월평균 100만원 미만' 15.5%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월평균 300만원~400만원 미만' 7.5%, '월평균 400만원~500만원 미만' 3.6%, '월평균 200만원~300만원 미만' 15.7%, '월평균 500만원~600만원 미만', '월평균 600만원~700만원 미만'이 각각 1.9%, '월평균 700만원 이상'이 1%로 나타남.

〈표 83〉 가구 월소득

변수		빈도(N)	비율(%)
가구 월소득	소득없음	83	20.1
	월평균 100만원 미만	64	15.5
	월평균 100만원~200만원 미만	106	25.7
	월평균 200만원~300만원 미만	94	22.8
	월평균 300만원~400만원 미만	31	7.5
	월평균 400만원~500만원 미만	15	3.6
	월평균 500만원~600만원 미만	8	1.9
	월평균 600만원~700만원 미만	8	1.9
	월평균 700만원 이상	4	1.0
계	413	100.0	

## 2) 문화예술 향유

### ● 문화예술 향유 경험

- 문화예술 향유 경험 여부는 응답자의 29.2%가 경험이 있으며, 70.8%는 없다고 답함.

〈표 84〉 문화예술 향유 경험

변수	빈도(N)	비율(%)
예	122	29.2
아니오	296	70.8
소계	418	100.0

## ● 지난 1년 동안 분야별 문화예술 향유 횟수

- 지난 1년 동안 분야별 문화예술 향유 횟수에 대한 응답으로 '연극'(39.7%)과 '문학행사'(39.2%)가 다른 분야보다 참여 경험이 월등히 많았음.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미술전시회', '무용', '음악 연주회', '뮤지컬', '오페라' 순으로 문화예술 향유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향유 경험은 '1~3회'에 집중되어 있음.

〈표 85〉 지난 1년 동안 분야별 문화예술 향유 횟수

변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이상		소계	
	빈도 (N)	비율 (%)														
문학행사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	17	68.0	2	8.0	3	12.0	0	0.0	1	4.0	0	0.0	2	4.0	393	39.2
미술전시회 (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포함)	37	71.2	9	17.3	5	9.6	0	0.0	1	1.9	0	0.0	0	0.0	52	5.2
음악 연주회 (클래식 음악 관련)	13	61.9	3	14.3	5	23.8	0	0.0	0	0.0	0	0.0	0	0.0	21	2.1
오페라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전통예술 (국악, 연희 등)	12	60.0	5	25.0	2	10.0	1	5.0	0	0.0	0	0.0	0	0.0	20	2.0
연극	16	72.7	4	18.2	1	4.5	0	0.0	0	0.0	0	0.0	1	4.5	398	39.7
뮤지컬	8	57.1	3	21.4	2	14.3	1	7.1	0	0.0	0	0.0	0	0.0	14	1.4
무용	25	83.3	2	6.7	2	6.7	0	0.0	1	3.3	0	0.0	0	0.0	30	3.0
문화예술교육	43	58.9	16	21.9	8	11.0	2	2.7	0	0.0	0	0.0	4	5.5	73	7.3

## ●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지난 1년 간 경험한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높은 문화예술활동은 ‘문화예술교육’(89.2%)이었으며, ‘무용’(80.6%), ‘음악 연주회’(59.1%), ‘연극’(56%), ‘미술전시회’(51%), ‘오페라’, ‘전통예술’, ‘뮤지컬’(각 50%) 순으로 만족 이상이라고 응답함.
- 또한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와 재관람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은 만족함과 동시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술전시회’의 경우 응답자의 50% 이상이 ‘만족 이상’이지만 재관람 의사(36.8%)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86〉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의 만족도

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소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문학행사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와의 대화 등)	6	27.3	1	4.5	8	36.4	4	18.2	3	13.6	22	100.0
미술전시회 (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포함)	4	8.2	0	0.0	20	40.8	15	30.6	10	20.4	49	100.0
음악 연주회(클래식 음악 관련)	1	4.5	0	0.0	8	36.4	10	45.5	3	13.6	22	100.0
오페라	0	0.0	0	0.0	2	50.0	2	50.0	0	0.0	4	100.0
전통예술(국악, 연회 등)	2	10	0	0.0	6	30.0	6	30.0	4	20.0	20	100.0
연극	2	8.0	0	0.0	9	36.0	12	48.0	2	8.0	25	100.0
뮤지컬	1	8.3	0	0.0	5	41.7	4	33.3	2	16.7	12	100.0
무용	1	3.2	0	0.0	5	16.2	12	38.7	13	41.9	31	100.0
문화예술교육	3	4.0	0	0.0	5	6.8	22	29.7	44	59.5	74	100.0

## ●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 향유(계획) 여부

-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 향유(계획) 여부는 ‘문화예술교육’(71.9%), ‘뮤지컬’(55.5%), ‘연극’(51.5%), ‘무용’(49.6%), ‘음악 연주회’(48.9%), ‘전통예술’(45.9%), ‘문학행사’(44.2%), ‘미술전시회’(36.8%), ‘오페라’(32.3%) 순으로 나타남.

〈표 87〉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 향유 여부

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소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문학행사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	61	44.2	77	55.8	138	100.0
미술전시회 (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포함)	88	36.8	151	63.2	239	100.0
음악 연주회(클래식 음악 관련)	65	48.9	68	50.1	133	100.0
오페라	43	32.3	90	67.3	133	100.0
전통예술(국악, 연회 등)	62	45.9	73	54.1	135	100.0
연극	69	51.5	65	48.5	134	100.0
뮤지컬	76	55.5	61	44.5	137	100.0
무용	66	49.6	67	50.4	133	100.0
문화예술교육	100	71.9	39	28.1	139	100.0

### ● 충청남도 외 지역 문화예술 향유 분야

- 충청남도 외 지역에서 문화예술 향유 경험을 다중선택으로 살펴보면, ‘미술전시회’ 관람(26.9%)이 가장 많았으며, ‘문학행사’(21.5%), ‘문화예술교육’(14%), ‘뮤지컬’(11.8%), ‘음악 연주회’(9.7%), ‘연극’(7.5%), ‘전통예술’(4.3%), ‘무용’(3.2%), ‘오페라’(1.1%) 순으로 나타남.

〈표 88〉 충남도 외 지역 문화예술 향유 분야(다중선택, N=93)

변수	빈도(N)	비율(%)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	20	21.5
미술전시회(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포함)	25	26.9
음악 연주회(클래식 음악 관련)	9	9.7
오페라	1	1.1
전통예술(국악, 연회 등)	4	4.3
연극	7	7.5
뮤지컬	11	11.8
무용	3	3.2
문화예술교육	13	14.0
소계	93	100.0

## ● 문화예술 향유 방법

- 문화예술 향유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료행사'(34.7%)로 관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입장권 개별 구매'(27.4%), '단체무료관람'(21.8%) 순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초대권으로 관람'(11.3%), '입장권 단체 구매'(0.8%)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은 '여행갔다가 관람' 또는 '회사 공연팀의 공연 관람'이 있었음.

〈표 89〉 문화예술 향유 방법

변수	빈도(N)	비율(%)
입장권 개별 구매	34	27.4
초대권으로 관람	14	11.3
무료 행사	43	34.7
입장권 단체 구매	1	0.8
단체무료관람	27	21.8
기타	5	4.0
소계	124	100.0

## ● 문화예술교육 참여 방법

- 응답자들은 문화예술교육 참여 방법으로 본인이 교육기관으로 직접 '방문'(65.6%)해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자신이 소속된 기관 등으로 강사가 '내방'(34.4%)해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음.

〈표 90〉 문화예술교육 참여 방법

변수	빈도(N)	비율(%)
내방교육	41	34.4
방문교육	78	65.6
소계	119	100.0

## ● 문화예술 향유 시 동행인

- 문화예술 향유 시 동행인은 '부모', '친구'와 동행한다는 응답이 각각 21.6%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배우자'와 동행한다(17.2%), '지원인력'과 동행한다(14.2%), '혼자' 관람한다(9.7%), '자녀'(4.5%), '이웃'(3%), '연인'(2.2%), '직장동료'(1.5%) 순으로 나타났고, '형제자매(친척)'와 동행한다는 응답은 없었음.

〈표 91〉 문화예술 향유 시 동행인

변수	빈도(N)	비율(%)
혼자	13	9.7
부모	29	21.6
배우자	23	17.2
자녀	6	4.5
형제자매(친적)	0	0.0
친구	29	21.6
연인	3	2.2
직장동료	2	1.5
이웃	4	3.0
지원인력(활동지원사,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	19	14.2
기타	6	4.5
소계	134	100.0

### ● 문화예술 향유 시간대

- 문화예술 향유 시간대는 ‘평일 낮 시간’(37.7%)이 가장 많았고, ‘주말 낮 시간’(32.9%), ‘주말 저녁 시간’(15%), ‘평일 저녁 시간’(1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92〉 문화예술 향유 시간대

변수	빈도(N)	비율(%)
평일(월요일~금요일) 낮 시간	55	37.7
평일(월요일~금요일) 저녁 시간	21	14.4
주말(토요일, 일요일) 낮 시간	48	32.9
주말(토요일, 일요일) 저녁 시간	22	15.0
기타	0	0.0
소계	146	100.0

## ● 문화예술 향유 정보 획득 경로

-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해 응답자의 33.5%가 '사회복지·장애인복지 기관 및 단체'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15%), '소셜미디어'와 '주변 사람'(각 8.5%), '안내문'(5.5%) 순으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93〉 문화예술 향유 정보 획득 경로

변수	빈도(N)	비율(%)
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30	18.4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17	10.4
안내문(현수막, 간판, 지하철 광고 등)	11	6.8
신문·잡지	4	2.5
텔레비전·라디오	4	2.5
공공기관·교육기관 홈페이지	8	4.9
사회복지·장애인복지 기관 및 단체	67	41.1
주변사람	17	10.4
해당 안내책자	1	0.6
정기발행 이메일 및 뉴스레터	1	0.6
동호인 모임	2	1.2
기타	1	0.6
소계	163	100.0

-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향유 정보 획득 경로를 교차 분석한 결과, '인터넷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획득은 지체장애·청각장애인(26.7%) 가장 많았음.
-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획득은 청각장애인(35.3%)과 지적장애인(29.4%)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안내문'을 통한 정보 획득은 지체장애인(54.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적장애인(36.4%), 호흡기장애인(9.1%) 순으로 응답함.
- '신문·잡지'를 통한 정보 획득은 지체장애인이 100%로 나타났으나 빈도가 1이므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님.

- '텔레비전·라디오'를 통한 정보 획득은 지적장애인(50%)과 뇌병변장애·지체장애인(각 25%) 순으로 응답함.
- '공공기관·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획득은 지적장애인(50%), 자폐성장애인(25%), 정신장애·지체장애인(각 12.5%) 순으로 응답함.
- '사회복지·장애인복지기관 및 단체'를 통한 정보 획득은 지적장애인(49.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체장애인(23.9%)으로 나타남. 자폐성장애(11.9%), 청각장애(6%), 뇌병변장애·시각장애(3%), 신장장애(1.5%)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장애유형은 응답하지 않음.
- '주변사람'을 통한 정보 획득은 지적장애인(64.7%)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언어장애·자폐성장애인(각 11.8%), 지체장애·청각장애인(5.9%) 순으로 나타남.
- '해당 안내책자'를 통한 정보 획득은 지체장애인이 100%로 나타났으나 빈도가 1이므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님.
- '정기발행 이메일 및 뉴스레터'를 통한 정보 획득은 지체장애인이 100%로 나타났으나 빈도가 1이므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님.
- '동호인 모임'을 통한 정보 획득은 언어장애인이 100%로 나타났으나 빈도가 2이므로 주요 결과로 반영하기 어려움.

〈표 93-1〉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향유 정보 획득 경로(%)

변수	a	b	c	d	e	f	g	h	i	j	k
뇌병변	6.7	5.9	0.0	0.0	25.0	0.0	3.0	0.0	0.0	0.0	0.0
뇌전증	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시각	3.3	0.0	0.0	0.0	0.0	0.0	3.0	0.0	0.0	0.0	0.0
신장	3.3	5.9	0.0	0.0	0.0	0.0	1.5	0.0	0.0	0.0	0.0
언어	3.3	0.0	0.0	0.0	0.0	0.0	0.0	11.8	0.0	0.0	100.0
자폐성	13.3	5.9	0.0	0.0	0.0	25.0	11.9	11.8	0.0	0.0	0.0
장루요루	0.0	0.0	0.0	0.0	0.0	0.0	1.5	0.0	0.0	0.0	0.0
정신	0.0	0.0	0.0	0.0	0.0	12.5	0.0	0.0	0.0	0.0	0.0
지적	13.3	29.4	36.4	0.0	50.0	50.0	49.3	64.7	0.0	0.0	0.0
지체	26.7	11.8	54.5	100.0	25.0	12.5	23.9	5.9	100.0	100.0	0.0
청각	26.7	35.3	0.0	0.0	0.0	0.0	6.0	5.9	0.0	0.0	0.0
호흡기	0.0	5.9	9.1	0.0	0.0	0.0	0.0	0.0	0.0	0.0	0.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b.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c.안내문(현수막, 간판, 지하철 광고 등) d.신문·잡지 e.텔레비전·라디오 f.공공기관·교육기관 홈페이지 g.사회복지·장애인복지 기관 및 단체 h.주변사람 i.해당 안내책자 j.정기발행 이메일 및 뉴스레터 k.동호인 모임

## ● 문화예술 향유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문화예술 향유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거리 및 교통의 편의성'(22.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관람 비용의 적정성'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도'(각 15%), '관람 및 교육 참여를 함께할 사람'(11.8%), '문화예술 행사 및 교육의 내용과 수준'(10.4%)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관람 및 교육 참여를 함께할 사람'(5.6%), '공연 및 교육 단체의 유명한 정도'(5.1%), '행사개최 장소의 유명한 정도'(4.5%),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주의 의견·네티즌 의견'(3.2%),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언론보도'(1.6%) 순으로 나타남.

(표 94) 문화예술 향유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다중응답, N=416)

변수	빈도(N)	비율(%)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의 내용과 수준	108	10.4
관람비용의 적정성	157	15.0
공연 및 교육 단체(연출, 작가, 출연진)의 유명한 정도	53	5.1
행사개최 장소의 유명한 정도	47	4.5
거리 및 교통의 편의성	239	22.9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정도	156	15.0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 언론보도	17	1.6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주위 의견, 네티즌 의견	34	3.2
관람 및 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성(정보접근성)	123	11.8
관람 및 교육참여를 함께할 사람	58	5.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강사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43	4.1
기타	8	0.8
소계	1,043	100.0

## ●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향상되어야 할 점

-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향상되어야 할 점은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18.6%)가 가장 높았으며, '이해하기 쉬운 행사가 많아져야 한다'(16.6%), '관련 정보가 많아져야 한다'(13.6%), '자주 진행되어야 한다'(13.2%), '참여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10.1%), '공연 또는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7.6%),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5.2%)로 나타났음.

- 즉, 응답자들의 응답 결과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있어 물리적, 정보적, 이해적 접근성이 향상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표 95〉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향상되어야 할 점(다중응답, N=416)

변수	빈도(N)	비율(%)
공연 또는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77	7.6
참여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102	10.1
자주 진행되어야 한다.	133	13.2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188	18.6
관련 정보가 많아져야 한다.	137	13.6
이해하기 쉬운 행사가 많아져야 한다	168	16.6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132	13.1
편의지원(화면해설, 쉬운해설, 수어통역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53	5.2
교사가 장애인을 가르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0	0.0
기타	20	2.0
소계	1,010	100.0

### ●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이유

-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이유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16.9%)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통이 불편하다’(16.5%),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16.4%)로 나타남. 이어 ‘비용이 많이 든다’(12.9%),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10%),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다’(8.4%), ‘편의시설이 불편하다’(6.6%), ‘함께 관람할 사람이 없다’(6.1%), ‘편의지원이 부족하다’(5.2%)로 나타남.

- 이는 ‘정보 획득 및 접근성’과 관련된 응답(32.1%)이, ‘물리적 접근성 및 편의’와 관련된 응답(23.1%)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96〉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이유(다중응답, N=416)

변수	빈도(N)	비율(%)
비용이 많이 든다	127	12.9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162	16.4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83	8.4
교통이 불편하다	162	16.5
편의시설이 불편하다	65	6.6
편의지원이 부족하다(화면해설, 쉬운해설, 수어통역 등)	51	5.2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166	16.9
함께 관람할 사람이 없다	60	6.1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98	10.0
기타	10	1.0
소계	405	100.0

### 3) 공간 이용 경험

#### ● 문화예술 향유 공간 이용 경험 여부

- 문화예술 향유 공간 이용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복지기관'(22.3%)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군·구민회관', '문예회관', '박물관·미술관'이 8~9%대의 응답률을 보임. 그 외 공간은 비슷한 응답률이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응답률은 '종교단체'(2.8%) 공간으로 나타남.

〈표 97〉 문화예술 향유 공간 이용 경험 여부

변수	예		아니오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시,군,구민회관	31	8.0	355	92.0
문예회관	37	9.6	349	90.4
장애인 복지기관	87	22.3	303	77.7
청소년회관(수련원, 수련관 등)	17	4.4	369	95.6
문화원	25	6.5	360	93.5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	26	6.7	360	93.3
박물관·미술관	32	8.3	354	91.7
문학관	14	3.6	372	96.4
생활문화센터	25	6.5	361	93.5
문화의 집	13	3.4	373	96.6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3	3.4	373	96.6
사설문화센터(백화점·신문사·방송사 등)	17	4.4	369	95.6
주민자치센터	24	6.2	363	93.8
민간예술단체	32	8.3	354	91.7
종교단체	10	2.8	351	97.2

### ● 문화예술 향유 공간 이용 만족도

- 문화예술 향유 공간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공간은 ‘장애인 복지기관’(75.3%)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민간예술단체’(62.9%), ‘문예회관’(60.5%)으로 나타남. 그 외 응답은 ‘만족’ 이상의 응답이 50% 미만이었음.
- 문화예술 향유 공간 이용 만족도에 대한 응답 중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인 공간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71.4%)이 가장 만족도가 낮았으며, ‘문화원’(69.2%), ‘사설문화센터’(68.8%), ‘종교단체’(66.7%), ‘도서관’(62%), ‘시·군·구민회관’(60.6%) 순으로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함. 그 외 ‘박물관·미술관’, ‘문학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가 ‘보통’ 이하의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표 98〉 문화예술 향유 공간 이용 만족도

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소계	
	빈도 (N)	비율 (%)										
시, 군, 구민회관	3	9.1	3	9.1	14	42.4	9	27.3	4	12.1	33	100.0
문예회관	2	5.3	2	5.3	11	28.9	17	44.7	6	15.8	38	100.0
장애인 복지기관	4	4.7	3	3.5	14	16.5	38	44.7	26	30.6	85	100.0
청소년회관 (수련원, 수련관 등)	3	16.7	2	11.1	6	33.3	5	27.8	2	11.1	18	100.0
문화원	7	26.9	5	19.2	6	23.1	5	19.2	3	11.5	26	100.0
도서관 (학교도서관 제외)	3	10.3	6	20.7	9	31.0	9	31.0	2	6.9	29	100.0
박물관·미술관	5	16.1	4	12.9	8	25.8	12	38.7	2	6.5	31	100.0
문학관	3	20.0	3	20.0	2	13.3	4	26.7	3	20.0	15	100.0
생활문화센터	4	16.7	3	12.5	6	25.0	5	20.8	6	25.0	24	100.0
문화의 집	2	14.3	3	21.4	3	21.4	4	28.6	2	14.3	14	100.0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	21.4	2	14.3	5	35.7	2	14.3	2	14.3	14	100.0
사설문화센터 (백화점·신문사·방송사 등)	4	25.0	3	18.8	4	25.0	3	18.8	2	12.5	16	100.0
주민자치센터	4	18.2	3	13.6	5	22.7	4	18.2	6	27.3	22	100.0
민간예술단체	5	14.3	5	14.3	3	8.6	17	48.6	5	14.3	35	100.0
종교단체	2	16.7	5	41.7	1	8.3	3	25.0	1	8.3	12	100.0

## ● 향후 문화예술 향유 공간 이용 의향

- 향후 문화예술 향유 공간 이용 의향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공간이 '의향 없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기관'의 경우 31%로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 공간은 9~20%로 나타남.

〈표 99〉 향후 문화예술 향유 공간 이용 의향 여부

변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소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시,군,구민회관	61	15.8	326	84.2	387	100.0
문예회관	63	16.2	326	83.8	389	100.0
장애인 복지기관	122	31.0	272	69.0	394	100.0
청소년회관(수련원, 수련관 등)	47	12.0	344	88.0	391	100.0
문화원	59	15.1	332	84.9	391	100.0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	51	13.2	335	86.8	386	100.0
박물관·미술관	82	20.9	310	79.1	392	100.0
문학관	49	12.5	342	87.5	391	100.0
생활문화센터	65	16.6	326	83.4	391	100.0
문화의 집	45	11.5	345	88.5	390	100.0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49	12.6	341	87.4	390	100.0
사설문화센터(백화점·신문사·방송사 등)	56	14.4	334	85.6	390	100.0
주민자치센터	61	15.6	331	84.4	392	100.0
민간예술단체	70	17.9	320	82.1	390	100.0
종교단체	35	9.0	355	91.0	390	100.0

---

### 3. 합의

#### 1) 충남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현황

#####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조사대상자의 주요 특성은 여성(51.7%) 비율이 남성(47.8%)보다 약간 높으며, 연령대는 30대(27.5%)와 40대(21.5%)가 주요 참여층으로 나타남.
- 지체장애(42.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지적장애(19.6%)와 청각장애(14.8%)가 뒤를 이음. 이러한 장애유형의 분포는 문화예술 향유의 접근성과 프로그램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거주지는 홍성군(18.2%)과 예산군(12.4%)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별 접근성 문제와 균형 잡힌 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함.

##### ● 문화예술 향유 현황

- 응답자의 70.8%가 문화예술 향유 경험이 없으며, 연극(39.7%)과 문학행사(39.2%)가 주요 향유 장르로 나타남. 이는 특정 장르에 편중된 문화예술 소비 패턴을 시사함.
- 문화예술교육은 높은 만족도(89.2%)와 재참여 의사를 보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활용 가능

##### ● 문화예술 향유의 제약

-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부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남. 특히, 교통의 불편(16.5%), 관련 정보 부족(16.9%), 비용 문제(12.9%)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함.
- 향유 공간에서는 장애인 복지기관(22.3%) 의존도가 높으며, 공공문화시설의 접근성과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함.

## 2) 충남 장애인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과 한계

### ● 현재 정책의 장점

- 충남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 향유 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은 높은 만족도와 참여 의사를 보이며, 향후 정책적 강화의 주요 축이 될 가능성이 있음.

### ● 구조적 한계

- 향유 공간의 부족과 공공시설의 낮은 접근성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임.
- 정보 전달 경로가 사회복지기관(33.5%)으로 치우쳐 있어 다양한 정보 접근 채널의 부족이 드러남.
- 비용 지원이나 이동 지원과 같은 경제적, 물리적 장벽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요구됨.

### ● 프로그램의 편중성

- 연극과 문학행사 등 특정 장르에 편중된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정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존재함.

## 3)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

### ● 정보 접근성 강화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정보를 다각화된 채널(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로 제공하여 정보 전달 범위를 넓혀야 함. 또한,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 전달 방식(음성, 점자, 간단한 문구 등)을 도입해야 함.

### ● 물리적 접근성 개선

- 문화예술 향유 공간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특히, 지역적으로 소외된 군 지역에 대해 이동 지원과 문화예술 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함.

## ● 포괄적 프로그램 설계

- 특정 장르에 편중된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예술적 관심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포괄적 콘텐츠를 설계해야 함.
- 문화예술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장애유형과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함.

## ● 경제적 지원 확대

- 향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 지원금을 도입해야 함.
-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장기적인 경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 공공시설 접근성 개선

- 공공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대관 절차 간소화, 장애인 우선 배정 시스템 도입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충남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는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접근성을 보장하고, 물리적·경제적 장벽을 해소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임.
- 첫째, 제도적 기반 강화: 정보 전달 시스템 다각화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접근성 개선
- 둘째, 경제적 안정성 보장: 비용 지원 체계 강화와 무료·저비용 프로그램 확대
- 셋째, 공간 및 네트워크 확충: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강화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배치
- 충남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전국적으로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2025~2029)  
발전방안 연구

PART 4.

---

# 제4장 FGI 분석

---

01.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분석 내용
02.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분석 내용



## 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 1) 지원제도의 다각화: 경쟁형 선발보다는 보편적 지원 확대

#### ● 경쟁형 선발의 한계

- 공모사업과 같은 경쟁형 선발을 통한 창작지원은 장애예술인의 고유성과 개별 창작수준을 고려하지 못함.
- 한정된 예산을 두고 경쟁하는 경쟁형 선발방식은 예술가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공모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창작작업을 수정하도록 할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경쟁형 선발 방식은 예술가가 자신의 창작활동에 대해 타인에 의해 평가받고, 선발되지 못할 경우 스스로 자신의 창작활동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창작 욕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김해문화관광재단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김해예술인 지원사업인 '불가사리'사업의 지원방식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 '불가사리 프로젝트(2022년)'는 2021년 지역예술인과 가진 간담회를 토대로 ① 단발성에서 축적성 지원으로, ② 경쟁에서 경험구조로, ③ 관리에서 지원 구조로, ④ 제공형에서 제안형 지원으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 순서별로 지원하되 예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 차년도로 그 순위가 자동 승계되도록 함(정윤수, 2022).

<표 100> 2022년 김해예술인지원사업 「불가사리 프로젝트」 사업공고의 선정방법

#### IV 선정방법 및 결과공고

- 선정: 신청서 접수 순 선정
- 선정 시 우선 순위
  - ▶ 단체 또는 개인의 사회적 기여 목표(탄소중립, 지속발전가능 목표 등)
  - ▶ 예술인 권리 보장, 공정보상 등 참여 여부
  -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교육 이수, 성인지감수성 교육 이수 등(선정 후 필수 교육 이수)
- 선정진행절차 및 특이사항
  - ▶ 신청 단체의 요청 내역을 파악하여, 당해연도 수용 가능한 단체의 수만큼 지원 추진
  - ▶ 신청 접수가 먼저 되었더라도 선정 우선 순위 검토 후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음.
  - ▶ 신청한 프로그램의 성장가능성, 추진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순위 조정될 수 있음.
  - ▶ 신청 단체 중 당해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후순위 단체는 차기년도(2023년) 별도 신청 없이 우선권 부여

출처: 김해문화관광재단, 2022년 김해예술인지원사업 「불가사리 프로젝트」 공모 안내

## ● 유연한 지원 시스템: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과 유연한 지원 절차

- 장애예술인은 창작활동 과정에서 지원금 신청 절차와 사용 후 정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따라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비장애인 중심 지원제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지원제도가 필요함.
-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지원 외에도 문서 작성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방문 제출, 면담이나 인터뷰 형식의 지원, 또는 수어 영상으로 창작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제공해야 함.
- 현재 장애예술 지원은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에 한정되어 있어, 등록 절차가 어려운 장애인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예술활동 등록' 제도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예술인이 적절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장애예술의 범위와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제도를 다각화하며, 지원대상인 장애예술인을 현실적이고 동시대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표 10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예술인의 정의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장애예술은 비전통적인 표현 양식을 활용하여 기존의 예술영역을 넘어 새로운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장애예술 지원사업은 장애유형과 예술장르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지원사업의 경우 대개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의 규모가 다름. 그러나 창작지원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기보다는 작품의 성격, 창작활동의 성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또한 장애예술인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구성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지원금 책정이 필요함.

- 특별히 지역의 경우 중앙의 지원제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성격에 맞는 유연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적은 수의 수요자를 지원하게 되는 지역의 장점을 살려 장애예술인 개별 맞춤형 지원방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는 지원자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창작자의 고유성에 초점을 맞춘 지원체계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임.
- 장애예술분야의 경우 접근 가능한 창작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접근성 확보에 많은 비용이 듦. 때문에 기존의 창작지원사업이 지원하지 않았던 운영비, 공간 조성비,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지역의 경우 중앙 지원제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대신,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유연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수요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장애예술인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방식을 구축해야 함. 이는 지원자 중심의 체계에서 창작자의 고유성과 창작활동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음.
-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을 '장애예술인지원사업'에 한정하지 않아야 함. 간혹 장애예술인이 다른 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장애예술 지원사업에 지원하라는 말을 듣게 됨. 이는 장애예술인을 '장애예술'에 갇히게 하는 일이자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 됨. 장애예술인도 보편적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포함되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함.
- 장애예술인의 중복 및 복수 지원을 허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장애예술인'을 보호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예술인이 보편적 공모사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시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 맞춤형 지원: 과정중심, 공간중심, 개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은 장애와 예술 두 가지 분야를 모두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함. 때문에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애감수성이 높은 장애예술 전담 인력이 필요함.
- 장애예술인의 고유성을 고려하여 과정중심 지원이 필요함. 단시간에 결과물을 발표해야 하는 창작지원은 예술적 수월성을 담보로 하기 어려우며, 창작자가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 때문에 과정중심의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서적으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창작공간이 필요함.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간 중심의 지원이 필요함.
- 장애예술인의 고유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기적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단단계 창작과정 기획이 가능한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연속적인 창작지원금, 제작비 지원 또는 이와 결합된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한 다양한 경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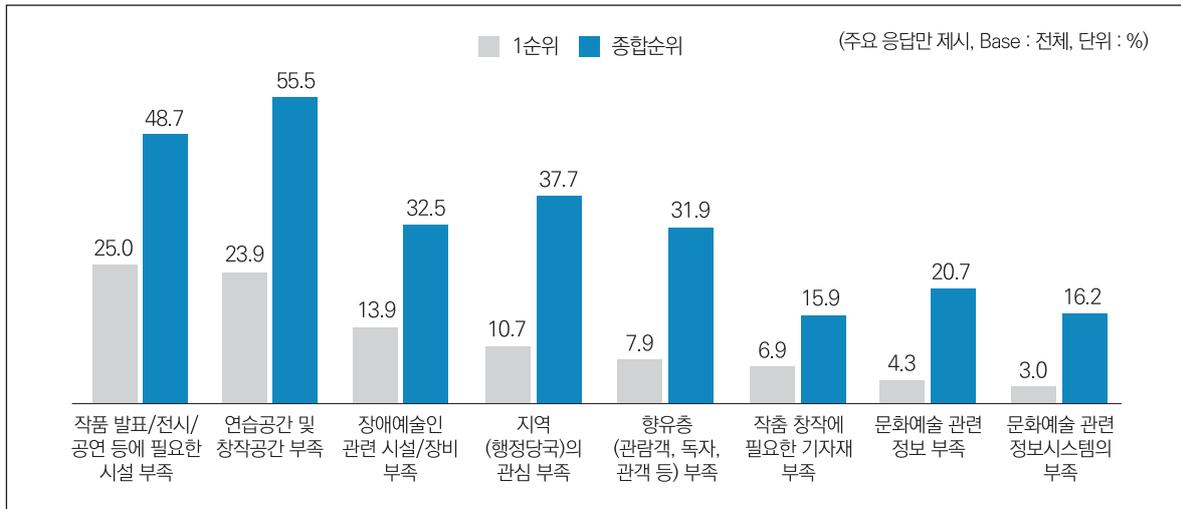
### ● 국내·외 예술가와의 교류 기회 확대

- 장애예술인이 예술적 수월성을 추구하든 그렇지 않든, 비장애인(단체)과의 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국립단체와의 협업은 예술적 수월성뿐만 아니라 다양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할 수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장애예술인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장애·비장애 예술가 및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들과의 워크숍과 협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원은 예술가의 성장을 촉진하고 창작활동의 동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3) 거점 공간(창작공간) 마련

### ● 거점 공간 마련의 필요성

-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의 1순위는 '작품 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부족'(25.0%)이었으며, 2순위는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23.9%)으로 나타남. 1, 2순위 모두 공간에 대한 접근성 마련의 필요를 보여주고 있음. 종합순위로는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같은 연구에 따르면, 이동이 어려운 장애예술인은 창작활동 공간을 선택하는 데 많은 제약을 겪으며,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어려움을 보고함.
-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내용적, 인적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모두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안정적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해서는 거점 공간(창작공간) 마련이 필수적임.



[그림 13]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1순위와 종합순위

출처: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p.336

### ● 기존 공간을 활용한 거점 공간

- 기존의 공연장, 창작공간 등을 장애예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기존 공간의 물리적, 정보적 접근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이용자 중심의 시설 개선과 보수를 진행해야 함.
-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 시에는 장애예술인과 행정 담당자가 함께 공간을 체험하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기존 공간을 장애예술단체의 상주공간으로 유치하거나 장애예술인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공간으로 운영하여, 장기적으로 접근성을 평가하고 창작 및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반다비 체육관과 같은 기존 공공시설의 다목적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재구성하거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기존 공간에 쿼터제를 도입하여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이 지역 문화예술 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음.

### ● 충남형 장애예술 레지던시 운영

- 충남의 지역적 강점을 활용하여 장애예술인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함. 충남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희공간이 많으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창작 및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역의 공간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를 살려, 다채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수 있음.

- 레지던시 운영 시, 소수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보다는 다수를 대상으로 유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선정 방식이 아닌 임대 및 사용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간접적인 지원 형태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예술인이 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상적으로는 장애/비장애의 구분이 없는 통합공간이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현재 비장애예술가와 장애예술가의 성향이 다르고, 장애인 당사자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또는 조력자)들이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독립적 형태의 공간을 마련하되 비장애인들과의 통합공간, 협업공간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음.
- 비장애인 예술가 및 다른 장애예술가와의 협업활동이 레지던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애예술이 홍보 및 환류되는 공간이 될 수 있음.
- 장애예술의 거점공간은 창작, 생활, 경제활동이 가능한 통합형 거점 공간이 되어야 함. 또한 거점공간 운영시 창작 및 일상을 지원하는 상주 인력이 필요함.
- 거점공간 운영은 공공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이 협력하는 형태로, 초기 재정지원은 공공에서 담당하고 운영은 민간이 주도하며, 향후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완주문화재단에서 시행 중인 '완주<한달살기> 사업'은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예술인에게 거주공간(레지던시)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는 예술 경험을, 예술인에게는 창작의 영감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임.
- 위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장애예술인 한달살기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남에 새로운 장애예술인을 유입하고 지역 장애예술인과의 교류 및 협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와 장애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표 102〉 완주문화재단 완주<한달살기>의 사업 안내

〈완주 한 달 살기〉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주민들과 예술의 상호성 및 공공성 확장을 통해 마을 정체성 및 미래가치 창출</li> <li>• 마을단위별 특성을 살린 레지던시 운영이 예술참여로 확장되며 마을의 문화적 활력으로 연결</li> <li>• 지역 내·외부 예술인 간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예술 활동의 폭 확장</li> <li>• 마을별 수요와 현황을 반영한 특화된 완주형 예술공간 발굴, 확보</li> </ul>
사업내용	<b>참여규모</b> - 7개 마을(용진, 삼례, 소양, 화산, 동상, 경천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15여 명 예술인(미술, 무용, 음악, 미디어 등)
	<b>주요내용</b> - 마을 유휴공간 활용 → 예술인 거주공간(레지던시) 제공 - (주 민) 일상안에서 낯선 예술의 경험 - (마 을) 청년예술인 유입과 활동으로 문화적 활력 - (예술인) 지역읽기 통해 창작의 영감과 성장 도움
	<b>결과공유</b> 한달살기의 결과물 완주에서 전시 및 발표

출처: 완주문화재단, 사업안내 완주<한달살기>

## ● 거점공간 운영 사례

-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jamsil\\_main.do](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jamsil_main.do)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예술 지원 플랫폼으로 2007년부터 운영
- 시각예술분야 입주예술가 지원프로그램,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함.
- 점자 안내,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핸들레일, 전동 휠체어 금속 충전기와 같은 접근성 갖추고 있으며, 내방객 필요 시 안내보행을 지원하고 있음.
  
- 부산문화재단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 <https://www.ongrubscf.or.kr>
- 2020년 부산문화재단에서 개관하여 운영 중인 장애 예술인 전용 창작공간
- 부산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가에게 개별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오픈 스튜디오, 발표회 등 창작 역량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
- 부산광역시 수영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을 재생한 비콘(B-Con) 그라운드 시설 중 하나인 페밀리테크에 입주해 활동하고 있음.

## 4) 장애예술인 양성 및 지원

### ● 전문교육기관에서의 맞춤형 교육

-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62.0%는 '전문교육기관·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교육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음.
- 현재 장애예술인 양성을 위한 대학의 전문교육이 부재하므로, 대안 교육과정 및 장애예술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기관이 필요함.
- 또는 기존의 예술학교(대학)이나 교육기관의 입시요강에 장애 전형을 만들거나 혹은 입시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시제도의 수정이 필요함. 대학 예술계 전공학생 중 장애인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장애인 대학생 수로 추산해보면 전체 예술전공 대학생의 0.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입시제도를 수정하면 장애인의 예술대학 입학이 늘어날 것임.
- 기존의 교육기관에 입학할 경우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 예비 장애예술인이 전문예술교육을 받을 때 장애예술인의 고유성을 해치지 않고 독창성과 예술적 수월성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교육자' 혹은 '전문 매개자'가 필요함.
- 장애예술인 교육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예술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 장애예술인 양성은 하나의 단일한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진원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즉, 현재 장애예술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교육-창작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 함. 이 과정에 공간지원, 강사료 지원, 이동 지원과 같은 지원이 포함되어야 함.
- 장애예술인 발굴과 양성에 대한 목표는 하나의 단일한 스타 모델로 구조화될 수 없고, 고유성을 고려하여 개별화되어야 함. 유연하고 포괄적인 지원방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 마련이 요구됨.
- 장애예술인 발굴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예술단체 확보 및 목록화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찰과 연결이 요구됨.

## 2.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 1) 일자리 창출

#### ● 권리중심 일자리

-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 조사 및 분석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비문화예술 활동의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되는 주된 이유는 '낮은 소득'(47.5%), '불규칙한 소득'(37.3%), '고용 불안정'(10.8%) 순으로 나타남.
- 권리중심 일자리는 생산능력중심의 노동이 아닌 '일할 권리'를 중심에 두는 것으로, 공공의 의무가 강화된 일자리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은 2020년 서울시가 최종증·탈시설 장애인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하였음.<sup>1)</sup> 이 일자리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이 직무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장애예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도입이 필요함.
- 권리중심 일자리는 공간중심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음. 특정한 문화예술기관에 장애예술인이 상주하며 창작활동과 시민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장애예술인 당사자의 창작활동은 물론 시민의 장애인식개선에 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권리중심 일자리 마련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근로와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1) 2024년 서울시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거나 신규 도입함.

## ●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 장애예술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장애예술단을 창단하여 장애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해야 함.
- 접근성 실태 조사단을 구성하여 장애예술인이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접근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문화예술 관련 재단,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실천하여 장애예술인을 고용해야 함.
- 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모델로 한 '장애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도입하여, 복지관이나 생활 시설에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이를 이끄는 활동가로 장애예술인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사업목적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을 개발하고 기업·기관 등 사회와 협업하여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술로 사업을 통해 각각의 이슈(고민)와 혁신의 욕구가 있는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결합하여 예술인만이 지닌 독특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슈와 욕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사업구조 및 내용

예술로 사업은 총 3가지(협업사업, 기획사업, 지역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합니다. 예술로 협업사업, 지역사업은 예술인과 기업·기관 선정 후 매칭을 통해, 예술로 기획사업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을 함께 팀 단위로 선정하여 6개월 간 협업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기간동안 예술인은 기업·기관의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예술인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협업활동을 진행해볼 수 있으며, 기업·기관은 창의적 예술방식을 통해 조직의 이슈를 해결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행사, 공연, 전시, 워크숍 등을 기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예술로 사업에서는 996명의 예술인과 200개의 기업·기관이 협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예술인의 활동비(리더예술인-월 140만원 / 참여예술인-월 120만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었으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공간, 회의비 및 재료비 등은 협의를 통해 기업·기관에서 제공했습니다.

[그림 14]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사업 안내

출처: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2023 예술로 디렉토리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 p.8. 재구성

## ● 문화예술교육 강사양성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장애예술인 강사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함.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 강사 양성 매뉴얼을 개발하여 2023년부터 장애예술인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2023년 기초과정, 2024년 심화과정 운영).
- 문화예술교육 강사양성 사업은 예술가의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예술가의 일자리 보장과 문화예술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자리 사업임.
- 다만, 장애예술인 강사양성과 더불어 장애예술인 강사를 배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이 동시에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복지관 또는 관련 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요구를 생각할 때,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과 장애예술인 강사 파견이 함께 진행된다면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와 장애예술인 자립기반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2) 장애예술 창작품 유통 및 플랫폼 제공

### ● 장애인 예술작품(공연) 유통 방식

- 공공과 민간의 문화예술시설에서 장애인 예술작품을 일정 비율 이상 공연·전시하도록 하는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음.
- 장애예술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예술 소비와 연결하여, 장애예술 전시나 공연 관람을 장애인식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음.
- 찾아가는 전시 또는 창작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장애예술품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그러나,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품 유통 지원이 중요하지만, 구매나 유통 이전에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작을 위한 시간과 지원을 제공해야 함. 성급한 유통지원은 순서를 역행하여 창작물의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제공

- 장애예술 창작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권리형 일자리를 확인하고 구직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마련해야 함.
- 이 플랫폼은 기업 및 민간과 장애예술인을 연결할 수 있는 후원 기능도 포함하여,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작품의 세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3.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접근성

### 1) 창작지원 공모사업의 접근성 확대

- 정보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장애예술인이 창작지원 공모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때문에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의 수요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원사업 점자안내자료, 쉬운글 안내자료, 수어영상안내 등 공모사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필요함.
- 마찬가지로 지원신청서 역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되어야 함.
- 또한 창작지원 공모사업 시 장애예술지원센터(지원사업 도움창구)를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이 지원방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의 진행과 정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2) 예술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접근성 마련

-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66.3%가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공공문화시설 이용 시 '복잡한 대관 절차'(69.1점)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함.
- 장애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위한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수월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음.

## 4.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기반 조성

### 1) 충남도의 장애예술 정책 목표 설정

- 현재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기본계획은 중앙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의 수요를 중심으로 마련된 정책임. 중앙의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동일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충남도가 중앙의 속도와 내용 및 수요자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충남도는 현재의 상황을 충실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충남도만의 중점 추진과제와 우선순위가 필요함. 즉,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모두 적용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 및 우선순위를 통한 정책 수립이 요구됨.
- 충남도의 장애예술 저변 확대를 기반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향유), 장애예술 창작지원, 장애예술인 양성 순으로 방향성을 정해야 함. 장애예술인 지원 보다 장애예술 향유권을 우선하여 장애예술 수요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2) 장애예술 철학 및 비평 연구

- 충남도형 '장애예술' 개념화가 필요함. 충남도 장애예술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자격 확립을 위해 충남도가 정의하는 '장애예술', '장애예술인'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함.
- 장애예술 정책을 형성하고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기 위한 연구 작업이 필요함. '장애미학' 또는 '장애예술비평'과 같은 연구의 병행이 필요함.
- 2022년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예술 비평 개념 연구>를 실행한 바 있음.

## 5.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 1)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매개자, 교육자, 협업자, 조력자(활동보조사, 부모, 가족 등) 등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을 전문인력이라고 보아야 함.

- 또한 장애예술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담당자 역시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음. 장애예술 창작활동이 대부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관련 기관 사업담당자의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일상과 동떨어져 진행될 수 없음을 이해하고, 활동지원인, 근로지원인, 부모 또는 가족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적용이 필요함.

## 2) 근로지원인 제도 활용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지원인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은 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조력자인 근로지원인이 고용되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 생계와 직결된 근로의 영역이므로, 일상생활지원과 창작활동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 장애예술 매개자 양성

- 장애예술인의 양성을 위해 매개자, 협업자, 교육자와 같은 핵심 역할을 수행할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필요함.
- 교육 프로그램에는 장애 감수성 향상 교육과 개별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각 예술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전문 교육자와 매개자는 단순한 단기 교육으로 양성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협업과 관계 형성을 통해 발견되고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 과정이 요구됨. 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4) 장애 감수성 및 접근성 교육

- 장애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예술 두 분야 모두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가 필요하며, 단순히 예술적 기술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교육자가 요구됨. 이를 위해 교육자는 장애 감수성 향상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 발달장애예술인의 경우 부모나 양육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부모(양육자)에 대한 장애예술 인식 개선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특히 장애예술 지원사업 담당자는 지원사업 전반에서 장애예술인이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정보적, 의사소통 접근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학습하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담당자는 점자, 수어, 쉬운 글쓰기 등 장애예술인의 필요를 이해하고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는 기초 교육을 제공받아야 함. 이 교육은 담당자가 직접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닌, 장애예술인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이해교육으로 설계되어야 함.

## 5)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사례

### ● 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매개자 과정>

-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2022년부터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매개자 과정>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프로그램으로는 <기획 매개자 과정>, <유통 매개자 과정>, <장애예술교육 매개자 과정>이 있음.
- 또한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의 <접근성 과정>에서도 접근성 매니저, 음성해설작가, 쉬운글쓰기 작가, 공연예술 전문수어통역(번역)가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 완주문화재단 <장애예술교육 매개자 양성사업>

- 2024년 완주문화재단에서는 장애예술 활동에 관심있는 완주군 거주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장애예술교육 매개자 과정> 프로그램을 시행함.
- 장애예술교육 전문가 참여형 워크숍과 1:1 멘토링, 현장실습과 결과공유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 1. 다양한 접근성 확보

- 「2023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23)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목적 중 '여가 및 문화생활 향유'가 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그러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3) 결과, 지난 1년간 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 비율은 영화(15.2%)를 제외하면, 문학 행사 및 미술 전시회(3.9%), 대중음악(3.8%), 연극·뮤지컬·무용(3.8%), 서양음악(1.3%) 등으로 매우 낮아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줌.
- 관람 시 어려움으로는 비용 부담(36.9%), 시설 부족(11.7%), 정보 부족(6.3%), 편의시설 미비(5.2%) 등이 지적됨.
-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비용적, 물리적, 정보적, 사회적 접근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1) 문화예술시설에서의 접근성 확보

#### ● 물리적 접근성

- 공연 및 전시장의 물리적 접근성이 부족할 경우, 장애인은 특정 시간대와 특정 공간에 제한된 관람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는 선택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 또한, 대기실, 분장실, 무대로의 이동과 같은 창작자의 접근성까지 고려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창작활동이 제한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공공문화시설에서는 관람객뿐만 아니라 창작자에게도 물리적 접근성을 포함한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함.
- 접근성이 확보된 공연과 전시를 제작하는 예술가에게 지원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통해, 장애인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기회를 자연스럽게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 감각적 접근성

- 공연 및 전시에 대한 사전정보(팸플릿, 포스터, 리플릿, 구글폼 접수, 예매 방법 등) 제공 시, 장애유형을 고려한 소리, 촉각, 쉬운 말 그림 카드, 문자 등의 감각적 접근 가이드와 소통 방식을 반영해야 함.
- 이를 위해 문화시설의 홈페이지와 SNS에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정기 간행물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QR서비스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4)의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총론)」에 따르면, 물리적 접근성은 문화시설 현장 및 건물 내외부 공간, 차량 및 보행 이동 가능성을 다루며, 감각적 접근성은 문화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사전정보 및 콘텐츠 향유를 위한 다양한 보조장치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표 103〉 물리적·감각적 접근성의 세부 유형별 주요 내용

유형 구분	세부 유형	주요 내용
<b>물리적·감각적 접근성</b> (구성 및 구축)	<b>물리적 접근성</b>	문화시설 현장및건물에대한 접근가능성, 이동가능성 차원에서의 포함 또는 배제 여부 (시설 접근성)
	<b>감각적 접근성</b>	사전 정보, 현장안내, 콘텐츠 향유의 전제조건으로서 시청각적 다양성 차원의 포함 또는 배제 여부 (감각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웹 접근성)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4)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_총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4, p.46. 재구성

### 극장에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 보통 어떻게 이동하나요?

저는 주로 극단 단원들과 함께 공연을 보기 때문에 극장에 갈 때는 장애인 콜택시로 함께 이동해요. 공연을 보고 난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지만, 원하는 시간에 맞춰 예약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용 당일에 택시를 부르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거든요. 배차 시간을 말 그대로 운에 맡기는 거죠. 보통 공연 시작 2~3시간 전에 택시를 부르는데, 기다리다 정 안되겠다 싶으면 대중교통 이든 뭐든 다른방법을 찾아요. 장애인의 극장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덧붙여 극장까지 가는 동안의 이동권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4927>. 〈공연장 접근성의 틈을 매꾸는 사람들〉. 2020년 11월 13일

## ● 서비스 접근성

-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기관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 관람을 계획할 때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웹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할인 제도나 문화누리카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더불어, 문화시설 이용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이들이 향유자로서 고객으로 포함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 ● 콘텐츠 접근성

- 공연이나 전시가 장애인 향유자들과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려면, 콘텐츠를 통한 소통관계를 구축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접근을 문화시설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접근성이 보장된 콘텐츠가 기획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장애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장애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에 대해 쿼터제나 우선권을 부여하여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또한,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충남지역의 장애·비장애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함.

### 서비스 · 콘텐츠 접근성 (공감과 소통)

#### 서비스 접근성

사전 단계 - 관람 단계 - 사후 단계에서 온/오프라인 서비스의 주요고객으로서 포함 또는 배제 여부  
(경제적 접근성, 태도적 접근성, 웹 접근성)

#### 콘텐츠 접근성

현장, 특히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활동(전시, 공연 등)의 주요 향유자로서의 포함 또는 배제 여부  
(정서적 접근성, 지적 접근성)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4)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_총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4, p.46. 재구성

청년 커뮤니티 다/함께/사/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친목 도모를 넘어서 장애환경개선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모임이다. 이번에는 실행을 해 보기로 했다. 공연 관람 시 모임원들이 느낀 불편한 점과 개선 요청 사항을 정리하여 롯데콘서트홀 공식 홈페이지 1:1문의를 통해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다.

출처: 에이블 뉴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긴 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 관람기, 2024년 9월 16일.

## ● 사회적 접근성

- 문화시설의 기획공연 및 정기대관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임.
- 이를 위해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자문위원, 운영위원, 심사위원 등의 구성원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 문화적 접근성

- 콘텐츠와 운영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경험과 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충남지역의 역사 속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과 관련된 지역문화를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음.

### 사회적·문화적 접근성 (참여와 재현)

#### 사회적 접근성

파트너십,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으로서 문화시설의 운영체계와 과정에서 거버넌스 참여여부 (의사결정 접근성)

#### 문화적 접근성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재와 스토리, 양식 등에서 경험 및 관심사의 반영 여부 (문화적 접근성)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4)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_총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4, p.46. 재구성

## 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확보

### ● 규모에 따른 접근성

- 장애인 당사자와의 개별적인 1:1 수업은 장애유형을 파악하고 개별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며, 첫 수업 시 특히 유용함.
- 또한, 1-5명의 소모둠, 6명-10명 중모둠, 10명 이상 대모둠으로 수업이 진행될 경우, 강사(주강사, 보조강사) 외에도 보조인력(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사회복지사 등)의 배치가 필수적임. 이를 통해 다양한 학습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음.

### ● 기간 및 시간에 따른 접근성

- 장애인 학습자들의 연령과 소속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기간 및 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방학이나 학기제를 활용한 단기 프로그램과 기관 및 복지시설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모두 요구됨.
- 충남지역에서는 장애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과 성인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낮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음.

### ● 매개자에 의한 접근성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사들은 장애유형별 접근성을 강조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는 부모나 기관 종사자가 중요한 매개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 및 예술 장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함.

### ● 공간 및 환경에 따른 접근성

- 장애 학습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양산의 <뫼든학교>는 장애인 어머니들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언제나 개방된 공간에서 지역사회 및 문화재단과 활발히 교류하며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줌. 이러한 모델을 충남에서도 도입해볼 수 있음.

〈표 104〉 장애인 예술교육에서의 접근성 관련 체크리스트

분류	체크리스트	응답
<b>규모</b>	장애인의 개별성을 충분히 살피며 접근성 요소를 기획, 보완할 수 있는 규모로 교육 대상의 인원을 설정하셨나요?	
	강사 및 보조인력을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자 대비 교육 대상의 인원수를 1:4 이하로 설정하셨나요?	
<b>기간 및 시간</b>	장애인의 다양한 참여 및 적응 속도를 고려하여 접근성 요소를 기획, 보완할 수 있는 범위로 프로그램 시간을 설정하셨나요?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교육장소까지 이동할 경우, 장애인 콜택시나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 적은 시간대(출퇴근 시간대 제외 등)로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설정하셨나요?	
<b>매개자</b>	장애인의 개별 접근성 요소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수정, 재구성할 인력이 상시 배치되었나요?	
	중증장애인이 새로운 표현도구나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1:1로 배치되었나요?	
<b>공간 및 환경</b>	장애인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교육장소로 이동할 경우, 주변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교육장소에 휠체어 입장이 가능한가요? (주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1층 이외 장소의 경우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등)	
	교육장소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나요?	
	장애인이 프로그램 중간이나 이전, 이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시각장애인을 고려할 경우, 공간 내에 점자블록이나 점자 안내물이 설치되어 있나요?	
<b>소통방식</b>	프로그램 홍보 및 교육대상 모집 과정에서 홍보물에 쉽고 자세한 표현을 사용했나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온라인 홍보 및 모집 과정에서 이미지나 텍스트에 대한 음성 해설 안내를 하였나요?	
	문화시설의 홍보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을 고려하여 지역 내 장애인 커뮤니티나 단체 등에 직접 홍보를 시도하였나요?	
	프로그램 홍보 및 모집 관련 문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장애인이나 보호자, 매개자 등이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였나요?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4).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예술교육). p.89.

---

## 2.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확대

### 1) 정책을 통한 향유 저변 확대

####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

- 연령별·장애유형별 수요를 분석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공급 범위와 지속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공청회, 포럼, 커뮤니티를 통해 기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시민 제안 형식'으로 수렴하고, 이를 행정적 참여와 연결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장애인 문화예술 조례와 관련된 예술단체 및 복지단체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을 확장해야 함.

### 2) 장애인 문화예술 페스티벌 및 경연대회

#### ● 페스티벌 기획

- 지역사회에서의 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 이를 충남의 특성에 맞추어 기획해야 함.
- 다음은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장애인 문화예술 기반 페스티벌 사례임:
  - A+ Festival(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축제):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문화예술축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예술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음.
  - 모두 페스티벌: 대구지역에서 연극을 기반으로 장애·비장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페스티벌로 9회째를 맞이 하였음.
  - 라라미댄스페스티벌: 음악과 무용을 기반으로 한 페스티벌로, 5회째를 맞이함.
  - 루프아트페스티벌: 장애·비장애 청년예술가들이 협력하는 페스티벌로, 3회째를 맞이함.
- 충남의 경우, 유희공간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내 접근성을 높인 '충남 1박 2일 페스티벌'이나 '소규모 공간 접근성 축제'를 기획할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규모 공간에서 더 깊이 교류 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

## ● 경연대회 기획

-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경연대회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음악, 무용,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경연대회는 단순히 수상작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특히, 충남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예술공간을 마련하고, 지역민과 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즉, 정책적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페스티벌 기획, 그리고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경연대회 추진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예술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3) 생애주기별 접근

### ● 학령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

-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부 바우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치료지원서비스'와 '방과 후 수강권'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보건복지부 바우처는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통해 지원되고 있음.
- 이러한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 제한적이거나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현 지원은 음악과 미술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들 활동이 '재활'이라는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 학교 내외에서 문화예술 접근성이 비교적 넓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지속적인 지원 체계는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바우처 시스템을 확대하고, 재활·치료 중심의 지원을 넘어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로 확장해야 함.
- 학교 내외에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급처와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재활' 대신 '문화예술 창작과 참여의 가치'를 강조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해야 함.
-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예술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 성인기 장애인

-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비교적 활발한 편임.
- 그러나 학령기에 집중된 바우처 시스템이 성인기로는 확대되지 않아, 경제적 지원 부족과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 접근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이 복지관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중심으로 제한되며, 민간 예술교육기관과의 연계 부족으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이동 편의성이 제한되고 있음.
- 비장애 예술가 및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통합의 기회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장애인의 선택권과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며, 복지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민간 예술교육기관과의 연계 확대가 필요함.
- 바우처 시스템을 평생교육 지원 체계로 확대하여 성인기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함.
-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용권' 시범사업을 확대·적용하여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평생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함.

## ● 생애주기별 접근의 중요성

-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 성인기에 접어들수록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성인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유아동기에 시작된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이어지며, 전문예술가로 발전할 수 있는 발굴과정이 필요함.
- 서울 강남복지관은 평생교육과 예비예술가 발굴과정을 시행하며, 생애주기별 연계 교육의 대표적 모델로 활용되고 있음(서울 강남복지관, <https://www.kangnamwelfare.co.kr>).

## 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확보와 수요조사

### ● 사전 수요조사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적인 개설과 참여자 확보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는 필수적임. 수요조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사, 학부모, 기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데이터로 활용해야 함.
- 수요조사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및 지원 체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설계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설계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동시에 교육 및 지원 환경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와 협력을 추진해야 함.
-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 5) 문화예술교육 수준의 중요성

### ● 강사 역량 강화

- 충남의 특성에 맞춘 매개자 양성과 강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함.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프로그램 기획 및 해석능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유연한 대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특성과 문화예술교육 목표를 반영한 전문적인 교수법 개발이 요구됨.
- 충남형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사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 강사 관리 체계

- 강사 역량에 따라 단계별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함.
- 지역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연수와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6) 공간 확보와 활용

### ● 소규모 공간 활용

- 충남 전역에 걸쳐 지역 기반의 소규모 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야 함.
-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기존 장애인 시설과 기관은 접근성과 안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효과적임.

### ● 거점공간 운영

- 충남형 거점공간 운영 모델을 발굴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장애인 복지관 및 시설에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배치하고,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해야 함.
- 거점공간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운영 계획 수립 필요.
- 서울과 대구지역의 '장애인 야학'은 지역 중심 공간 활용의 모범 사례로, 충남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도입해야 함.

## 7) 재정 확보와 연계

### ● 자원 조성

- 중앙부처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함.
- 충남의 특성에 맞춘 독자적인 재원을 조성하여 공공자원의 한계와 변동성을 보완해야 함.
- 지역교육청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바우처 및 문화누리카드 활용

- 기존의 바우처 및 문화누리카드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
- 바우처와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뿐 아니라 공연 및 전시관람 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지역 연계를 통해 바우처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2025~2029)  
발전방안 연구

PART 5.

---

# 제5장

##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

01.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의 비전과 핵심가치
02.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의 추진전략과 전략과제



## 1. 비전과 핵심가치

### 1) 비전: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모두를 위한 생태계 조성’

#### ● 충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방향

- 본 연구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자립 지원 및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비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예술을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아 문화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 ● 비전의 근거: 장애인 문화예술의 현황과 필요성

- 충남도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내 장애예술인들은 창작공간 부족, 경제적 불안정, 접근성 미흡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와 창작을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UN 장애인 권리협약, CRPD)과 국내 법률(「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문화예술 환경 구축이 강조되었다.

#### ●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생태계의 의미

- ‘모두’라는 개념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지향한다. 이는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고,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비전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체화된다.

- 첫째, 장애예술인의 자립 지원: 창작지원, 창작공간 제공, 유통 플랫폼 마련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 조성
- 둘째,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셋째, 생애주기별 지원: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체계 마련
- 넷째, 전문성 강화: 장애예술을 지원하는 전문인력과 매개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 보장

## ●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방향

- 충남도는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풍부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예술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전략을 제안한다.
- 첫째, 정책적 지원 강화: 충남형 장애예술 정책 목표 수립 및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 둘째, 접근성 확대: 물리적, 감각적, 사회적 접근성을 강화하여 장애예술인의 활동과 참여를 보장
- 셋째, 지역사회 연계: 장애예술과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예술 생태계 구축
- 넷째, 문화적 다양성 확대: 장애예술인의 독창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

## ● 모두가 함께하는 미래를 위하여

-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비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넘어, 장애인을 문화예술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전과 전략은 향후 5년간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핵심가치

-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핵심가치는 ‘모두’, ‘지속가능성’, ‘창의성’, ‘주체성’, ‘협력과 연결’이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동등하게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충남의 장애예술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충남의 장애인 문화예술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인 것이다.

비전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모두를 위한 생태계 조성
핵심가치	모두 (Inclusivity for All)	-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문화예술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물리적, 감각적, 사회적 접근성을 강화하여 창작과 향유의 기회 제공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창작과 향유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안정적 지원 체계 마련 - 창작 공간, 유통 플랫폼, 교육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창의성 (Creativity)	- 예술활동과 향유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와 문화적 가치를 창출 - 장애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창의적 체험과 참여 장려
	주체성 (Agency)	- 당사자 중심의 창작과 향유 설계로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 - 창작자와 향유자로서 주체적 역할 수행 환경 조성
	협력과 연결 (Collaboration&Connection)	- 장애예술인, 장애인, 지역사회, 관련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상호이해와 공감 증진 -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창작과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생태계 조성

## (1) 모두 (Inclusivity for All)

-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충남도의 문화예술 비전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단순히 접근성 강화를 넘어, 모두가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본 연구는 장애인이 직면한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문화예술의 소비자일 뿐 아니라, 창작자로서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접근성 강화:** 물리적(시설 접근성), 감각적(시청각 지원), 정보적(콘텐츠 접근성), 사회적(편견 해소)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강화하여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도적 기반 마련:**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유통 플랫폼 개발, 전문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자원 확보와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모두'라는 가치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에 접근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주체성을 인정하며 사회적, 예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2)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충남도의 문화예술 비전에서 중요한 핵심가치이다. 이는 단순한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이 모두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참여하며,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본 연구는 장애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은 창작자로서의 자립적 활동을 이어가고, 장애인은 문화예술 향유자와 참여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창작 및 참여 공간 확충:**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공간과 장애인의 참여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며, 이는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 **유통 플랫폼 개발 및 향유 기회 확대:**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이 대중과 만날 수 있도록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작품이 지역사회와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을 위한 전시, 공연, 문화예술교육과 같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문화예술 참여의 기쁨과 창작의 영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전문교육 및 멘토링 체계 구축:**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교육과 멘토링 체계를 마련하여 창작역량과 예술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장애인에게도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예술을 통한 정서적 성취와 자기표현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재정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 민간 후원, 지역 예산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 제도나 장기적인 지원 기금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가치는 장애예술인과 장애인 모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충남은 창작과 향유가 균형을 이루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3) 창의성(Creativity)

-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창의적 가능성을 발현하는 것은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비전의 핵심가치 중 하나이다. 이는 장애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이 함께 창작과 향유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본 연구는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독창적 예술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창의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장애예술인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지원 기금, 전용 창작공간, 창작 도구 등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예술인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창의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장애인의 창의적 향유 경험 확대:** 장애인이 단순히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과정에 참여하며 창의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술가와의 협업 프로그램, 창작 워크숍 등을 통해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경계를 허무는 창작과 향유:** 장애와 비장애, 창작자와 향유자의 경계를 허물고,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창작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한다.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예술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실험과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 **콘텐츠 유통 및 확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이 대중과 만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창작물의 가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향유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문화예술 참여의 기회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창의성'이라는 핵심가치는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이 각각 창작자와 향유자로서의 창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충남은 장애와 비장애, 창작과 향유를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4) 주체성(Agency)

-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당사자 중심으로 설계하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비전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가치이다. 이는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이 각각 창작자, 향유자, 기획자로서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본 연구는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가 단순히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들이 스스로의 예술적 가치와 표현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당사자 중심의 창작과 향유 환경 설계:**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의 의견과 요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지원 체계와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장애예술인은 창작과정에서 스스로의 예술적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문화예술을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 **창작 및 향유 주체로서의 권한 부여:** 장애예술인이 단순히 작품을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작 기획, 전시 및 공연의 운영까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 문화예술 향유의 과정에서 관람자로 머무르지 않고, 워크숍과 협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작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자율성을 지원하는 체계 강화:** 장애예술인이 예술활동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 제공과 전문적 멘토링, 지원금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이 문화예술 참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접근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역량 강화 및 주체성 기반 교육:** 장애예술인을 위한 리더십 교육과 기획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들이 창작자이자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에서도 창작과 향유 과정에서 스스로의 표현과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적 접근을 통해 자율성과 자신감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이 주체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이들의 활동이 지역문화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이 공동 창작과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의 주체적 활동이 개인을 넘어 사회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주체성'이라는 핵심가치는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이 단순히 문화예술 활동의 수혜자가 아닌, 창작자와 향유자로서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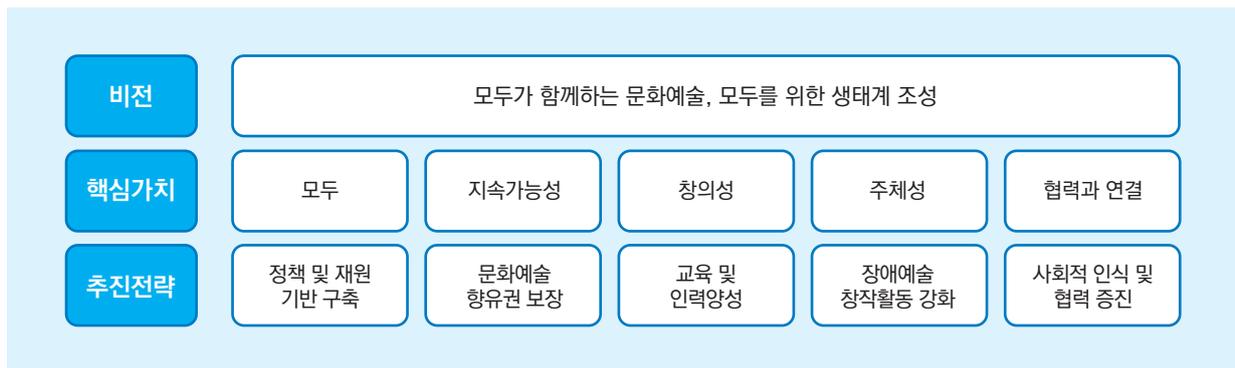
충남은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5) 협력과 연결(Collaboration & Connection)

- 장애예술인, 비장애예술인, 지역사회, 관련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상호이해와 공감을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예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을 도모하는 것은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비전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협력과 연결은 단절된 개인적 활동을 넘어, 장애예술인이 지역사회 및 다양한 문화적 주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적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본 연구는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가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장애예술인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의 장을 통해 더 큰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 간 협력 촉진:**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이 공동 창작, 전시, 공연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이 예술계 전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비장애예술인도 장애예술을 이해하며 포괄적 예술생태계의 일부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역사회 및 관련 단체와의 연결 강화:** 지역사회와 민간단체,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촉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유희공간,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장애예술 활동과 향유를 지역사회와 밀접히 연결함으로써 지역 전체가 문화적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지역, 국가,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작품과 활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무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경험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한다.
- **협력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장애예술인과 장애인, 비장애예술인,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창작 워크숍, 전시·공연 제작, 지역 축제 등)을 개발하여, 공동작업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협력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 각 주체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공감 속에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민간 협력 체계 강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장애예술 지원의 다양한 재원과 자원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장애예술과 문화예술 향유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과 향유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 결론적으로, ‘협력과 연결’이라는 핵심가치는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이 비장애예술인,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예술적·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 연결은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가 보다 넓은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도록 돕는 기반이 될 것이다. 충남은 이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1. 추진전략

-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의 추진전략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예술의 가치와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창작활동 강화,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교육 및 인력양성, 정책 및 재정 기반 구축, 사회적 인식 및 협력 증진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 전략과제를 설정하였다.
- 각 추진전략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활동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충남을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1) 정책 및 자원 기반 구축

- 정책 및 자원 기반 구축은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과 재정적 안정성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실현한다.

#### ● 핵심 개념

- 정책적 비전과 목표 설정: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

- 지역 특화 정책 개발: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되,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장애인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 재정적 안정성 확보: 장애예술 창작 및 교육,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공공 및 민간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하고, 지역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한다.
- 정책 효과 평가 및 개선: 정책의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 목표

- 충남형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및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체계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한다.

## 2)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은 모든 장애인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문화예술에 접근하고 이를 즐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문화예술 체험과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 핵심 개념

- 접근성 강화: 문화예술 시설과 프로그램에서의 물리적, 감각적, 정보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유아부터 노인까지 각 생애 단계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모든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문화예술 체험 확대: 장애인이 단순 관람자가 아닌 참여자와 체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개발한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편견 해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지역 중심의 향유 환경 구축: 접근 가능한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소규모 지역 축제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 ● 목표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그들의 정서적,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적 소외를 해소한다.
- 모든 장애인이 사회적 통합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등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참여 환경을 구축한다.

## 3) 교육 및 인력 양성

- 교육 및 인력 양성은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와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전문성을 갖춘 강사 및 매개자를 양성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 ● 핵심 개념

- 전문강사 양성: 장애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교육 프로그램 다각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장애유형과 예술 장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
- 매개자 역할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예술적 협업과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 장애 감수성 교육: 장애인과 협력하는 강사 및 매개자를 대상으로 장애 감수성과 접근성 교육을 필수화하여,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상호 이해를 높인다.
- 인프라 구축: 강사와 매개자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교육 및 훈련 시설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 목표

- 장애유형별 교육 전문성을 갖춘 강사 및 매개자 양성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 접근성을 강화한다.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매개자 역할 강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한다.

## 4) 장애예술 창작활동 강화

- 장애예술 창작활동 강화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예술적 자립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창작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예술인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 ● 핵심 개념

- 포괄적 지원 체계구축: 경쟁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 유형, 경력, 연령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의 기회를 확대한다.
- 창작환경 개선: 장애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며, 창작공간, 도구,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창작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다.
- 창작 역량강화: 예술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적 교육프로그램, 멘토링,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자립과 성장 가능성을 확대한다.
- 다양한 창작 기회 제공: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장르와 경력에 따라 다양화하고,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교류 활동, 공동 창작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 창작과 유통의 연결: 예술활동의 성과물이 대중과 만날 수 있도록 전시, 공연, 유통 플랫폼과의 연결을 강화하여 창작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 ● 목표

-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를 통해 장애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이 독립적인 창작자로 자리 잡고, 이들의 예술적 성과가 지역사회와 대중에게 공유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 5) 사회적 인식 및 협력 증진

- 사회적 인식 및 협력 증진은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벽을 허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협력과 공감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 장애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 ● 핵심 개념

-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예술의 가치를 사회에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장애예술 홍보 강화: 장애예술인의 작품과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한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력 확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한다.
- 지역사회 참여 유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장애예술 생태계를 확장하고, 지역 예술단체 및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한다.
-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예술 지원과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 목표

- 장애예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공감의 문화를 조성한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협력적 창작환경을 구축하여 문화적 통합을 실현한다.

## 2. 전략과제

- 충남형 장애예술인 지원체계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조성  
과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표로, 정책적·재원적 기반 구축부터 교육, 창작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포함한 다각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충남은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b>비전</b>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모두를 위한 생태계 조성				
<b>핵심가치</b>	모두	지속가능성	창의성	주체성	협력과 연결
<b>추진전략</b>	정책 및 재원 기반 구축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교육 및 인력양성	장애예술 창작활동 강화	사회적 인식 및 협력 증진
<b>전략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형 장애예술인의 정의와 지원범위</li> <li>- 재원 조성 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개선</li> <li>-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제공</li> <li>- 소규모 공간 활용 모델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감수성 및 접근성 교육</li> <li>- 지원 매개자 및 전문인력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 지원 제도 마련</li> <li>- 거점 창작공간 마련</li> <li>- 창작지원 공모 사업 접근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프로젝트 기획</li> <li>- 사회적 가치 확산 협력모델</li> </ul>

## 1) 정책 및 재원 기반 구축

### (1) 충남형 장애예술인 정의와 지원 범위

#### ● 충남형 장애예술인의 정의 필요성

- 충남의 장애예술인은 창작과 향유의 기회를 통해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지만, 창작환경의 제약, 전문성 강화의 부족, 정보 접근성의 한계, 이동성과 물리적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특히, 충남 장애예술인 다수는 예술대학 졸업이나 전문예술교육 이수라는 전통적인 예술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신 장애인복지관, 병원, 특수학교 등에서 재활적 접근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경로를 밟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장애예술인' 정의가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며, 많은 장애예술인을 배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충남형 장애예술인의 정의는 충남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창작 중심으로 접근해,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특히, 충남 장애예술인의 정의는 창작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과 예술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 ● 충남형 장애예술인 정의

- 충남형 장애예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문화예술 활동을 직업적 또는 비직업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예술적 창작과 발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개인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포함한다.

- **포괄적 접근성:** 창작 초기 단계에 있는 예술인도 포함하며, 공연, 전시, 발표 등 최소 1회 이상의 창작 경험을 가진 사람 뿐 아니라,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포괄한다. 이 정의는 예술인 증명이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국한되지 않으며, 창작활동에 대한 의지와 잠재력을 가진 장애예술인을 폭넓게 포함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충남지역의 특성 반영:** 이 정의는 장애예술활동이 단순한 재활의 연장선이 아니라, 창작 중심으로 전환되어 장애예술인이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술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특수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이 지역사회와 문화예술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지속 가능한 창작역량 강화:** 단순한 창작 경험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창작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며, 창작자의 지속적인 예술적 성과를 목표로 한다.

- **사회적·문화적 기여:**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이 단순한 창작자를 넘어 문화향유자, 교육자, 지역사회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정의는 충남형 장애예술인의 창작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적 기준으로,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지향한다.

## ● 충남형 장애예술인 지원 범위

### • 포괄적 창작지원

- 창작경험의 다양성 인정: 충남형 정의는 예술활동 증명서, 예술대학 졸업 여부 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복지관, 특수학교,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시작된 창작 경험도 인정한다.

---

- 초기 창작 단계 지원: 창작활동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창작 경험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장애예술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를 통해 예술적 잠재력을 가진 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예술활동의 지속 가능성 확보**

- 체계적 창작지원: 창작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멘토링, 발표 기회 제공, 창작공간 지원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초기 창작자가 전문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향유 및 교육 활동 포함**

- 창작과 향유의 융합: 총남형 정의는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및 향유 활동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은 단순한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교육자, 향유자, 지역사회와의 협력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보장: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한다.

• **정책적 실효성 강화**

- 정의의 유연성 확보: 예술활동의 직업적·비직업적 성격을 구분하지 않으며, 초기 창작 경험도 인정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 지원 시스템의 확립: 총남형 정의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면서도 창작자의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 (2) 장애유형별 장애예술인 지원방안: 접근성 측면

- 장애유형별 지원방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각 장애유형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물리적, 감각적, 서비스, 콘텐츠, 사회적, 문화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창작환경과 발표 기회를 개선하고, 장애예술인이 예술적 잠재력을 발휘하며 지역사회와 문화예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장애유형별로 특징과 접근성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을 실행하기에 앞서 장애예술인 당사자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사전질문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구체적인 필요를 파악함으로써, 단순한 창작활동 지원을 넘어 문화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 지체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

- 지체장애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작공간과 발표공간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경사로, 넓은 출입구, 엘리베이터, 무장애 화장실, 전동 휠체어 충전기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창작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장비와 보조공학 기기를 제공하고, 전문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작업과 발표를 지원해야 한다. 창작공간은 장애예술인의 작업대와 조명 시스템, 공연예술을 위한 방음시설과 연습실 등 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장애예술인의 작품발표를 위한 무대와 전시공간을 제공하며, 이러한 창작환경은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

- 시각장애 예술인을 위한 지원은 점자와 음성 기반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창작공간에 점자 블록과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음성 안내 시스템을 통해 이동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촉각적 자극을 활용한 창작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발표 공간에서는 점자 설명판, 음성해설 서비스, 촉각형 작품 전시 등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또한, 창작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촉각과 청각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러한 작품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예술적 표현이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

## ●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

- 청각장애 예술인을 위한 지원은 시각적 신호와 진동 기반의 창작 및 발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창작공간과 발표 공간에 디지털 자막 시스템과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진동 기반 악기와 음향 시스템을 제공하여 청각장애인의 감각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공연과 전시에서는 수어 통역과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작과정에서는 시각적 소통을 강화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지원한다. 이러한 접근은 청각장애 예술인이 비장애인과 협력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

- 발달장애 예술인을 위한 창작환경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소음 차단과 적절한 조명을 통해 안정감을 높이고, 다양한 감각적 도구를 활용한 창작 놀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행동을 지원하는 전문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과 함께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

- 뇌병변장애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작업 공간 내 전동 의자와 특수 키보드 등 맞춤형 작업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창작 도구는 촉각, 음성, 시각 기반의 복합적 도구로 구성하며, 작업을 보조하는 보조 기기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창작과정의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 발표 공간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뇌병변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

- 정신장애 예술인을 위한 지원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창작공간은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조명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창작과정에서는 예술심리치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작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신장애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작업 스케줄과 발표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정신장애 예술인의 창작물은 지역사회와 문화예술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 (3) 자원조성 방안

###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확대

#### •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 충남도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다. 중앙부처의 장애예술 관련 예산과 정책 방향을 적극 반영하여 충남도의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공동 재원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애예술 지원사업과 협력하여 충남 내 장애예술인의 창작공간 구축을 포함한 창작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예술교육과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이러한 협력은 중앙부처의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충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결합하여 장애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된다.

#### • 충남도 예산 확대

- 충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장애예술인 및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담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자원 기반을 마련한다.
- 도내 문화예술 예산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에 배정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여 예산 활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 충남형 문화예술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예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의 기반을 확립한다.

#### • 기초자치단체와 연계 강화

- 시·군 단위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거점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과 발표 공간을 확대한다.
-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시설의 물리적·감각적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공동 부담하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 지역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

### ● 민간 협력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 • 기업 사회공헌활동(CSR) 유치

- 도내 및 전국 대기업의 사회공헌기금(CSR)을 활용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유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진한다.
- 장애예술인을 후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공인하고, 세제 혜택을 제 공함으로써 후원 참여를 확대한다.
- 후원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알리기 위해 장애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홍보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한다.
- 도내 기업과 장애예술인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후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와 문화예술 생태계의 상생을 도모한다.

#### • 기부금 및 후원 플랫폼 구축

- 장애예술 창작품의 유통과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전용 온라인 후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부와 후원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 및 단체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플랫폼을 통해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구축한다.
- 장애예술품 구매와 후원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기부 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후원을 장려한다.
-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예술 활성화와 연계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다시 장애예술 지원에 재투자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 플랫폼 내에서 기부자와 장애예술인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참여자의 기여를 알리고, 예술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 ● 자체 자원 및 지속 가능한 예산 조성

#### • 문화예술 바우처 사업 확대

- 충남도는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국비와 연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문화예술교육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장애인 복지 바우처(발달재활서비스, 방과후활동 서비스 등)와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와 예술의 통합적 지원 구조를 강화한다.
- 장애유형과 연령대에 적합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바우처 사업의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감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괄하고, 개별적인 필요와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 바우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예술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바우처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 개선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 지역 내 민간 문화예술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바우처 사업을 통한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유희공간 임대 및 레지던시 유료화**

- 충남 내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창작 레지던시 및 문화예술 교육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러한 공간은 창작과 발표, 교육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지역 예술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발전시킨다.
- 일부 공간은 소수의 무료 이용자를 우선 지원하되, 다수의 유료 이용자를 통해 운영비용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공간 유지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 유료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는 창작지원, 멘토링, 발표 기회 제공 등 추가적인 혜택을 통해 참여자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예술적 교류와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 운영 수익의 일부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에 재투자하여, 지역 내 장애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 **공연·전시 수익 재투자**

- 장애예술인의 공연 및 전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및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단체 관람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입장료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결한다.
- 공연 및 전시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장애예술 창작기금으로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이는 창작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오프라인 공연·전시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 콘텐츠(영상, 음원, 디지털 전시 등)의 제작 및 판매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유통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료화 수익 모델을 활성화한다.
- 장애예술품(회화, 공예, 조각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확대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이 보다 널리 소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플랫폼 내에서는 작품 홍보와 판매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작품 인지도를 높인다.
- 장애예술인의 공연 및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연결하고, 후원 참여를 유도하여 수익을 장애예술 생태계 발전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 ● 부처 및 재단 간 연계사업 추진

### •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지원)와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지원)의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장애예술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두 부처의 예산과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작지원, 복지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문화적 역할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모델을 통해 장애예술인을 창작 활동 및 지역사회 문화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문화예술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이 학교, 복지시설,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장애예술인을 학교예술교육 강사로 배치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예술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고,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역량을 다음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장애유형별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맞춤형 강사 양성 및 배치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한다.
- 부처 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장애예술인의 요구와 상황에 맞춘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 지역 내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및 교육 기회를 지역 특성에 맞게 확장한다. 이를 통해 도내 장애예술인이 다양한 직업적·문화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 • 타 재단 및 기관 사업 연계

- 지역 복지재단 및 예술진흥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일 기관의 예산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향유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다.
- 공동 예산 분담 및 지원 체계 구축: 충남문화관광재단, 지역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구조를 통해 장애예술 창작지원사업, 발표회 개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예산을 분담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사업 간 연계성 강화: 복지재단의 장애인 복지사업과 예술진흥기관의 예술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복지재단의 이동 지원 서비스와 예술진흥기관의 창작 공간 제공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참여를 촉진한다.

- 기관 간 전문성 공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복지재단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성을 제공하고, 예술진흥기관은 창작 지원과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 공동 프로그램 개발: 지역 복지재단과 협력하여 장애예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포용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내 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협력 네트워크 구축: 타 재단 및 기관과의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한다.

#### • 국제기구 및 해외 펀드 연계

- 유네스코 및 국제기구 협력 강화: 유네스코(UNESCO), 국제장애연맹(IDA),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기금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충남의 장애예술 지원사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
- 해외 장애예술 지원 프로그램 연계: 유럽연합(EU) 문화기금, 아시아문화재단(ACF), 국제교류재단(KF)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장애예술 지원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충남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교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국제적인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장애예술 레지던시사업에 해외 펀드 유치: 해외 장애예술 지원 펀드 및 민간 재단(예: 미국 폴락-크래스너 재단, 일본 미쓰비시 재단)으로부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을 유치하여, 충남 장애예술인의 국제교류를 위한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장애예술인들이 다양한 국가와 문화적 맥락에서 창작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제 예술교류 기반 마련: 충남의 장애예술인 창작품을 해외 예술 축제, 비엔날레, 전시회 등에 소개하며, 국제 예술시장과의 연결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글로벌 입지를 확대하고, 충남의 장애예술이 국제적인 예술생태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국제 펀드 및 기금 신청 지원: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장애예술인의 국제 펀드 및 기금 신청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 준비와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 국제 협력 프로젝트 개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충남과 해외 도시 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예술적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 ●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 장애인예술인 및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 제정

- 예산 확보 및 집행 근거 마련: 장애인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참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와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예술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 공공문화시설 사용 우선권 및 비용 감면 규정: 장애인예술인이 공연, 전시, 연습공간 등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관료와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장애인예술인의 접근성과 발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 공모사업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 할당 의무화(쿼터제): 공공의 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장애인예술인을 위한 예산 비율을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예술인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한다.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조항 추가: 조례에 장애유형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창작 및 발표 지원, 교육 기회 제공,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공공 및 민간 협력체계구축 의무화: 조례를 통해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예술 지원사업에 민간 후원과 사회공헌활동(CSR)을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 문화예술 종사자 교육 규정 신설: 공공문화시설 운영자 및 문화예술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예술인을 위한 접근성 및 포용성 교육을 의무화하여, 장애인예술인의 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정기적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조례에 따라 장애인예술인의 활동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 세제 혜택 강화

- 장애인예술 창작품 구매 세액공제 확대: 개인 및 기업이 장애인예술인의 창작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비율의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한다. 이는 장애인예술 창작품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애인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 후원 세제 혜택 강화: 장애인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기부 및 후원 활동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후원금 사용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기부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기업 CSR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 장애인예술인을 후원하거나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 차원의 장애인예술 지원 참여를 유도한다.

- 문화예술 상품권 및 바우처 활용 시 혜택 부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품을 구매하거나 공연·전시 관람권을 구입할 때 바우처 사용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일반 소비자도 장애예술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세제 혜택 홍보 및 인식 강화: 세제 혜택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세무 관련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과 개인이 장애예술 창작품 구매 및 후원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 • 지역 발전 기금 활용

- 지역발전기금의 예술분야 활용 확대: 충남도의 지역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을 포함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 균형발전특별회계와의 연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장애예술인의 창작공간 조성, 발표 기회 확대,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에 활용하여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이 지역 전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지역사회 특화사업과의 협력: 충남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지역발전기금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문화유산과 연계한 장애예술 작품 제작 지원이나 지역 축제와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 투명한 기금 운영과 성과 관리: 지역발전기금의 활용 내역을 공개하고, 장애예술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기금 사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 4) 보편적 지원제도 마련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경쟁 중심의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보편적이고 유연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제고한다.

### (1) 지원대상 확대

- 경쟁형 선발에서 벗어나,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고유성과 창작 방향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넓힘.

## ● 보편적 지원제도 설계

- 모든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창작 및 향유 지원을 제공.
- 충남형 유연한 지원 시스템 설계로, 지역 내 장애예술인 맞춤형 지원 환경 구축.

### • 창작지원

- 장애유형과 예술장르에 따라 창작활동 지원을 차별화하는 제도는 장애예술인의 개별적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먼저, 장애유형별 지원으로 시각장애 예술인의 경우, 점자 및 음성지원 도구와 같은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료 및 도구 구입 비용을 제공한다. 청각장애 예술인은 공연 및 협업 과정에서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으며, 의사소통을 위한 디지털 소통 도구 구입비도 포함된다. 발달장애 및 지적장애 예술인에게서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담 코치 또는 조력자 배치 비용이 지원되며, 창작과정에서 시각적 지침과 쉬운 글 자료 제작 지원도 포함된다. 이동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 예술인에게서는 창작공간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 이동 지원비, 그리고 창작 장비 및 보조 도구 구입비가 제공된다.
- 한편, 예술장르별 지원으로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특수 재료와 도구 구입 비용, 작업실 대여비, 창작 공간 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연습실 및 공연장 대여비, 공연 장비 대여비, 무대 접근성 개선 비용이 포함되며, 발달장애와 청각장애 예술인에게서는 맞춤형 연습 환경과 공연 환경이 제공된다. 문학 및 글쓰기 분야에서는 점자 타자기와 음성 인식 프로그램 등 창작 도구를 지원하고, 출판 및 배포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융합예술 분야에서는 디지털 장비 구입 및 소프트웨어 지원, 기술적 자문 및 협업비 제공, 작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기술 도입 비용이 포함된다. 전통예술 및 공예 분야에서는 특수 재료와 장비 구입비, 작업환경에 맞는 안전장치 및 조력자 배치 비용, 그리고 홍보와 전시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
- 이처럼 장애유형별, 예술장르별로 세심하게 설계된 창작 지원제도는 장애예술인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창작활동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창작 역량과 성취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창작지원은 개인 예술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제공되며, 개인의 경우 예술적 목표와 활동 범위를 고려한 소규모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반면, 단체는 창작 규모와 관객 참여 수준 등을 기준으로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창작활동의 성격, 예술적 기여도, 장애유형에 따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며, 이는 장애예술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창작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된다.
- 이와 함께, 창작지원 제도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속 지원 체계를 포함한다. 연간 프로젝트나 다단계 창작과정에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방식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적 성취를 높이는 동시에 장애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향유 지원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향유권 바우처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관람자 및 참여자로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요 내용으로 관람과 체험 및 문화예술교육 비용, 교통비 지원을 포함한다.
- 바우처는 연령, 장애유형,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영화, 연극, 뮤지컬, 미술 전시회, 음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교육 또한 다양한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한, 바우처의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의 소규모 문화예술 시설과 프로그램 참여에도 적용 가능하게 하여 지역 기반의 문화 향유 환경을 강화한다.
-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관람과 교육에 필요한 교통비를 포함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택시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공연장 및 전시장으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셔틀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 가능한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검토하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 바우처 신청 및 발급 절차는 간소화되어 장애인이 온라인, 방문, 전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시각·청각·발달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쉬운 글, 점자 안내 자료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신청자는 필요에 따라 관람 동반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인도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한, 바우처를 활용한 문화예술 관람 이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유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적, 문화적 소외 없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 • 지원방식

-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해 선착순 방식과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도입하여 모든 장애예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전화 및 영상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장애유형과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신청 방식을 허용한다. 선착순 방식은 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에는 다음 해로 순번을 자동 승계시켜 지속적인 지원 기회를 보장한다. 이러한 방식은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장애예술인들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급한 창작활동 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유용하게 작용한다.
- 이 방식은 김해문화관광재단의 ‘불가사리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해당 프로젝트는 지원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차년도에 우선 지원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쟁 중심에서 축적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충남 장애예술인 지원체계에 맞게 반영하여, 경쟁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지원 신청자가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첨 방식을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추첨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관단 입회하에 진행되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공개 추첨 방식을 도입한다.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기본 가중치를 부여하고, 창작 성과물, 발표 경험 등 추가 가산점을 적용하여 선정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한다. 추첨에서 제외된 신청자는 차기 지원사업에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 순번을 인정받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금액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기본 지원금은 모든 선정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제공되며, 추가 지원금은 창작의 규모, 협업 인력 필요성, 프로젝트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현한다. 또한, 지원사업 선정자에게는 창작비 지원뿐만 아니라 발표·전시 기회와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연계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 지원 신청 과정에서는 쉬운 글, 수어 영상, 점자 자료를 제공하며, 장애예술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작성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장애유형의 접근성을 보장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첨 결과와 지원 현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이 동등하고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충남의 장애예술 지원체계는 단순히 경쟁 중심에서 축적 중심으로 전환하여, 장애예술인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한다. 김해 ‘불가사리 프로젝트’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충남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장애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 • 창작지원 기준 확대

- 창작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등록 여부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장애예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이 비정규적이거나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거나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기준은 장애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장벽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창작지원 제도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폐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등록 여부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필수 조건으로 삼기보다는, 예술활동에 대한 의지와 계획, 그리고 실제 창작 사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창작활동 포트폴리오, 장애예술인 당사자의 서술 자료, 혹은 지역 커뮤니티나 단체의 추천서 등을 활용하여 지원 기준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현실을 반영하고, 더 많은 예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 복수 및 중복 지원 허용

- 복수 및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정책은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의 많은 지원사업들은 중복 지원을 제한하여 장애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예술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예술가로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복수 및 중복 지원을 허용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은 자신의 창작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에 동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각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작 지원사업과 공간 대여 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과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지원방식 다각화

- 지원사업 절차를 단순화하고, 장애유형과 개별적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식을 도입.

### ● 유연한 지원 절차

- 유연한 지원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장애예술인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여 지원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존의 지원사업은 주로 문서 제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예술인에게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서 접수 과정에서 문서 제출 외에도 면담, 수어 영상,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절차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은 수어로 지원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은 지원 담당자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지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양식이나 음성 안내를 제공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예술인을 위해 방문 접수를 허용하여 접근성을 확대한다.
- 지원 절차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청 및 결과보고 과정에서 전담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 인력은 장애예술인과 소통하며 지원사업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 작성, 결과보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수어 통역사, 문자 통역사, 점자 전문가 등 다양한 접근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창의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유연한 지원 절차는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고유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 과정 중심 지원

- 과정 중심 지원 체계는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 접근 방식이다. 기존의 단기 결과물 중심 지원은 창작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발전 시간을 제공하지 못해 예술적 완성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작 초기 단계부터 중간 단계, 그리고 발표 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창작 초기 단계에서는 예술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창작 워크숍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초기 기획 단계에서 창작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창작 방향성을 함께 설정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 중간 단계에서는 창작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자원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작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 지원이나 창작공간 확충, 협업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창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중간 점검을 통해 창작물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예술인이 창작과정에서 충분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발표 단계에서는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발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예술인의 작품이 적절히 평가받고, 관객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창작 동기를 얻을 수 있도록, 발표를 위한 공간 제공, 홍보 지원, 관객 피드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접근성 문제를 고려하여, 물리적, 감각적, 정보적 접근성을 강화한 발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과정 중심 지원 체계는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단순히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창작과정 전체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성취를 높이고, 지역 내 장애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 기대효과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의 폭을 넓히고, 창작 욕구를 촉진.
- 공정성과 포괄성을 갖춘 보편적 지원체계를 통해 창작환경을 안정화하고, 장애예술의 가치와 다양성 증대.
- 장애인의 창작 및 향유 활동에서의 심리적, 사회적 장벽을 해소하여 문화예술 생태계의 사회적 통합성 강화.

## (2) 거점 창작공간 마련

- 거점 창작공간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며, 장애인의 창작과 향유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통합적인 공간 모델로 설계되어야 한다.

### ● 충남형 거점 창작공간의 조건

#### • 거점 창작공간의 필요성과 충남의 특성 활용

- 충남의 창작공간 조성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예술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충남은 수도권에 비해 대관료가 저렴하고, 시·군·면 단위로 접근 가능한 유휴공간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접근이 용이한 거점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창작, 공연·전시, 자료 제공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교통망과 연계한 셔틀 서비스나 대중교통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 • 무장애 설계 및 물리적 접근성 보장

- 거점 창작공간은 장애예술인이 이동과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무장애 설계를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경사로, 자동문, 넓은 출입구, 무장애 화장실, 전동 휠체어 충전기, 핸드레일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장애예술인의 이동 제약을 해소하고, 창작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창작공간은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개인 작업실과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소음과 외부 자극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조명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창작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 정보적 접근성 보장

- 정보적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안내 시스템, 음성 안내 서비스, 쉬운 글로 작성된 공간 이용 가이드북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적 지원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공간을 손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안내 인력과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공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읍·면 단위 유휴공간 활용

- 읍·면 단위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소규모 창작 및 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러한 유휴공간은 단순히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 지역주민과의 문화

---

적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에서도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충남 전역으로 문화적 활동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 **복합공간으로의 설계 및 다목적 기능**

- 거점 창작공간은 단순히 창작활동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와 전시, 작품 보관 및 자료 제공을 포함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시각예술 분야를 위한 대형 작업대와 적합한 조명 시스템, 공연예술 분야를 위한 방음시설과 연습실, 음악 분야를 위한 악기와 음향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발표 공간으로는 전시실과 공연장을 포함하여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작품 관리와 공유를 위한 자료실도 마련해야 한다.

•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

- 창작공간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뿐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까지 포괄하며, 지역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커뮤니티 허브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작공간은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며, 충남의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한다.

• **레지던시 프로그램 도입**

- 장애예술인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지역 내 장애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레지던시는 장애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창작과정에서의 집중과 몰입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교류의 기회를 확대한다.

- 레지던시는 예술활동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장애예술인은 이동과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창작활동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장애 유형과 창작 분야에 맞춘 공간과 설비를 통해 창작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레지던시는 단순히 창작을 위한 공간을 넘어, 다양한 예술가 간의 협업과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특히, 비장애예술가와의 교류를 통해 장애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장하며,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레지던시 공간은 창작활동 외에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예술인은 지역 주민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창작자의 예술적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고 이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레지던시 공간 내에서 창작과정의

일부를 공개하거나 작품 전시 및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

- 충남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지역의 유휴공간과 기존 공공시설(예: 반다비 체육관)을 활용하여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단기적 체류뿐만 아니라 창작 도구와 설비,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창작과 향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장애예술인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공간과 지원 체계를 제공하며,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조성하여 장애예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 또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운영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초기 자금은 공공이 지원하고, 운영은 민간 전문기관이 주도하여 거점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충남 레지던시는 단순히 창작공간에 머물지 않고,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 예술적·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 • 장기적 활용

- 창작공간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작공간은 단순히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시설이 아닌,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다. 장애예술인은 자신의 창작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창작공간을 장기 대여하거나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창작과정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공연 및 전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연습실, 제작 공간, 자료실 등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창작활동 초기 단계부터 중간 작업, 최종 발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공간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전반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예술가의 창작활동이 공간 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표 및 공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연장, 전시실 등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 창작공간의 운영 방식도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간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대여 기간을 조정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공간을 장기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예약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장애예술인이 창작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이와 더불어, 창작공간 운영 시 장애예술인이 작업 중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주 운영 인력을 배치하고, 공간 내 기술적 문제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활용 방안은 창작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창작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 조성

###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공간 조성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거점공간은 학령기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실, 강의실, 세미나실, 소규모 모임 공간 등 다양한 교육목적에 맞는 공간을 조성한다. 이러한 공간은 장애인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단기 및 장기 프로그램 모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발달장애인을 위한 창작놀이 공간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창작놀이 공간은 안전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 공간은 밝고 편안한 색감과 안정적인 구조로 디자인되어야 하며,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통해 창작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와 도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촉각 및 시각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도구,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지원하는 미술 조형 교구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은 발달장애 아동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창작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며, 온도 조절과 소음 차단 기능을 포함하여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 또한, 부모나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가족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발달장애아동의 창작활동에 대한 가족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창작 워크숍이나 놀이형 미술활동을 통해 가족 중심의 포용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창작놀이 공간은 비장애아동에게도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통한 창의력 발달은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요소이며, 놀이와 창작을 결합한 활동은 발달장애와 비장애 여부를 넘어 아동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공간은 비장애아동과 발달장애아동이 함께 사용하는 모두의 환경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통합 놀이 및 창작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발달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참여하며 사회적 기술과 협력 능력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따라서, 창작놀이 공간은 발달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우러져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와 비장애 간의 경계를 허물고 포용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 성인을 위한 전문 예술교육 공간

- 성인을 위한 교육공간은 보다 심화된 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화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술 교육을 위한 화구와 작업대, 음악교육을 위한 방음시설과 악기, 무용교육을 위한 바닥재와 거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공간은 개인 맞춤형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룹 활동과 워크숍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유연성 확보**

- 거점공간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기적 창작활동,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저녁 시간대 전문예술교육 등 다양한 시간대와 주제를 수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요구와 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다.

•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

- 문화예술교육 거점은 단순히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기능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과 소규모 공연, 전시 등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포용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다.

• **정보적·물리적 접근성 보장**

- 거점 공간은 모든 장애유형을 고려한 정보적·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점자 안내판, 음성 안내 시스템, 쉬운 글로 작성된 가이드북을 통해 장애인 학습자들이 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경사로, 넓은 출입구, 무장애 화장실 등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교육 거점은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거점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예술인을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고용 창출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교육공간은 지역 내 장애예술 발전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 **기대효과**

- 거점공간 마련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동시에 확대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형 공간을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  
-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공간 운영으로, 지역 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장애예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3.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2025~2029) 로드맵

#### 1) 1단계: 기반 구축 (2025년까지)

##### ● 정책 및 재정 기반 강화

- 충남형 장애예술인의 조작적 정의 및 지원 범위를 명확히 확립하여 정책적 기반 마련.
-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담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장애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
- 지역 내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리모델링하여 무장애 거점 창작공간 및 소규모 지역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 문화예술진흥기금 내 장애예술 지원을 위한 별도 항목 신설과 함께,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및 기초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예술인을 위한 공동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재정 분담 모델을 도입.
- 장애예술 지원 정책의 체계적 집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책 실행을 위한 행정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
-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특화된 장애예술 지원 사업 개발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

##### ●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사업 확대 및 시범운영
  - 충남도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
  - 국비와 연계한 도비 매칭 사업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참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및 대관 절차 간소화
  - 공공문화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유형별 이용 편의를 증대(예: 무장애 경사로, 점자 안내판, 수어 안내 서비스 제공).
  - 공공문화시설 대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애예술인을 위한 우선 배정 시스템 도입.
  -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대관료를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적 지원 마련.

-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춘 맞춤형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장애인이 적합한 콘텐츠를 통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을 병행하여 생애주기별로 지속 가능한 참여 기회 제공.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동형 공연 및 전시를 통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도 참여 기회 제공.

## 2) 2단계: 확대 및 실행(2026~2028년)

### ● 창작 및 교육역량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강사 양성
-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
-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예술 분야(음악, 무용, 미술, 연극 등)의 체험과 학습을 병행.
- 문화예술 강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가 장애유형별 교육 접근법과 창작 지도 능력을 습득하도록 지원.
- 장애예술인을 교육 강사로 발굴·양성하여, 교육 참여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

-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링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분야별 전문가와 연결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
- 전문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작기술, 표현력, 작품 완성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중장기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별 계획 수립, 창작 과정 지원, 발표 기회 제공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
- 장애예술인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여 타 예술가와의 협업과 창작의 다양성을 촉진.

-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도입

- 충남 내 유희공간과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마련.
- 레지던시 기간 동안 창작지원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
- 창작활동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발표·전시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예술인의 활동 성과를 지역사회와 연결.
-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충남 장애예술인의 글로벌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 교류를 촉진.

## ●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

-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연계한 장애예술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도입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여 장애예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장애예술 창작물을 공공예술 프로젝트(공공미술, 전시 등) 및 기업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하여 수요를 창출.
- 우선구매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의 홍보와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세계 혜택, 사회공헌 인증제) 제공.

- 장애예술인의 공연 및 전시 활성화를 위한 정기 프로그램 기획

- 충남 내 주요 문화시설(문예회관, 갤러리 등)에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기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발표 기회 확대.
-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장애예술인의 발표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장애예술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기 발표 프로그램(예: '충남 장애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표 환경을 조성.

- 장애예술 창작품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개발 및 활성화

- 장애예술 창작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전문 플랫폼을 개발하여 유통 채널 다각화.
- 장애예술 창작품의 가치와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작품 설명, 창작과정 다큐멘터리 등)를 통해 소비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
-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기업, 개인 후원자와 연결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매와 후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 글로벌시장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국어 지원 및 국제 배송 시스템을 마련하여 해외 유통 가능성을 확대.

## ● 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 진행
  - 장애예술인의 창작과정과 작품을 알리는 다각적 홍보 캠페인 진행(예: 다큐멘터리, 웹 콘텐츠, SNS 광고).
  - 장애예술의 사회적·문화적 기여를 강조하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홍보 콘텐츠 제작.
  -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과 연계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예: 강연, 전시, 워크숍 등)으로 장애예술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알리기 위해 '장애예술 주간'과 같은 정기적 홍보 이벤트 개최.
- 장애예술 후원기업 인증제 도입 및 민간 후원 활성화
- 장애예술을 후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기업에 세제 혜택 및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 가점 제공.
  - 후원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장애예술 작품과 후원 활동을 홍보하는 공동 캠페인 진행.
  - 민간 후원 활성화를 위해 장애예술 전용 기부 플랫폼 운영, 기부자와 장애예술인의 소통을 위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류 행사 마련.
  - 후원기업 및 개인 기부자를 대상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증정, 특별 공연 초대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역주민 참여형 장애예술 축제 개최
- 지역주민과 장애예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창작 프로젝트와 체험형 워크숍 운영.
  -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축제 기획(예: '충남 장애예술 페스티벌').
  - 축제의 일환으로 장애예술인을 주제로 한 토크쇼, 전시 투어, 퍼포먼스 등을 통해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
  - 지역 내 비장애인 예술인, 예술기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참여 프로그램 마련.
  - 축제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작품 판매와 후원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 3) 3단계: 정착 및 지속 가능성 강화(2029년 이후)

#### ●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 장애예술 창작기금 도입 및 창작활동에 대한 지속적 투자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공공기금뿐 아니라 기업 사회공헌기금(CSR), 개인 기부, 지역 발전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
  - 창작기금은 창작 준비 단계에서 발표 및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며, 중장기 창작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한 지원 체계구축.
- 
- 장애예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공공사업 확대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모델을 기반으로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 및 예술강사, 문화예술 코디네이터 등의 일자리 확대.
  -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예술인의 작품과 공연을 활용한 문화행사와 캠페인 운영을 통해 고용 기회를 창출.
  - 지역 문화센터, 학교, 복지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을 강사 또는 예술교육자로 활용하는 공공사업 확대.
  - 장애예술인의 직업적 성장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직무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 지역 기반의 창작, 교육, 향유 공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지역 내 유희공간과 공공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 교육, 발표 공간으로 리모델링 및 활용.
  - 거점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읍·면 단위의 소규모 공간과 연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장애예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보장.
  - 창작, 교육, 향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며, 장애예술인의 창작 발표 기회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병행.
  -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충남 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작 환경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 이러한 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장애예술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포용적 문화 생태계를 확립.

## ● 협력 및 국제화

- 국제기구 및 해외 펀드와 연계한 장애예술 교류 프로그램 추진
  - 유네스코, 국제장애인예술연합(IDAA)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장애예술 지원 펀드와 협력하여 충남 장애예술인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국제적 창작 경험과 네트워크 확장 지원.
  - 국제 장애예술 축제 및 교류 행사에 충남 장애예술인을 초청하고, 충남을 중심으로 한 국제 장애예술 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 협력 강화.
  - 해외의 장애예술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충남형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 충남 장애예술 모델의 전국적 확산 및 국제적 홍보
  - 충남 장애예술 지원정책 및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워크숍, 세미나, 정책 포럼 개최.
  - 충남형 장애예술인의 정의 및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 표준 모델 개발 및 타 지역 적용 가능성을 모색.
  - 국내의 장애예술 전시회 및 공연에 충남 장애예술인 작품을 홍보하고, 전용 부스를 운영하여 충남 장애예술의 정체성과 성과를 알림.
  - 디지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하여 충남 장애예술인 및 정책 모델을 국내외로 홍보하고, 글로벌 문화예술 네트워크와 연결.
  - 충남을 거점으로 한 국제 장애예술 교류 행사 개최를 통해 충남 장애예술인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

## ● 평가 및 개선

- 지원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장애예술인 의견수렴
  - 장애예술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간 주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구축.
  -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활동,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을 기반으로 정량적·정성적 평가 지표를 개발.
  - 장애예술인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기 간담회,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및 지원사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 
- 데이터 기반의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정책 보고서 발간
  - 지원사업 참여율, 창작 성과물 수, 발표 기회 증가율 등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객관적인 결과 도출.
  - 장애예술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례 정책 보고서를 발간.
  -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 사례를 대내외에 홍보하여 장애예술인의 활동 및 정책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2025~2029)  
발전방안 연구

PART 6.

---

# 제6장 맺음말

---

- 01. 결론
- 02. 시사점 및 제언



- **충남형 장애예술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단순히 장애를 가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충남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은 단순한 창작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충남은 유휴공간의 활용 가능성과 대도시에 비해 낮은 대관료,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지역 기반 인프라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충남형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주요 방향성을 제시한다.**
  
- **장애예술인의 포괄적 정의와 접근성 강화**
  - 충남형 장애예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술활동 증명이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창작 초기 단계의 예술인과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는 창작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의지를 존중하며, 창작의 초기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확대한다.
  
- **창작 중심 지원체계 확립**
  - 장애예술활동이 단순히 재활의 연장선이 아닌 창작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충남은 창작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물리적·감각적·사회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거점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창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공연·전시·발표의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예술인이 창작자로서의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적 가치 실현

- 충남형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는 장애예술인이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문화예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거점 창작공간은 단순한 창작의 장을 넘어 문화예술교육, 지역민과의 교류,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기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지역민의 장애인식 개선과 문화적 통합을 실현한다.

## ● 자원 기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 충남형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국제기구 및 해외 펀드 연계, 기업 사회공헌활동(CSR) 유치, 지역발전기금 활용 등 다각적인 자원 마련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투자하여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한다.

##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체계 도입

- 각 장애유형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통해 창작 및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물리적·감각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 및 교육 과정에서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 충남형 장애예술인의 미래와 비전

- 충남형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는 단순히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예술인을 지역사회의 문화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잠재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충남의 지원체계는 전국적인 장애 예술 지원 정책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궁극적으로, 충남형 장애예술인은 창작과 향유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며, 장애를 넘어선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충남은 이러한 장애예술인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과 예술,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나갈 것이다.

## 1. 시사점

### ● 예산 불투명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 부족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2022년부터 시행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2025년 관련 예산이 불투명한 상황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이는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 접근이 장애인 문화예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줌.

### ●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사업의 불안정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지 못할 경우,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과 향유권 확대가 심각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훼손할 수 있음.

### ● 도 단위 광역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부족

- 장애인 문화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한 충남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부족함. 이는 국가 정책과 지역적 실천 간의 연계를 약화시키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 장애인 전용 거점공간의 부재

- 중부권 장애인을 위한 표준공연장 및 전시장, 창작활동을 위한 거점공간이 부족한 상황은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발표 기회를 크게 제한하고 있음. 이는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휘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가 절실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줌.

### ● 장애예술인의 체계적 관리 부재

- 장애예술인으로서의 경력을 1회라도 가진 개인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재라며, 정책적 지원과 창작 환경 조성에서 실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장애예술인의 지속적 성장과 지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

## 2. 제언

###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이용권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이를 위해 충남도는 예산 확보와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함.

### ● 광역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강화

- 충남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는 장애인 문화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함.

### ● 중부권 표준공연장 및 창작 거점공간 설치

-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발표를 위한 중부권 표준공연장 및 전시장, 창작 거점공간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함. 이러한 공간은 장애유형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창작, 발표, 교육, 향유를 포괄하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장애예술인 관리 플랫폼 구축

- 장애예술인의 공연 및 전시 경력을 기반으로 장애예술인으로 등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이는 장애예술인의 활동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책 지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

### ●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사업의 확대 및 안정화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비와 연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정책 수행을 보장해야 함.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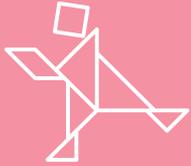
### ● 장애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

- 장애예술 창작과 발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내 문화예술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함.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이 단순히 창작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문화예술 생태계에 기여하는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고문헌

1. 「2023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23)
2.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3)
3. 2022년 충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4. 2024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시행계획
5. 경기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6. 광주문화재단 2023 장애예술인 지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
7. 김동일, 이미지, 이연재(202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국내 메타분석논문의 특성 및 질 평가분석/ 발달장애연구. 26(2) pp. 146~147.
8. 김휘정(2020). 호주의 예술기관 거버넌스의 쟁점과 시사점 -이해관계의 충돌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경제연구, 23(1): 147-172.
9. 김해문화관광재단(2022.01.07.). 2022년 김해예술인지원사업「불가사리 프로젝트」공모 안내.김해문화관광재단.  
([출처]([https://www.ghct.or.kr/board/detail/board01/228?searchCategory=title&searchText=불가사리&\\_method=get&boardId=BOARD\\_000000089&pageIndex=1&searchBoardCategoryId=&searchStatus=](https://www.ghct.or.kr/board/detail/board01/228?searchCategory=title&searchText=불가사리&_method=get&boardId=BOARD_000000089&pageIndex=1&searchBoardCategoryId=&searchStatus=)))
10. 남현주(2021). 독일 문화예술분야에서 다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1.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기본계획(2022-2026)
12. 서울문화재단 2024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운영 기본계획
13. 송민옥, 이성자, 김훈주(2010),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견해.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8(1), pp. 52.
14. 완주문화재단(n.d). 완주<한달살기>.  
([출처](<https://www.wfac.or.kr/2023/inner.php?sMenu=2024F2>))
15. 이동철, 김경진(202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9권 제2호 pp. 118-119.
16. 정윤수(2022). 예술인 지원정책의 전환과 참여소득의 가증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대중음악, 307-336.
17. 정용문(2021). 문화예술분야의 장애인 고용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8. 정용문(2023). 호주의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고용 정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9. 정종은·최보연(2021). 장애예술단체 활성화 정책의 방향 모색: 영국의 정책 및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12(2): 81-113.
20.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21. 주시드니 한국문화원(2021), 호주 문화예술 정책 동향
22. 주프랑스 한국문화원(2017), 프랑스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법적 권리 현황과 개선 방안
23. 주한영국문화원. 영국장애예술자료집.
24.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2021.4.30.)
25.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2023.4.24.)
26. 프랑스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 Culture et handicap. Guide pratique de l'accessibilité (2007).  
([출처](<https://bit.ly/3Wn9l5Z>))

- 
27.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8.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3).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복지시설 이용자(장애인) 응답자 특성.
  30.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3).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2023 예술로 디렉토리북. 서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2). 문화시설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 기초연구 보고서.
  3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1). 발달장애인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pp. 159.
  33.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4).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의 총론. pp.45-49.
  34.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4).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_ 예술교육. pp.89-90.
  35.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36.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37. 한국장애학회 2022년 12월 월례세미나 자료집.
  3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3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기본계획(2022-2026)」
  40. 「장애예술인지원정책 국가 비교(한국장애학회 2022년 세미나 자료집)」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2025~2029)  
발전방안 연구**





# 부 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조례 목록

연번	지역	세부 조례 내용		
1	서울특별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6조(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참여확대)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시행규칙)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원사업)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확대)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등) 제10조(장애예술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11조(시행규칙)
3	부산광역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지원계획 수립등)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제5조의2(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6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7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8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4	대구광역시 북구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구청장의 책부)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지원사업)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8조(업무의 위탁) 제9조(시행규칙)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군수의 책무)	제4조(지원계획 수립등)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제6조(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7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시행규칙)
6	광주광역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행계획 수립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원사업) 제7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확대)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등) 제10조(장애예술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11조(시행규칙)
7	광주광역시 서구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시행계획 수립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원사업) 제7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확대)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10조(장애예술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11조(시행규칙)
8	대전광역시 서구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시행계획 수립등) 제5조(지원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제7조(장애예술인 단체 지원)

연번	지역	세부 조례 내용		
10	경기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태조사) 제6조(지원) 제7조(우선구매)	제8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위탁) 제10조(시행규칙)
11	경기도 군포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제6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8조(장애예술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9조(시행규칙)
12	경기도 부천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제6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13	경기도 파주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6조(시행규칙)	
14	강원 특별자치도 원주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제6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7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시행규칙)
15	충청북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실태조사) 제6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제7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제8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노력)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10조(사무의 위탁)
16	충청남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지원사업) 제6조(실태조사) 제7조(위탁)	제8조(시행규칙)
17	전북 특별자치도 전주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 운영)	제7조(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제8조(지원사업) 제9조(실태조사)/ 제10조(시행규칙)
18	전라남도 여수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8조(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9조(준용) 제10조(시행규칙)

연번	지역	세부 조례 내용		
19	경상북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실태조사) 제6조(지원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8조(시행규칙)
20	경상남도 양산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21	경상남도 창원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제6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9조(시행규칙)
22	제주 특별자치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 운영)	제7조(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제8조(지원사업) 제9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지원)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시행규칙)

## 부록 2

## 2023년 충청남도 장애인 등록 현황

시도별	2023								
	합계			지체			시각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전국	2,641,896	1,529,806	1,112,090	1,153,501	671,330	482,171	248,360	147,334	101,026
충청남도	134,004	76,878	57,126	60,854	35,385	25,469	12,051	7,192	4,859

청각			언어			지적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432,854	227,155	205,699	22,830	16,105	6,725	229,780	138,384	91,396
22,892	11,722	11,170	1,053	728	325	12,924	7,673	5,251

뇌병변			자폐성			정신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40,546	138,462	205,699	42,744	35,350	7,394	104,197	52,499	51,698
10,438	5,872	4,566	1,586	1,295	291	5,328	2,720	2,608

신장			심장			호흡기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08,623	64,950	43,673	4,933	3,186	1,747	11,029	8,106	2,923
4,313	2,595	1,718	197	115	82	515	409	106

간			안면			장루·요루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5,634	10,846	4,788	2,757	1,617	1,140	17,117	10,694	6,423
599	419	180	125	76	49	851	526	325

뇌전증		
계	남자	여자
6,991	3,788	3,203
278	151	127

## 충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학회는 (재)충남문화관광재단의 위탁과제인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2025-2029) 연구’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전반적인 문화예술향유 및 활동을 분석하고, 충남도 여건에 적합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탐색하여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지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9월



**책임연구원**

홍혜전 (서원대학교 교수, 한국장애인학회 문화예술분과위원)

**조사문의**

최지혜 (한국장애인학회)

김나영 (한국장애인학회)





B4. 귀하의 주된 관람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입장권 개별 구매                      ② 초대권으로 관람                      ③ 무료 행사
- ④ 입장권 단체 구매                      ⑤ 단체무료관람                      ⑥ 기타 (                      )

B5. 귀하의 주된 문화예술교육 참여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강사 방문 교육                      ② 참여자 방문 교육

B6. 귀하는 주로 누구와 같이 관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십니까?

- ① 혼자                      ② 부모                      ③ 배우자                      ④ 자녀
- ⑤ 형제자매(친척)                      ⑥ 친구 ⑦ 연인                      ⑧ 직장동료                      ⑨ 이웃
- ⑩ 지원인력(활동지원사,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 ⑪ 기타 (                      )

B7. 귀하께서 문화예술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① 평일 낮 시간                      ② 평일 저녁 시간                      ③ 주말 낮 시간                      ④ 주말 저녁 시간
- ⑤ 기타 (                      )

B8. 귀하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 ① 인터넷 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②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 ③ 안내문(현수막, 간판, 지하철 광고 등)                      ④ 신문·잡지
- ⑤ 텔레비전·라디오                      ⑥ 공공기관·교육기관 홈페이지
- ⑦ 사회복지·장애인복지 기관 및 단체                      ⑧ 주변사람
- ⑨ 해당 안내책자                      ⑩ 정기발행 이메일 및 뉴스레터
- ⑪ 동호인 모임                      ⑫ 기타 (                      )

B9. 귀하가 문화예술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으로 <보기> 번호를 3순위까지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문화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	② 관람비용의 적정성	
③ 공연 및 교육 단체(연출, 작가, 출연진)의 유명한 정도	④ 행사개최 장소의 유명한 정도	
⑤ 거리 및 교통의 편의성	⑥ 장애인 편의시설 및 편의지원(화면해설, 쉬운해설, 수어통역 등) 정도	
⑦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 언론보도	⑧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주위 의견, 네티즌 의견	
⑨ 관람 및 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성(정보접근성)	⑩ 관람 및 교육참여를 함께할 사람	
⑪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의 전문성	기타(                      )	

B10. 귀하께서 참여한 문화예술활동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순으로 <보기> 번호를 3순위까지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공연 또는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② 참여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③ 자주 진행되어야 한다.	④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⑤ 관련 정보가 많아져야 한다.	⑥ 이해하기 쉬운 공연이 많아져야 한다	
⑦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⑧ 편의지원(화면해설, 쉬운해설, 수어통역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⑨ 장애유형별 교사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⑩ 기타(                      )	

B11. 귀하가 문화예술활동을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가장 어려웠던 순으로 <보기> 번호를 3순위까지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① 비용이 많이 든다                      ②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③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④ 교통이 불편하다                      ⑤ 편의시설이 불편하다  
 ⑥ 편의지원이 부족하다(화면해설, 쉬운해설, 수어통역 등)                      ⑦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⑧ 함께 관람할 사람이 없다                      ⑨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⑩ 기타 (                      )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이용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 및 응답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C1. 귀하가 지난 1년(2023년 8월 ~ 2024년 7월) 동안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이용한 공간에 대하여 각각의 항목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활동 공간	C1	C1-1.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C1-2
	이용 여부 (네 C2로 이동 아니오 C3로 이동)	만족도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향후 이용 의향
		①	②	③	④	⑤	
1) 시, 군, 구민회관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문예회관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장애인 복지기관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청소년회관(수련원, 수련관 등)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문화원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박물관·미술관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문학관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생활문화센터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 문화의 집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 사설문화센터 (백화점·신문사·방송사 등)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 주민자치센터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4) 민간예술단체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5) 종교단체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충청남도 장애인 예술활동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학회는 (재)충남문화관광재단의 위탁과제인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2025-2029) 연구’의 일환으로 장애인 예술활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 장애인 예술활동을 분석하고, 충남도 여건에 적합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탐색하여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지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9월



한국장애인학회

Korea Society for Disability Studies

**책임연구원**

홍혜전 (서원대학교 교수, 한국장애인학회 문화예술분과위원)

**조사문의**

최지혜 (한국장애인학회)

김나영 (한국장애인학회)









4. 장애예술단체와의 협업				
5. 비장애예술단체와의 협업				
6. 기타(개인/단체/협회명: )				

C7. 귀하는 예술활동 시 협력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협력 주체(개인/협회/단체)를 찾기 어려워서
- ② 비장애예술인과의 협력이 두려워서
- ③ 협력 주체의 협업이 본인의 활동에 필요하지 않아서
- ④ 협력작업에 관심이 없어서
- ⑤ 타 예술가와의 협력작업 속도가 맞지 않아서
- ⑥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 ⑦ 기타 ( )



귀하의 **전문 예술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 및 응답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D1. 귀하는 전문 예술가로 언제부터 활동하였습니까? (☞ 예시: 2020년도.)

\_\_\_\_\_ 회

D2.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처음 예술교육을 받았습니까?

- ① 장애인복지시설 교육과정(프로그램)을 통해
- ② 학교 등 공교육기관을 통해
- ③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 ④ 병원 등 재활시설을 통해
- ⑤ 예술단체의 문화예술교육(ex. 꿈다락 등)을 통해
- ⑥ 기타 ( )

D3. 귀하는 전문 예술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D3-1.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C7. 문항으로 이동)

D3-1.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 전문 예술교육을 받았습니까?

- ① 장애예술인 단체/협회
- ② 대학 내 예술관련 학과(예술대학)
- ③ 비장애예술인 단체/협회
- ④ 예술전문학교(예중/예고)
- ⑤ 개인 레슨
- ⑥ 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
- ⑦ 기타 ( )

D3-1.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 전문 예술교육을 받았습니까?

(☞ 가장 어려웠던 순으로 <보기> 번호를 3가지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장애예술인 전문 교육기관/시설 부족
- ② 장애예술인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
- ③ 교육에 관한 정보 부족
- ④ 교육기관 내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
- ⑤ 장애이해가 부족한 교육자(전문강사)
- ⑥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교육교재 등 부족
- ⑦ 부담되는 교육비
- ⑧ 기타( )

D4. 귀하는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예술교육이 개설된다면, 참여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D4-1.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D4-1. 희망하는 전문적인 예술교육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경제활동(고용 및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 및 응답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1.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예술단체 소속의) 정규직
- ② (예술단체 소속의) 비정규직
- ③ 프리랜서

E2. 귀하는 예술활동 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예 (☞ E2-1.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E3. 문항으로 이동)

E2-1. 예술활동 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낮은 소득
- ② 불규칙한 소득
- ③ 고용 불안정
- ④ 열악한 작업환경
- ⑤ 기타( )

E2-2. 예술활동 외 다른 직업은 예술활동과 관련이 있습니까?

- ① 예 (☞ E2-3.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E3. 문항으로 이동)

E2-3. 다른 직업이 예술활동과 관련 있다면, 어떤 직종입니까?

- ① 관리직
- ② 사무직
- ③ 서비스직
- ④ 판매직
- ⑤ 홍보직
- ⑥ 연구직
- ⑦ 장치/기계조작직
- ⑧ 단순노무직
- ⑨ 교육직
- ⑩ 기타( )

E3. 귀하는 문화예술계 입문 후, 1년 이상 예술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E3-1.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E4. 문항으로 이동)



F2. 귀하는 문화예술 행사(관람) 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가장 어려웠던 순으로 <보기> 번호를 3순위까지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① 행사(관람)신청 절차의 어려움                  | ② 행사(관람) 비용의 부담     |
| ③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 부족 | ④ 대중교통 이용 등 이동의 어려움 |
| ⑤ 서비스(수어·문자통역/점자자료/보조기구 등) 지원의 부족   | ⑥ 공연 정보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
| ⑦ 행사(관람)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부재          | ⑧ 기타( )             |



귀하가 **충남에서 예술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만족스러운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 및 응답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G1. 귀하는 최근 (2021년부터) 아래에 제시된 문화예술 지원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G2.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G3.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이나 기간 면에서 얼마나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G1. 문화예술 지원 경험		G2. 중요도					G3. 만족도					
	① 있음	② 없음	낮은 중요		→ 높은 중요			낮은 만족		→ 높은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생애최초 창작지원													
2. 신진예술 창작지원													
3. 충남예술지원 (문학/시각/음악/연극/무용/전통/보존)													
4. 충남다원예술 창작과정 지원													
5. 예술연구 과정지원													
6. 지역특화 문화브랜드 기획지원													
7. 사회적가치 특화지원													
8.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9. 예술교류지원(협력/거점교류)													
1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11.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													

※ 설문 응답을 종료하기 전,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2025~2029) 발전방안 연구

발행인	서흥식
발행처	(재)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 예산군 삼교읍 예학로 10-22 전화 041-630-2900 <a href="https://www.cnctf.or.kr">https://www.cnctf.or.kr</a>
발행일	2024. 11. 30.
연구기관	한국장애학회

본 보고서는 문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2025-2029  
연구**

